23일 Market Index
코스피 4708.54 (-161.42)
코스닥 635.45 (-10.23)
금리(국고채 3년) 3.623 (-0.019)
환율(원·달러) 1345.9 (+9.7)

metro 경제

하나금융그룹

2002년 5월 31일 창간 독자센터 (02)721-9841 구독료: 월 20,000원 / 1부 1,000원 뉴메트로 11주년 대한민국 희망을 찾아서 2026년 11월 24일 화요일

재계 인사 키워드 '안정'… 현대차그룹도 연속성 무게

삼성전자·SK그룹·LG그룹 등 핵심계열사 CEO 대부분 유임

현대차 호세 무뇨스 유임여부 6년 기아 이끈 송호성 거취 관심

삼성·SK·LG 등 국내 주요 그룹이 연말 인사에서 대대적인 최고경영자(CEO) 교체보다 기존 경영체제 유지에 무게를 둔 가운데 현대자동차그룹의 인사 방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글로벌 경기 둔화와 지정학적 리스크, 주요 시장의 수요 위축 등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데다 현대차의 판매 부진까지 겹치면서 현대차그룹 역시 조직 쇄신보다는 경영 안정과 사업 연속성을 선택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23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SK, LG그룹은 최근 단행한 사장단 인사에서 핵심 계열사 CEO를 대부분 유임시키며 안정적인 경영 기조를 이어갔다. 경영진을 대거 교체하기보다는 기존 리더십을 유지하면서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로보틱스 등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필요한 인재를 전진 배치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삼성전자는 지난 20일 사장단 인사에서 전영현 디바이스솔루션(DS)부문장과 노태문 디바이스경험(DX)부문장의 투톱 체제를 유지했다. 대신 메모리사업부장과 모바일경험(MX)사업부장에 각각 황상준 사장과 최원준 사장을 선임하며 사업부별 경쟁력 강화에 나섰다. LG그룹도 주요 계열사 CEO를 대부분 유임한 가운데 실적 개선을 이끈 사업 책임자와 로보틱스, AI 데이터센터 등 미래 사업 인재를 발탁했다.

SK그룹은 일부 계열사 수장을 교체하면서도 곽노정 SK하이닉스 사장을 유임하는 등 핵심 사업의 경영 연속성을 유지했다. 에너지 사업 전문성을 강화하고 사업 포트폴리오 재편을 마무리하는 데 필요한 인사를 병행했다. 이에 따라 재계의 시선은 연말 인사 발표를 앞둔 현대차그룹으로 향하고 있다. 특히 올해 3분기까지 현대차와 기아의 실적이 상반된 흐름을 보이면서 그룹 차원의 경영 전략과 인사 방향에도 관심이 커지고 있다.

현대차는 올해 1~9월 글로벌 누적 판매량 288만6763대로 전년 동기 대비 7.0% 감소했다. 3분기에는 국내 공장 생산 차질과 파업 등의 영향으로 판매량이 92만710대에 그쳐 전년 동기보다 11.3% 줄었다. 3분기 매출은 45조1102억원으로 3.4% 감소했지만, 우호적인 환율과 하이브리드차(HEV) 중심의 판매 믹스 개선으로 영업이익은 2조6772억원을 기록해 5.5% 증가했다. 〈2면에 계속〉

/양성운 기자 ysw@



코스피가 3.31% 내린 4708.54로 거래를 마친 23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전광판에 코스피 등이 표시돼 있다. /뉴시스

'코스피 쇼크' 증안펀드로 겨우 막았다

코스피 3.31% 하락 4708.54 마감
중국·홍콩 보합권 대비 韓 낙폭 커
17만 전자·100닉스 무너지기 직전

코스피가 폭락하는 '블랙 먼데이(Black Monday)'는 일어나지 않았지만, 인공지능(AI) 버블 논란으로 '우울한 월요일(Gloomy Monday)'을 맞았다. "증권시장안정펀드(증안펀드)외에 추가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는 정부의 시장 개입 덕분이다. 다만, AI 관련주를 사기만 하면 돈을 벌던 시대가 저물고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2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3.31% 떨어진 4708.54에 거래를 마쳤다. 장중 한때 프로그램 매도호가 일시 효력정지(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지만 증안펀드 등 정부 대책 기대감에 하락폭은 제한됐다. 중국 상하이종합지수, 홍콩 항셍지수, 싱가포르 STI지수 등 보합권을 오르내린 아시아 증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한국 증시의 낙폭이 컸다. 일본 증시는 휴장했다.

국내 증시의 '투 톱'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각각 '17만 전자', '100만 닉스'가 무너지기 직전이다. 삼성전자는 3.06% 하락한 17만7500원에 마감했다. SK하이닉스는 2.52% 하락한 108만5000원에 마쳤다.

이날 코스피 폭락의 원인은 미국 증시의 'AI 버블 쇼크'가 직접적이다. 엔비디아의 회계 부정 의혹과 최고경영자(CEO) 교체,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 규제 강화 움직임, 데이터센터 건설에 대한 대중의 거센 반발, 앤트로픽 IPO 흥행 부진 등 여러 악재가 연이어 나오면서 'AI 거품론'이 재발됐고, 미국 반도체 주가가 줄줄이 급락했다. 미국 실리콘밸리는 엔비디아 사태로 첨단 기술 산업이 규제 강화 직격탄을 맞지는 않을지 우려하고 있다. 〈2면에 계속〉

/신하은 기자 godhe@

국정원장 후보 강금실, 외교장관 임웅순

李 대통령, 통일 장관에 홍익표
행안 한준호, 문체 강유정 지명


강금실 국정원장 후보자


임웅순 외교부 장관 후보자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국가정보원장과 외교·통일·행정안전·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했다. 외교안보라인 수장 3명을 한 번에 바꾼 것으로,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 새 리더십으로 대응해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취지다.

남북관계 개선을 중시하는 소위 '자주파'와 한미동맹을 외교안보 정책의 중심축으로 두는 '동맹파'를 대표해 온 통일·외교부 장관을 동시에 교체하며 노선 변화 논란을 피하고, 정책 기조는 유지하겠다는 메시지로 보인다.

이날 추가 개각에선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관리 부실논란으로 사퇴한 최교진 전 교육부 장관의 후임은 지명되지 않았다.

임광현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대통령은 오늘(23일) 대통령 직속 기관장인 국정원장 후보자와 국무위원인 외교부 장관, 통일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국정원장 후보자는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임웅순 국가안보실 제2차장,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행안부 장관 후보자는 한준호 민주당 의원, 문체부 장관 후보자는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다.

국정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강금실 전 장관(현 외교부 글로벌기후환경대사)는 1957년 제주 출신으로 경기여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사법연수원 13기로 서울고법 판사 등을 거쳐 참여정부에서 여성 최초 법무부 장관을 지냈고, 외교통상부 여성인권대사도 역임했다. 〈6면에 계속〉

/서예진 기자 syj@

은행연합회장 최종 후보에 박종복 낙점

회추위 12표 중 7표 '표심 집중'
26일 사원총회서 단독추천 의결



박종복 전 SC제일은행장(사진)이 차기 은행연합회장 후보로 최종 낙점됐다. 1차 투표에서 과반의 지지를 얻으며 결선 투표 없이 최종 후보로 결정됐다. 윤종규 전 KB금융지주 회장과 치열한 경쟁을 벌일 것이란 당초 예상과 달리 박 전 행장에게 표심이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30분 열린 은행연합회 제3차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에서 박 전 행장은 전체 12표 중 7표를 확보했다. 나머지 5표는 복수의 후보에게 분산됐다.

박 전 행장이 1차 투표에서 과반을 확보하면서 추가 투표는 진행되지 않았다. 회추위는 박 전 행장을 최종 후보로 선정했으며, 은행연합회 이사회는 오는 26일 열리는 사원총회에 제16대 은행연합회장 후보로 단독 추천하기로 의결했다.

이번 결과를 두고 금융권에서는 박 전 행장이 오랜 은행장 재임 기간 쌓아온 인적 네트워크가 주요하게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각에선 주요 협회의 KB금융 출신 인사 쏠림에 대한 견제가 작용했다는 해석도 있다. 올해 선임된 여신금융협회 이동철 회장과 화재보험협회 김기환 이사장이 KB 출신이다.

박 전 행장은 2015년부터 지난해 1월까지 약 10년간 SC제일은행을 이끌었다. 이 기간 은행연합회 이사회에 참여하며 주요 은행장들과 업계 현안을 논의해 왔다. 특히 지난해 초까지 현직 은행장으로 활동한 만큼 현재 회추위원들과의 접점이 상대적으로 많았다는 평가다. 〈3면에 계속〉

/나유리 기자 yul115@

메트로 한줄뉴스



▲한 총리, 28일 '청년미래콘서트' 참석…취업·창업준비 청년과 소통 /사진 뉴시스

▲이 대통령, 입대 장병에게 "국가의 부름 응해줘 깊은 감사…지원 아끼지 않을 것"

▲국힘, 광역·기초단체장 평가 여론조사에 당심 50% 반영

▲김민석, '신천지 발언' 박선원에 구두 경고… "당 단합 해치는 언행 엄정 대응"

▲민주당 "조희대 탄핵, 늦어도 너무 늦어"…이르면 이번주 소추안 작성 완료

▲경찰, 김병기 수사 이달 마무리…한동훈 자녀 의혹 일부 공수처 이첩

여당·경제계, 소통 한 목소리… 정년 등 현안 합의는 '빈손'

더불어민주당·경제6단체 간담회
초광역특구법 등 핵심 법안 논의
한병도 "공식·비공식 소통 지속"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6단체 부회장 간담회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전은수 민주당 원내대변인, 이인호 한국무역협회,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 한 원내대표, 김한규 원내정책수석, 김정일 대한상공회의소, 오기웅 중소기업중앙회, 김현철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 /뉴시스

경제6단체 상근부회장들이 23일 국회를 찾아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게 초광역특구법과 정년연장 입법 등 기업 경영 환경을 좌우하는 핵심 법안 처리 과정에서 경제계와 소통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과 경제6단체는 앞으로 논의할 여러 사안이 많은 만큼, 집권여당과 경제계가 만나는 기회를 계속 만들고 소통을 이어나가겠다는 데 입장을 같이 했지만 경영계 현안에 대해 합의를 이룬 것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6단체(한국경제인협회·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의 간담회에서 집권여당이 현장과 끊임없는 소통으로 필요한 입법과 정책을 챙기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엔 김한규 민주당 원내수석, 전은수 원내대변인과 김창범 한경협·이동근 경총·김정일 대한상의·이인호 무협·오기웅 중기중앙회·김현철 중견련 상근부회장 등 경제6단체 중역들이 참석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지난주 우리 경제는 역사적인 이정표를 세웠다. 전 세계에서 단 세 나라, 미국, 독일, 중국 밖에 가보지 못한 수출 1조 달러란 대기록을 달성한 것"이라며 "불과 70여 년 전 전쟁의 폐해와 극심한 가난을 딛고 대한민국은 세계 무역의 한 축을 책임지는 명실상부한 수출 강국으로 우뚝 섰다"고 말했다.

이어 "미래 경제 성과를 국민께서 체감하실 수 있도록 삶의 현장과 골목골목으로 확산시키는 한편,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미래 성장 동력을 착실히 키워 나가야 할 때"라며 "오늘 간담회가 우리 경제 대도약을 위한 과제와 해법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김창범 한경협 상근부회장은 "최근 관세, AI(인공지능) 등에 따른 통상 산업 정책의 변화, 장기화된 중동 정세 불안, 글로벌 고금리 기조 등 경제에 대외불확실성이 그늘을 짙게 드리우고 있다"며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법안들도 있지만, 발의안 통과에 부작용이 우려되는 법안도 있다. 이 자리를 통해서 기업들의 의견을 소통을 통해서 나누고 국회와 함께 미래를 만드는 그런 장이 됐으면 한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서 나눈 구체적인 의제는 공개되지 않았다. 경제계는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를 뒷받침하는 초광역특구법에 주52시간 근로제 면제와 기간제 노동자 규제 완화 등 '노동 특례'가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정년연장도 법적 정년을 65세로 의무화하지 말고 퇴직 후 재고용 등 기업의 자율성을 보장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전은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한병도 원내대표는 경제6단체에게 소통 창구에서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소통해달라고 하셨고, 국회 논의 내용을 공유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또한 민주당과 경제6단체는 이번 간담회와 같은 소통의 장을 만들어 만남을 지속하기로 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K-조선, 원자력 추진선 상용화 속도

개념설계 획득·항로 실증 추진
경제성 검증·규제 정비 등 과제


HD한국조선해양이 공개한 1만5000 TEU급 SMR 추진 컨테이너선의 조감도. /HD현대

국내 조선업계가 원자력 추진선의 개념설계 기본승인 획득과 실증 프로젝트 추진 등 기술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도 2035년 선박 건조 착수를 목표로 기술개발 로드맵을 구체화하고 있지만 상용화까지는 기술 검증과 경제성 확보, 안전규제·인허가 체계 정비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중공업은 지난 19일 미국 테서 아토믹스와 원자력 추진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실증을 위한 독점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양사는 선박 설계·건조와 원자로 기술·인허가를 각각 맡아 소형 불화물염 냉각 고온원자로(FHR) '트리톤'을 탑재한 LNG선을 개발하고 대서양 상업 항로 투입을 추진한다.

삼성중공업은 지난 7월에도 한국원자력연구원·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와 공동 개발한 1만5000TEU급 원자력 추진 컨테이너선 개념설계로 미국선급(ABS) 기본승인(AiP)을 받았다. 해당 선박에는 해양용 용융염원자로(MSR) 'MARINA' 2기가 적용됐다.

HD현대중공업·HD한국조선해양도 지난 6월 한국원자력연구원 등과 공동 개발한 MSR 기반 자동차운반선 개념설계로 영국 로이드선급(LR) 기본승인을 받았다. 한화오션은 한국전력기술이 기본설계 중인 해양용 소형모듈원자로(SMR) '반디'의 선박 적용 및 사업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정부 차원의 기술개발도 추진되고 있다. 정부는 인공지능(AI) 기반 과학기술 혁신 프로젝트 'K-문샷'의 12대 미션에 '용융염원자로 기반 SMR 선박 개발'을 선정해 해양 모빌리티 에너지 플랫폼 구축에 나섰다.

한국원자력연구원 김치형 박사가 지난달 산업교육연구소 세미나에서 공개한 'SMR 선박 미션 이행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029년까지 주요 기기 국산 제작·성능 검증과 해양 테스트베드 구축을 추진한다. 2032년 해양용 MSR 임계실험·종합효과시험을 거쳐 2035년 원자력 추진선 건조에 착수하고 전주기 개발체계를 완성한다는 구상이다.

다만 상용화를 위해서는 경제성 검증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선사와 조선사가 기존 선박의 탄소배출 관련 비용과 원자력 추진선 도입 비용을 비교해 사업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건조·운영 비용과 운용 요건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령·규제 정비도 과제다. 현행 원자력안전법은 발전·연구·교육용 원자로를 중심으로 규정돼 상업용 선박 추진 원자로에 대한 별도 허가 기준이 없다. 선박의 이동 특성을 고려한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설정과 사고 대응체계 마련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원자력 설비는 선박안전법상 선박시설에 포함돼 있어 해양수산부의 선박 검사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안전규제 간 역할 조율도 요구된다. 정부는 산·학·연·관이 참여하는 'SMR 선박 미션 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기술개발과 제도·산업 인프라 구축을 병행할 계획이다.

김치형 박사는 "기술개발 완료 시점에 맞춰 조선소의 핵연료 취급부터 사고 책임, 항만 입출항까지 실제 운항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이 완비돼야 한다"고 말했다.

/유혜온 기자 dhaledhale@

최태원 회장, 재산분할 소송 화해권고 신청

분쟁 종결 가능성… 경영부담 완화 기대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재산분할 소송 재상고심에서 법원에 화해권고 결정을 요청했다.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는 동시에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한 분쟁 종결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최 회장 측은 재산분할 재상고심을 심리 중인 대법원 재판부에 화해권고를 신청했다. 화해권고는 법원이 소송 당사자에게 합의를 권유하는 절차로, 양측이 이를 받아들이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발생한다.

이번 신청은 재산분할 규모를 둘러싼 법적 다툼이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나온 조치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앞서 서울고법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최 회장 측은 대법원에 재상고하면서도 9440억원 가운데 7000억원은 수용하고 나머지 2440억원에 대해서만 법리적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원을 지급하라"고 지난 7월 판결했다. 재판부는 2조원 상당의 SK주식을 포함한 2조9000억원을 분할 대상 재산이라고 보고, 분할 비율을 최 회장 66.6%대 노 관장 33.3%로 정했다. 최 회장 측은 파기환송심의 재산 분할 등에 불복해 재상고했다.

이번 화해권고 신청은 재상고심에서 법적 판단을 구하는 한편 합의를 통한 분쟁 종결 가능성도 열어둔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재산분할 규모와 지급 방식 등을 둘러싼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경영 측면의 부담 완화에도 관심이 쏠린다.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대법원의 재상고심 판단을 통해 최종 결론이 내려질 전망이다.

/양성운 기자

증시 불안감 고조… 정부 "비상계획 있다"

›› 1면 '코스피 쇼크, 증안펀드'서 계속

여기에 전월 대비 0.4%(10월) 오른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로 금리 인상 가능성이 거론되는 게 악재가 됐다.

문제는 악재가 아직 남아 있다는 점이다. 그간 글로벌 증시에 대해 장밋빛 전망만을 내놓던 투자은행(IB)과 증권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제임스 매킨토시 WSJ 칼럼니스트는 'AI 거품은 이미 터졌는가'라는 칼럼에서 "데이터센터 관련 종목의 미니 거품이 터졌다는 것만 확실하다"며 더 큰 AI 거품에서 바람이 빠지는 중인지는 알 수 없지만 "섬뜩할 만큼 그럴듯하다"고 했다. 뱅상 모르티에 아문디 최고투자책임자(CIO)는 "거품은 터지고 나서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비대해진 '빚투'(빚내서 투자) 규모가 개미들의 손실과 연쇄 주가 급락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진단도 있다. 신용융자 잔고는 지난 20일 기준 25조9579억원으로 집계된다. 주가가 하락할 경우, 담보 부족에 따른 반대매매가 연쇄 청산을 촉발할 수 있다. 이달 들어 누적된 반대매매 규모만 2396억원에 이른다.

한편 이날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증시 변동성과 관련해 "(증안펀드 가동 준비 외) 추가 대책은 기 마련된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이 있다"고 밝혔다. 증안펀드 규모 확대 가능성도 열어뒀다. 아울러 정부는 상장기업이 하루에 매수할 수 있는 자기주식 한도를 24일부터 내년 2월 23일까지 3개월간 확대키로 했다.

/신하은 기자 godhe@

글로벌 불확실성 영향… 성과 중심 재정비

›› 1면 '재계, 인사 키워드 안정'서 계속

반면 기아는 성장세를 이어갔다. 기아의 1~9월 누적 글로벌 판매량은 247만 8144대로 전년 동기 대비 4.4% 증가했다. 3분기 판매량도 84만7355대로 7.9% 늘었으며 매출 31조5974억원, 영업이익 1조 8183억원으로 각각 10.1%, 24.3% 증가했다. 현대차와 기아가 엇갈린 실적을 기록한 만큼 양사의 수익성 방어와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영진의 역할이 중요해진 상황이다.

관심사는 호세 무뇨스 현대차 대표이사 사장의 유임 여부와 6년째 기아를 이끌고 있는 송호성 사장의 거취다. 소프트웨어 중심차량(SDV)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출범한 첨단차플랫폼(AVP)본부의 조직 개편 여부도 주요 관전 포인트다. 자율주행과 소프트웨어뿐 아니라 로보틱스 등으로 미래 사업 영역이 확대되는 만큼 관련 조직의 역할과 책임을 재정비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재계 관계자는 "글로벌 경영환경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조직을 크게 흔들기보다 기존 경영진을 중심으로 사업 경쟁력을 유지하는 분위기다"며 "현대차그룹 역시 대대적인 인적 쇄신보다는 성과와 미래 사업 경쟁력을 고려한 안정적인 인사에 무게를 둘 것이라는 분위기가 강하다"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묻지마 AI 투자’ 3년 호황 끝?… 실적 성장에도 의구심 확산

반도체주 급락 ‘AI 버블’ 논란

뜨겁게 불타오르던 글로벌 증시가 인공지능(AI) 버블 논란에 휩싸였다. AI 투자 열풍을 이끌었던 반도체주가 급락하며 미국과 아시아 증시를 흔들고 있다. AI 투자 수익성에 대한 의구심과 미국 정부의 규제 이슈에 젠슨 황 엔비디아 전 최고경영자(CEO) 스캔들과 회계부정 의혹이 겹치면서다. “지난 3년간 이어진 ‘묻지마 AI 투자(No-Brainer AI Trade)’ 시대가 끝났다”(월스트리트저널·WSJ)·“AI 거품 붕괴의 예행연습(dress rehearsal)”(파이낸셜타임스·FT)이란 진단까지 나온다. 닷컴 버블의 기억을 떠오르게 하는 현재 AI 붐이 과연 지속 가능한 기술 혁명인지, 곧 터질 거품에 불과한지 논쟁이 격렬하다. 전문가들은 한국과 미국 등 글로벌 증시가 변동성 구간에 있는 만큼 보수적인 대응을 주문한다.



ChatGPT로 생성한 이미지. 코스피가 급락하며 국내 증시의 변동성이 커진 가운데 반도체주 부진과 수급 공백으로 증시 반등에 대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

◆“닷컴 버블보다 심각 곧 터진다”vs “버블은 과장”

닷컴 버블은 1990년대 후반 인터넷과 통신 기업 광풍이 불었던 때다. AI 시대에는 M7이 주가 상승을 주도한다면, 당시에는 포 호스맨(Four Horsemen, 시스코·델·마이크로소프트·인텔)이 이끌었다. 2000년 3월 정점을 찍은 나스닥은 1년간 65% 폭락했다. 시가총액 1위 시스코는 주가가 90% 폭락했다.

AI 버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지금이 닷컴 버블 때와 유사하다고 본다. 미 증시에 기술 산업이 과도하게 집중됐다는 것이다. 현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시가총액 30% 이상이 기술 부문인데, 2000년 3월(33%)과 맞먹는 수준이다. 스타트업 업계에서는 “2000년 ‘닷컴(.com)’이 투자 유치의 만능키였다면 지금은 AI라는 단어가 없으면 투자받기 쉽지 않아 별것 아니더라도 AI라고 붙인다”는 말까지 나온다. 피치북에 따르면 전 세계 벤처캐피털 투자 절반가량이 AI 스타트업에 집중됐다.

대표적인 거품론자인 마이클 버리 사이언자산운용 대표는 지난 19일(현지시간) 엑스(X)에 “코어위브, 네비우스, 엔비디아, 반도체에 대해 경고하려 했다. 공매도하라고 하진 않았지만 팔 수 있는 정보는 다 줬다”고 썼다. 올해 상반기 반도체주 급등장에서 조롱받던 그의 경고가 반년 만에 현실이 된 것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사이언자산운용은 9월 말 기준 팔란티어에 9억1200만 달러(약 1조 3200억원) 상당의 풋옵션과 엔비디아에 약 1억8700만달러 규모의 풋옵션을 행사했다고 공시했다.

기술주 쏠림, 닷컴 버블 당시와 닮아
글로벌 벤처투자 절반가량 AI 집중
엔비디아 실적 성장에 낙관론도 맞서
거품 우려 속 투자 지속성 논쟁 가열

사상 최대 규모인 앤트로픽의 기업공개(IPO)도 시장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며 AI 투자 열기가 식고 있다는 또 하나의 증거가 됐다고 지적했다. 미국 대형 은행인 웰스파고도 보고서에서 AI 산업 전반의 기업 가치가 재평가될 위험을 경고했다. 사미르 사마나 웰스파고 글로벌 주식 및 실물자산 부문 책임자는 “높은 금리, 고유가, 경기 악화 조짐, 강화되는 AI 규제 등이 재평가를 촉발할 수 있다”며 “앤트로픽의 초대형 IPO에 대한 시장 반응이 AI 산업이 재평가 국면에 진입했을 수 있다는 판단을 뒷받침한다”고 말했다.

AI 버블론에 반대하는 쪽 주장의 핵심은 ‘수익’이다. 현재 AI는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산업 패러다임을 바꾸는 근본적인 기술 혁신이고 실제로 돈을 벌어다 준다는 점에서 ‘아이디어’ ‘약속’만 무성했던 닷컴 버블과 다르다고 주장한다. 엔비디아는 3분기(8~10월)에 1158억4400만달러의 매출을 올렸다. 내년 매출 성장률 전망도 70%에서 75%로 높였다.

AI 업계 분석가인 딜런 파텔 세미애널리시스 대표는 시장이 흔들리는 상황에서도 앤트로픽과 오픈AI의 매출이 내년 말까지 5000억달러를 넘길 것으로 내다봤다. 파텔 대표는 두 회사의 지속적인 매출 성장 속도에 대한 투자자들의 회의적인 시각이 시장 혼란의 큰 원인 중 하나라고 짚었다. 벤처 투자자들도 앤트로픽의 불안정한 상장 과정을 지켜보면서도 낙관적 전망을 유지했다. 헤만트 타네자 제너럴 캐털리스트 CEO는 “격동적인” 시장 상황에도 앤트로픽의 주가가 공모가 이상을 유지한 데 안도감을 나타냈다.

◆‘AI 투자’발 빼야vs 지금이 가장 쌀 때

직장인 박모(35)씨는 올해 상반기부터 미국 AI 및 반도체주를 조금씩 사들였다. 예금을 깨고 신용대출로 마련한 돈은 1억 2000만원. 이달 급락장을 거치며 누적 평가손실이 50%를 넘어섰다. 박씨는 “추가 매수(물타기)를 하고 싶어도 실탄이 없다”며 “그래도 나스닥은 버틸 것이란 믿음을 갖고 있지만, 내년 6월 대출 만기까지 어떻게 버틸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박씨와 같은 개미들은 고민이다. AI거품 논란에 물타기를 해야 할지 지금이라도 발을 빼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아서다.

실제 급락장에서도 ‘서학개미’의 AI 관련주 매수세는 이어지고 있다. 한국예탁결제원 세이브로에 따르면 이달 들어(2~20일) 국내 투자자의 해외주식 순매수 상위 5개 종목은 모두 AI 관련 기업이거나 AI 대형주를 편입한 상장지수펀드(ETF)였다. 종목 중 엔비디아 순매수액은 6억 9353만달러로 1위였다. 상품 중에서는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의 하루 수익률을 3배로 추종하는 ‘디렉시온 데일리 세미컨덕터 불 3X 셰어즈’(SOXL·23억193만달러)이 순매수 1위다.

국민연금의 AI 쏠림도 뚜렷하다. 국민연금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보고서를 보면 3분기 말 기준 미국 주식 포트폴리오에서 엔비디아 비중은 7.34%로 가장 높았다. 애플·알파벳·마이크로소프트·아마존·메타·브로드컴을 포함한 상위 7개 기술기업의 비중은 31.74%에 달했다.

급락에도 서학개미 AI주 순매수
골드만삭스, 美 증시 저가 매수 진단
반도체 실적 둔화에 하락 경고도
코스피 전망 하향에도 낙관론 여전

미국의 연기금도 예외가 아니다. 미국 연금 연구기관 이퀘이블인스티튜트에 따르면 조사 대상 미국 대형 공적연기금이 보유한 상장주식 중 AI 관련 52개 기업의 비중은 올해 6월 기준 38.5%로, 2010년 초(20.7%)보다 두 배 가까이 커졌다. 전체 연금 자산의 9~11%에 해당한다.

미 증시를 바라보는 시선은 갈린다. 23일(현지시간) 블룸버그에 따르면 골드만삭스의 트레이딩 데스크는 지난주 미국 주식의 급락으로 저가 매수할 매력적인 기회가 생겼다고 진단했다. 트레이딩 데스크는 고객들에게 보낸 메모에서 헤지펀드의 주식 포지션 축소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로 시장이 단기 매수 진입 시점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미국 월가의 대표 전략가 에드 야데니 야데니리서치 대표 겸 최고투자책임자(CIO)가 최근 증시 매도세 속에 연말 S&P500 지수 전망치를 기존 7900에서 7500으로 낮췄다. 지난 9월 8400에서 목표치를 내린 이후 약 두 달 만의 재조정이다. 지난 20일 종가(6910.39)에 비하면 8% 가량 높다. 야데니 대표는 보고서에서 “(미 정부의) 수출 통제가 강화되면 반도체 수요가 감소하고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며 “그렇게 되면 업계의 가치평가 배수 하락에 이어 실적 성장 둔화나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한국 증시를 바라보는 시선도 낙관적이지만은 않다. 버리의 ‘제자’로 통하는 필 클리프턴은 최근 한국 증시의 저평가 종목이 ‘가치 함정(value trap)’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골드만삭스는 최근 향후 12개월 코스피 목표치를 기존 1만2000에서 9000으로 25% 하향 조정했다. 대신증권과 DB증권은 올해 4분기 코스피 예상 범위를 각각 5200~6700, 5000~7300으로 낮춰 잡았다. 지난 6월 두 증권사가 제시했던 연내 상단은 각각 1만1500, 1만1700이었다. 상반기 코스피가 8000, 9000선을 연달아 넘으며 질주할 때는 ‘1만피’를 예고했다가, 주가가 급락하자 눈높이를 낮추는 모습이다. 노동길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최근 반도체 업황이 악화하면서 현재의 기업 이익 전망이 유지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커지는 데 더해 시장이 장부가치에 적용하는 할인 폭까지 확대되면 하단이 4500선까지 내려갈 수 있다”고 밝혔다. 키움증권도 워스트 시나리오에서 코스피 지수를 4200에서 4300선까지 열어뒀으며, KB증권은 과거 급락장의 밸류에이션을 적용해 4058선을 제시했다.

여전히 낙관론을 유지하는 곳도 있다. 노무라는 코스피 중장기 목표치 1만을 유지하면서 향후 3개월 예상 범위로 7500~8000을 제시했다. 모건스탠리도 지난 11일 발간한 ‘한국 르네상스가 온다’ 보고서에서 향후 3~5년 안에 코스피가 1만선을 넘어 지속적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국민연금 주식 평가액 42조 급감… 반도체 쏠림 위험 부각

국내 274개 상장사 평가액 291조1760억
삼전닉스가 평가액 감소분 절반 차지
반도체 비중 50% 넘어… 분산투자 지적

반도체 대형주 급락세가 멈추지 않으면서 국민연금이 보유한 국내 상장사 주식 가치가 한 달여 만에 또다시 큰 폭으로 쪼그라들었다.

23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민연금이 지분 5% 이상을 보유한 것으로 공시된 상장사 274개의 주식 평가액은 지난 20일 종가 기준 291조 1760억원으로 집계됐다.

10월 15일 집계치(333조5330억원)와 단순 비교하면 42조3570억원(12.7%) 줄었다. 6월 말(515조9293억원)과 비교하면 약 140일 새 224조7533억원, 비율로는 43.6%가 사라졌다.

감소분의 대부분은 이번에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서 나왔다. 10월 15일 이후 삼성전자 주가는 21만원에서 18만3100원으로 12.8%, SK하이닉스는 126만2000원에서 111만3000원으로 11.8% 내렸다. 이 기간 두 종목 평가액은 각각 12조3374억원, 7조9681억원 줄었다. 6월 말과 비교하면 감소액은 삼성전자 69조2084억원, SK하이닉스 82조1943억원으로, 두 종목이 전체 감소분의 67.4%를 차지했다.



국민연금이 보유한 국내 상장사 주식 평가액이 6월 말 이후 43.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서울의 한 국민연금공단 지사. /뉴시스

20일 하루 충격이 특히 컸다. 미국 반도체주 약세에 삼성전자와 대만 TSMC가 중국 고객사에 일부 칩 출하를 중단했다는 외신 보도가 겹치면서 삼성전자는 7.01%, SK하이닉스는 5.92% 급락했다. 코스피도 5.21% 떨어진 4869.96에 마감해 3거래일 만에 5000선 아래로 밀렸다.

반도체 쏠림은 여전하다. 20일 기준 삼성전자(83조9766억원)와 SK하이닉스(59조5200억원) 평가액을 합하면 143조4966억원으로 전체의 49.3%에 달한다. SK스퀘어 등을 포함한 반도체 및 관련장비 업종으로 넓히면 153조5625억원으로 비중이 52.7%까지 올라간다. 그다음은 상업은행(15조6342억원), 전자 장비 및 기기(14조5188억원) 순이었다.

다만 이번 수치는 지분 5% 이상 공시 종목의 지분 가치를 시가로 환산한 것으로, 주식을 팔아 확정한 손실은 아니다. 5% 미만 보유 종목과 해외주식·채권·대체투자 등이 빠져 있어 기금 전체의 운용 성과와도 차이가 있다.

시장의 관심은 12월 기금운용위원회로 쏠린다. 올해 국내주식 목표 비중은 20.8%였지만 실제 비중은 6월 말 29.1%까지 높아졌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반도체는 글로벌 경기와 미국 통상정책, 중국의 기술 추격, 반도체 가격 변동에 따라 주가 변동성이 매우 크다”며 “국민의 노후자금을 운용하는 만큼 특정 산업 쏠림을 줄이고 금융·자동차·바이오·조선·방산 등으로 투자를 분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 주식 투자를 무조건 줄이자는 게 아니라 국내 시장과 특정 산업에 대한 과도한 집중 위험을 낮추자는 것”이라며 “단기적인 코스피 지수 관리보다 장기 수익률과 안정성을 중심으로 운용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아영 기자 aykim@

›› 1면 ‘은행연합회장… ’서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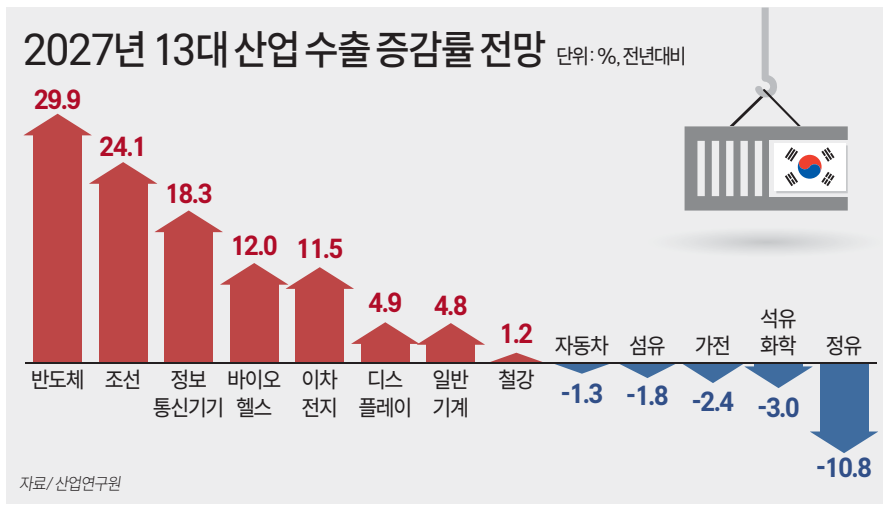
은행권 교류 경험 강점

회추위는 조용병 은행연합회장과 11개 회원은행 최고경영자(CEO) 등 총 12명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박 전 행장과 은행장 재임 기간이 겹치는 인사는 조 회장을 포함해 8명이다. 정상혁 신한은행장과 최우형 케이뱅크 행장, 신학기 수협은행장 등이 박 전 행장과 같은 시기 은행장으로 재직했다. 이환주 KB국민은행장과 이호성 하나은행장, 정진완 우리은행장, 강태영 NH농협은행장은 박 전 행장이 퇴임하기 직전 취임했다. 이광희 SC제일은행장은 박 전 행장의 후임이다. 금융권에서는 이러한 교류 경험이 은행권의 이해관계를 조율해야 하는 은행연합회장 선출 과정에서 강점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은행연합회장이 금융당국과 업계 사이에서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 만큼 현직 은행장들과의 관계가 중요한 평가 요소가 됐을 수 있다는 것이다. 박 전 행장은 오는 26일 사원총회에서 회원사들의 의결을 거쳐 차기 은행연합회장으로 최종 선임될 예정이다.

/나유리 기자 yul115@

내년 13대 주력산업 수출 1.1조弗 전망… '반도체 쏠림' 뚜렷

산업연구원 '내년 경제·산업 전망'
실질 국내총생산 성장률 3.5% 예상
상반기 고성장·하반기 소폭감소 흐름



자료/ 산업연구원

내년 국내 13대 주력산업의 수출만으로도 1조 달러를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인공지능(AI) 인프라 투자 확산에 따른 반도체·정보통신기기 수요와 첨단 설비투자가 맞물려 내년 한국 경제가 3.5% 성장할 것이란 관측이다. 다만 수출 증가의 상당 부분을 반도체가 차지하는 쏠림 현상이 심화하는 데다, 자동차와 석유화학 등 전통 주력산업의 회복세와 내수 반등은 더뎌 산업 간 격차가 뚜렷해질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2027년 경제·산업 전망'에 따르면 내년 13대 주력산업 수출액은 1조 1473억 달러로 올해 전망치보다 17.8%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13대 주력산업 수출 규모만 연간 1조 달러를 돌파한다는 전망은 이번이 처음이다.

거시경제 측면에서도 수출과 투자가 성장을 떠받치면서 내년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3.5%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올해 전망치(3.7%)보다 소폭 낮아졌지만 잠재성장률을 웃도는 수준이다. 통관 기준 전체 수출은 올해보다 14.1% 늘어난 1조 3202억 달러, 수입은 11.0% 증가한 8643억 달러로 예측됐고, 무역수지 흑자는 올해(3778억 달러)를 넘어선 4559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봤다.

설비투자는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고부가 메모리 생산능력 확충과 '3대 메가 프로젝트' 본격화에 힘입어 전년 대비 7.0%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장기간 부진했던 건설투자 역시 비주거용 건축 수요와 공공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확대 등에 힘입어 1.8% 증가세로 돌아설 전망이다.

반면 내수의 한 축인 민간소비는 2.3% 증가에 그쳐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됐다. 홍성욱 산업경제데이터분석실 선임연구위원은 "소비와 건설의 회복 속도가 완만하고 비ICT 업종에서 속도 격차가 발생할 것으로 본다"며 "자산시장 변동성 역시 내년 민간소비와 실질구매력 개선에 제약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13대 주력산업 수출은 상반기 고성장(+43.4%) 뒤 하반기 기저효과 등으로 소폭 감소(-0.5%)하는 '상고하저' 흐름을 보일 전망이다. 특히 전체 수출에서 반도체 쏠림이 커지면서 반도체를 제외한 총 수출 증가율은 올해 수정치 19.7%에서 내년 1.5%로 낮아질 것으로 분석됐다. 반도체 수출 역시 상반기에는 AI 수요 호조세가 이어지겠으나 하반기부터 글로벌 공장 가동 본격화에 따른 공급 확대와 메모리 가격 조정 압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됐다. 산업연구원은 내년 반도체 수출이 29.9% 늘며 성장세를 이어가겠지만 증가 폭은 올해보다 줄어들 것으로 보면서도 6000억 달러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13대 주력산업 내부에서는 희비가 엇갈린다. IT·신산업군 수출은 26.6%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반도체(29.9%)를 비롯해 정보통신기기(18.3%), 바이오헬스(12.0%), 이차전지(11.5%), 디스플레이(4.9%) 등이 플러스 성장을 기록하는 반면 가전은 2.4%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기계산업군 수출 증가율은 5.3%로 전망됐다. 조선은 고선가 수주 선박 인도 확대에 힘입어 24.1%, 일반기계는 미국 제조업 투자와 중국의 설비 교체 수요로 4.8% 늘어나지만, 자동차는 해외 현지 생산 확대와 중국 업체와의 경쟁 심화 등으로 1.3% 감소할 것으로 관측됐다. 소재산업군은 5.8% 감소가 예상되며 정유(-10.8%), 석유화학(-3.0%), 섬유(-1.8%)가 줄고 철강(1.2%)은 소폭 증가할 전망이다.

황경인 전략산업분석실 연구위원은 "자동차는 전동화와 중국의 부상으로 글로벌·내수 시장 모두 영향을 받고 있고, 석유화학은 중국발 공급 과잉과 대산·여수 산단 등 자율적 구조조정 물량 축소 영향이 겹친다"며 "선도 부문인 메모리 반도체 등은 초격차를 유지하고 전통 주력산업은 고부가 제품 확대 등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남훈 산업연구원장은 "2027년에는 반도체 주도의 강력한 성장세가 지속되며 3.5% 성장이 예상되지만, AI의 역할을 비롯해 구조적 불안요인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며 "AI 관련 산업을 제외한 자동차, 철강 등 다른 주요 산업들이 갖고 있는 구조적 위험요인이 상존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반도체 호황 이후를 대비하면서 AI의 경제 사회적 충격 확산에 대응할 필요가 있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서비스 임의 변경·중단 금지" 은행 불공정약관 시정요청

공정위, 은행·저축은행 약관 심사
금융위에 73개 조항 시정 요청

공정거래위원회가 은행과 상호저축은행이 사용하는 약관 중 금융거래 고객의 권익을 침해할 소지가 큰 불공정 조항 73개에 대해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

공정위는 23일 지난해 제·개정된 은행 약관 1034개와 저축은행 약관 516개 등 총 1550개 약관을 심사한 결과, 17개 유형에 해당하는 73개 조항의 시정을 금융위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분야별로는 은행 약관 65개 조항(12개 유형), 저축은행 약관 8개 조항(5개 유형)이 대상이다.

이번 조치는 공정위가 심사 중인 전체 4375개 금융약관 가운데 심사가 먼저 마무리된 은행·저축은행 분야부터 우선 시정요청에 나선 것이다.

공정위는 은행이나 저축은행이 추상적·포괄적 사유를 들어 서비스를 임의로 변경·중단·제한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대표적 불공정 사례로 꼽았다. '은행의 제반 사정으로 서비스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나 '모바일 앱을 통해 안내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 '기술적·운영적·경영적 필요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였을 때' 서비스 제공을 중단·제한하거나 종료할 수 있도록 한 약관이 포함됐다.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핵심인 급부 내용을 일방적으로 정할 수 있게 한 조항도 시정 대상에 올랐다. 개별 약관이나 운영정책이 기존 약관에 우선해 적용되도록 하거나, 구체적인 부과 대상과 기준 없이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규정한 조항 등이 해당된다.

계약 해지 관련 조항에서도 사업자 측 해지권은 넓히고 고객의 해지권은 제한한 사례가 지적됐다. '은행의 신용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처럼 추상적 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한 조항과 달리, 비대면 가입·이용이 가능하면서도 적금이나 서비스 해지는 영업점 방문·서면 제출만 허용한 조항이 불공정하다고 판단됐다.

아울러 보안·전산시스템 관리상 귀책사유나 부정 사용 가능성을 배제한 채 책임을 고객에게 돌리거나, '어떤 경우에도' 특별손해·간접손해 등에 대한 배상책임을 면제한 조항도 시정요청 대상에 포함됐다. 서비스 변경·중단이나 6개월 이상 미이체로 인한 자동이체 해지 사실 등을 개별 통지하지 않거나 고객 확인 책임으로 넘긴 조항 역시 시정 대상이다.

이 밖에 본점 소재지 관할법원 지정, 주채무 흠결 시 보증인의 동일 채무 부담, 이중양도·(가)압류 시 직접 대금 지급 요구, 자의적 기한이익 상실, 명의 위·변조 도용 인지 중과실 기준 책임 제한, 법령상 융자 제한 시 일체 이의제기 금지 등 기타 유형도 함께 걸러졌다.

/세종=한용수 기자

우리 마음속 첫번째 금융

우리금융그룹

해외결제, 삼성월렛 머니로

우리둘이

삼성월렛머니는 우리은행으로 충전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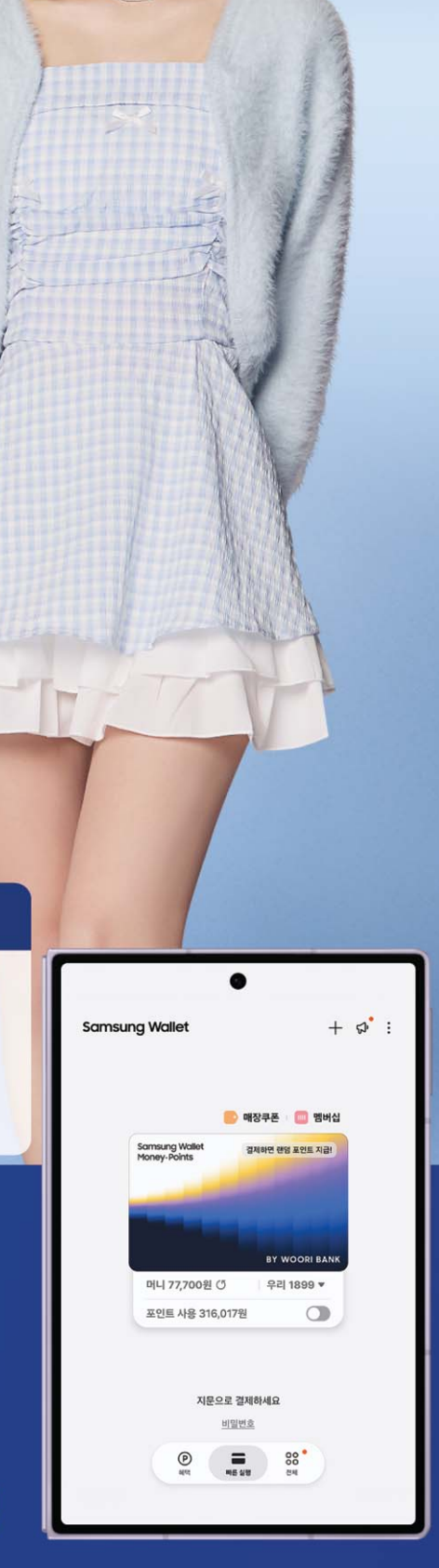
이제 해외여행도 더 쉽고 당당하게 해 우리 삼성월렛 머니

간편하게 해

환전 없이 원화로 충전, 해외에서도 국내처럼 결제

혜택은 더해

결제 수수료 면제는 물론, 최대 5% 추가 적립까지



홍보영상 바로 가기

우리은행

[삼성월렛 머니 안내]
- 삼성월렛 머니는 삼성 월렛 앱에서 본인명의의 계좌를 연결·충전하여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선불형 결제 수단입니다.
- 주사용계좌 설정 방법 : 삼성 월렛APP > 전체 > 내 지갑 > 머니·포인트 > 연결된 계좌 > 주계좌로 설정
- 삼성월렛 머니는 본인 명의 계좌의 연결을 통해 충전할 수 있습니다.
- 최소 충전금액은 2만원이며(미성년의 경우 1만원), 결제금액이 부족할 경우 1만원 단위로 자동충전됩니다.
- 적립 기준 및 시점 : 적립 포인트는 우리은행 내부 전산(KST) 기준 결제 완료 시점에 즉시 적립됩니다.
- 결제 취소, 환불 시 적립된 포인트는 회수됩니다.
- 결제 취소 시 취소 처리완료 시점에 포인트 적립 가능 한도가 복원됩니다.
- 적립된 포인트는 현금으로 환급되거나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유효기간 (마지막 적립일 또는 사용일로부터 3년) 내 사용하지 않을 경우 자동 소멸됩니다.
- 삼성월렛 머니 서비스 및 우리은행 이벤트 관련 문의사항은 우리은행 삼성 월렛 고객센터 (☎1544-8484, 안내시간 : 평일(09~18시), 주말 및 공휴일 제외)로 문의 바랍니다.
- 포스터 內 QR코드는 삼성월렛 머니 해외결제 관련된 내용의 홍보영상으로 연결되며 아래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결제 유의사항]
- 해외결제 이용 전 서비스 가입 및 해외결제 동의가 필요합니다.
- Mastercard 해외 비접촉 결제는 해당 방식을 지원하는 가맹점 및 단말기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삼성월렛 머니 QR결제는 중국 Weixin Pay(위챗페이) QR결제 지원 가맹점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가맹점별로 지원 결제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삼성월렛 머니 해외결제의 해외결제수수료·국제브랜드수수료·연회비는 0원이며, 결제 시 적용 환율에 따라 원화 환산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외 가맹점에서 원화(KRW)로 결제 시 가맹점이 부과하는 별도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며, 결제 취소 시 취소 시점 환율에 따라 환불 원화금액이 결제 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해외결제 프로모션 기간은 '26.10.26.~26.12.31.'이며, Mastercard·Weixin Pay(위챗페이) 가맹점에서 삼성월렛 머니 주사용 계좌 등록 후 결제 시 2.5% 적립됩니다(건당 최대 5,000P·1인 최대 15,000P).
- 우리은행 계좌를 주사용 계좌로 등록하고 해외결제 시 2.5% 추가 적립됩니다(건당 최대 5,000P·1인 최대 15,000P).
- 두 프로모션 합산 최대 5%(건당 최대 10,000P·1인 최대 30,000P) 적립 가능합니다.
- 영상에 표시된 해외결제 기본 적립 0.3%는 프로모션 최대 5%와 별도로 제공됩니다.
- 삼성월렛 포인트 사용금액은 적립 대상에서 제외되며, 결제 취소·환불 시 해당 거래의 적립 포인트는 회수됩니다.
- 본 해외결제 적립 이벤트는 예산 소진 등 우리은행 및 삼성전자 사정에 따라 변경되거나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서비스 이용조건과 혜택은 삼성 월렛>우리WON뱅킹 관련 안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은행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삼성월렛 머니 해외 QR 결제 서비스에 가입하시기 전에 서비스 이용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해외 가맹점의 사정에 따라 삼성월렛 머니 해외 결제 서비스 이용이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본 광고(이미지 또는 일부)는 생성형 AI로 생성·편집되었습니다.
- 준법감시인 심의필 2026-11031(2026.11.19~2027.10.31)

신천지 조사 놓고 맞붙은 친명·친청… 민주당 갈등 표면화

최고위원회의서 당내 계파 충돌
박선원 "조직적 입당 정황 발견"
한민수 "입수 경위·근거 공개하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23일 친명(친이재명)계인 박선원 최고위원과 친청(친정청래)계인 한민수·이성윤 최고위원이 정면 충돌하며 김민석 당 대표 취임 100일 하루 전에도 당내 갈등이 고스란히 공개됐다.

당내에서 신천지 교인 집단 당원 가입 의혹을 조사한 '당원 정비 TF(태스크포스)' 단장을 맡은 박선원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친청계' 최고위원을 두고 "제가 거짓하고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우리 민주당을 흔드는 것처럼 말하는 행위야말로 일제의 부역자들을 청산하자는 반민특위 활동을 방해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최고위원은 한정애 사무총장에게 신천지의 민주당 조직적 입당의 성격과 행태에 대한 보고를 이만희 신천지 교주의 증언 녹음을 포함시켜서 진행했고, 공직 후보자 경선과 당직 선거에 조직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규모로 신천지 교인의 당원 가입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나아가, 명부 입수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이나 법령 위반이 없다고도 강조했다.

박 최고위원은 "신천지, 반명(反이재명), 분열주의와 싸우자 한 것이 잘못인가. 저는 지난 전당대회 경선에서 모든 최고위원, 당 대표 후보가 '당연하다'라고 나올 줄 알았다"며 "그런데 (친청계의) 그 이후의 모습이 무엇인가. 오히려 (신천지를) 옹호하는 듯한 모습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특정 정치인에 대해서 제보를 소개하고 '간접적으로 들은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모 최고위원께서 하셨다"며 "그렇지 않다. 원한다면 이번 주 내라도 제보자를 공개적인 자리에 세우겠다. 그것이 과연 특정 정치인을 옹호하고 보호하고자 했던 해당 최고위원의 목표인지 잘 생각해서 입장을 말하라"고 했다.

그는 "김민석 대표께서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신천지 조사 결과를) 전면적으로 공개하지 말자', '의총 공개도 하지 말자'고 갑자기 말씀하셨을 때 저보다 당 생활도 많이 했고 훨씬 민주당을 사랑하시고 경험도 많기 때문에 이렇게 풀어가려고 하는구나 생각하고 다 한 마디도 하지 않았다"며 "그러나 (친청계가) 최고위 때마다 이 문제를 거론하는데 당원 정비 TF 단장이 단 한 마디도 하지 않고 있으면 그건 다 사실로 인정해 주는 거 아닌가"라고 말했다.

반면 한민수 최고위원은 "일제 부역자란 표현까지 나왔다"며 "제가 신천지를 옹호하나. 특정 정치인과 연루된 증언이 있다고 (박 최고위원이) 하는데, 당장 증언을 공개하라"고 했다. 이어 "정말 매사가 이런 식"이라며 "지난 7월20일 난데없이 김민석 당시 당 대표 후보가 반명, 분열주의, 신천지 3자 비밀연합을 깨는 것이 전당대회의 본질이라고 한 이후로 매사가 이런 식"이라고 질타했다.

한 최고위원은 김 대표를 향해 "오늘 박 최고위원의 발언에 대해 사전에 보고 받았나. 밝혀달라"며 "피해자 코스프레 하지 말라"고 직격했다. 한 최고위원은 박 최고위원이 신천지 명부 입수 경로, 당 권리당원 명부 대조 방법, 신천지 교인 입당 시점, 이만희 교주의 직접 조직적 당원 가입 지시 여부 등을 밝혀야 한다고도 했다.

한 최고위원은 "(TF 조사 결과 8·17 전당대회 때 투표권을 가진) 권리당원은 0.2%다. 이 숫자가 전당대회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는지 밝혀달라"며 "그러면 여전히 박 최고위원은 반명, 분열주의, 신천지 3자 비밀 연합이 우리 당에 있다는 것인가. 제발 본질 좀 흐르지 말라. 너무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성윤 최고위원은 "신천지 당원 명부 입수 경위는 합법적이고 개인정보 유출이나 법 위반은 전혀 없다고 (박 최고위원이) 한 만큼, 그대로 공개해도 된다"며 "TF 조사 결과를 있는 그대로 당원과 국민에게 그대로 공개하면 된다"고 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중복수급시 유족연금 30% '적정성 도마'

국회 예정처, 내년도 예산안 분석
월 평균 급여액 36만원 불과
국민연금연구원, 지급률 확대 연구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가 본인의 노령·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의 중복수급권과 관련, 현행 유족연금 30% 추가지급 방식의 소득보장 효과, 다른 공적 연금과의 차이, 지급률 조정 시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예정처는 지난달 30일 202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중 보건복지위원회편에서 이같이 밝혔다. 유족연금은 연금 가입자나 수급자가 사망했을 때, 그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남겨진 가족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지급하는 공적 연금 급여다. 국민연금 외에도 사학연금과 군인연금 등 직역연금에도 도입돼 있다. 국민연금의 경우, 수급자가 사망할 시 가입 기간 10년 미만인 사람은 기본 연금액의 40%,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사람은 50%, 20년 이상인 사람은 60%의 유족연금을 받는다.

국민연금법 제56조에 따르면, 동일한 수급권자에게 두 개 이상의 국민연금 급여 수급권이 발생하면 수급자의 선택에 따라 하나의 급여를 지급하고 다른 급여의 지급은 하지 않는다. 다만, 선택하지 않은 급여가 유족연금인 경우에 유족연금액의 30%를 선택한 급여에 추가해 지급한다. 만약, 유족연금을 선택한 경우엔 본인의 노령·장애 연금 급여 지급은 정지된다. 한정된 재원을 여러 사람이 나누기 위한 장치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본인의 노령·장애연금과 유족연금 수급권이 중복해 발생한 사람은 지난 2021년 12만3994명에서 2025년 20만8242명으로 67.9% 증가했다. 이 중 본인의 연금 수급권을 선택하고 유족연금의 30%를 받은 사람은 2025년 17만1547명으로, 전체의 82%다. 유족연금을 선택해 본인의 연금 수급권이 정지된 사람은 3만6695명으로 전체의 18%다.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유족 연금의 차이도 난다.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은 중복 시 수급권 중복시 유족연금액의 50%가 지급된다.

유족연금은 사망한 가입자의 소득 상실에 대응해 유족의 경제적 안정을 돕는 중요한 사회보장 제도로 설계됐지만, 2024년 기준 월평균 급여액이 36만원에 불과해 유족의 최소한의 생계조차 보장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국민연금연구원이 지난해 12월 발행한 '유족연금의 급여수준의 적정성 검토와 개선과제' 정책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가구소득 분포에서 중위소득의 50%를 기준으로 빈곤 여부를 판단하는 지표인 '상대빈곤율' 관련, 유족연금 수급 가구의 상대빈곤율은 노령연금 수급 가구보다 높았다. 특히, 65세 이상 유족의 경우 상대빈곤율이 60.34%로 더욱 심각했다.

예정처는 "현행 유족연금 30% 추가지급 방식이 수급자의 노후소득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며 "아울러 직역연금과의 비교도 단순 중복지급률 차이에 그치지 않고 유족연금 산정방식과 실제 급여수준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중복지급률을 조정하거나 유족연금 선택 시 본인의 노령·장애연금 일부를 추가 지급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경우 수혜인원과 평균급여 변화, 국민연금기금의 중장기 추가 재정소요를 함께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한편, 23일 국회에 따르면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유족연금의 소득강화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중복수급 시 유족연금의 지급률을 현행 30%에서 50%로 높이는 한편, 유족연금 산정기준이 되는 가입기간의 구분은 '10년 단위'에서 '1년 단위'로 하고, 각 기간마다 적용되는 기본연금액의 비율도 현행 10%에서 1%씩 차이가 나도록 개정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개정안은 가입기간 11년 미만인 경우 적용되는 기본연금액의 비율을 현행보다 10%포인트(p) 올려 50%로 설정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해당 법안 비용추계서에서 개정안 내용대로 유족연금 지급률을 조정하고 유족연금 산정기준을 바꿀 경우,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총 4038억원, 연평균 808억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이라고 추계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

〈유족연금 중복지급율, 연금포기비율〉 (단위:명)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중복수급권 발생 인원(A)	123,994	143,995	159,527	182,653	208,242
노령·장애연금 선택(B)	104,049	120,601	132,572	151,201	171,547
비율(B/A)	84	84	83	83	82
유족연금 선택(C)	19,945	23,394	26,955	31,452	36,695
비율(C/A)	16	16	17	17	18

/보건복지부

자주파·동맹파 동시 교체… 외교안보라인 새 리더십

›› 1면 '국정원장 후보'서 계속

현 안보실 2차장인 임웅순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1964년 대전 출신으로 서대전고와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외무고시 22회로 공직에 입문해 한반도평화교섭본부 북핵외교기획부단장, 주미국 공사, 주캐나다 대사 등을 지낸 정통 외교관료다.

직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역임했던 홍익표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1967년 서울 출신으로 한양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출신으로 통일부 장관 정책보좌관을 거쳐 19·20·21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과 원내대표를 거쳐 정무수석을 맡기도 했다.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로는 한준호 민주당 의원이 지명됐다. 1974년 전북 전주 출신으로 우석고와 연세대 수학과를 졸업하고, MBC 아나운서와 대통령비서실 국민소통수석비서관실 행정관을 거쳐 21·22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또 당 원내대변인과 최고위원을 역임하며 당 경험을 쌓았다.

현 청와대 수석대변인인 강유정 문체부 장관 후보자는 1975년 서울 출신으로 한영외국어고와 고려대 국어교육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에서 국어국문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신춘문예로 등단한 문화예술 평론가로 강남대 교수, 부천국제판타스틱 영화제 조직위원을 지냈고, 22대 국회의원을 거쳐 수석대변인을 맡아 왔다.

이번 인선을 통해 조현 외교부 장관과 정동영 통일부 장관, 이종석 국정원장이 동시에 교체됐다. '자주파'로 분류되는 정 장관과 '동맹파'로 분류되는 조 장관 가운데 한 명만 교체할 경우 정책 노선 변화로 비춰질 수 있어, 동시에 교체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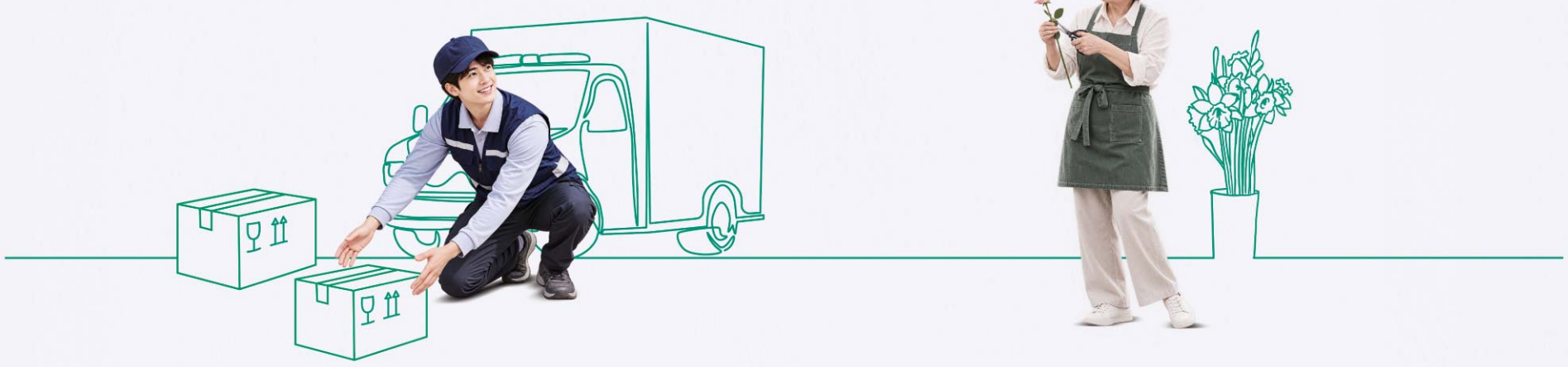
임 실장은 외교안보라인을 한꺼번에 바꾼 이유에 대해 한미 관세 협상 타결과 역대 최대 경상수지 흑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 등을 성과로 꼽으면서도 "이번 인사는 급변하는 국제 정세의 변화에 새로운 리더십으로 대응함으로써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외교·안보는 물론이고 무역, 에너지, AI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익을 지키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대북정책의 실효성 논란이나 대미 외교 불협화음이 교체에 영향을 준 것이냐는 질문에는 "그간의 기조는 유지된다고 보시면 된다"며 "굳건한 한미동맹은 미국 뿐만이 아니라 우리 정부의 기조이며, 한반도 평화정착이라는 과제도 우리 정부의 기조다. 이런 부분을 일관되게 추진한다는 의지"라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강 후보자의 경우 정보·안보 등 국정원 업무 전문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임 실장은 이에 대해 "국정원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고, 새로운 안보 과제를 국제 공조 속에서 결단력 있게 풀어나갈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한편 전날(22일) 수능 AI 부정행위 방지 대책 혼선에 대한 책임으로 사퇴한 최교진 전 교육부 장관의 후임자는 발표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최 전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당일에 면직안을 재가했는데, 정치권에선 사실상 문책성 인사로 보고 있다. 다만 전날 사임해 후임 인선을 준비할 여유가 없었고, 한성숙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수능 사후 조치를 취하고 있기에 여유를 두고 후임을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임 실장은 "후임자 인선에도 속도를 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서예진 기자 syj@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



모두를 위한 하나의 금융이 내일을 위한 행복의 기회로

누구나 더 밝은 내일을 그려가도록 하나금융그룹이 포용금융으로 힘을 더합니다



하나금융그룹은 누구나 필요한 금융을 편리하게 이용하고, 금융의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모두의 금융권리를 넓혀갑니다

- 청년 및 소상공인의 금융지원
- 채무자보호 및 범죄예방
- 지속가능한 포용금융 내재화

✦ 해당 제작물은 생성형AI를 활용하여 제작되었습니다

하나금융그룹 | 하나금융지주 | 하나은행 | 하나증권 | 하나카드 | 하나캐피탈 | 하나생명 | 하나손해보험 | 하나저축은행 | 하나자산신탁 | 하나자산운용 |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 하나에프앤아이 | 하나벤처스 | 하나펀드서비스 | 하나금융티아이 | 핀크 |

“글로벌 선도 금융플랫폼 목표… 선택받는 솔루션 만들 것”

이재근 KB금융 회장 취임식

“3000만 고객, 2.6만 임직원 보유 위기의식 가지고 먼저 움직여야 지금의 거대한 변화, 위협 아닌 기회”



KB금융지주는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제8대 이재근 회장의 취임식을 개최했다. /KB금융그룹

이재근 KB금융그룹 신임 회장은 “과거의 KB금융이 ‘리딩 뱅크’였다면 앞으로의 KB금융은 ‘리딩 플랫폼’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지금 우리 앞에 놓인 변화는 금융 산업의 지형 자체가 바뀌는 구조적 전환”이라며 글로벌 선도 플랫폼 금융그룹을 새로운 목표로 제시했다.

그는 “오늘의 성공 방정식이 내일의 성공을 보장하지 않는다”며 “AI와 디지털이 고객에게 닿는 비용을 한없이 낮추는 시대에 규모만으로 만든 우위는 빠르게 사라진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우리에게는 3000만이 넘는 고객, 금융 전 영역을 아우르는 11개 계열회사, 그리고 고객을 가장 잘 이해하는 2만 6000여 임직원이 있다”며 “위기의식을 갖고 먼저 움직이며, 여기에 데이터와 AI의 역량을 더한다면 지금의 거대한 변화는 위협이 아니라 새로운 도약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 플랫폼으로 거듭나기 위한 경영 방향은 ▲고객이 있는 모든 곳에서 가장 먼저 선택받는 KB ▲고객이 하나의 KB를 경험하는 진정한 ‘원(One) KB’ ▲고객을 향한 작은 차이로 경쟁력을 만드는 KB 등 세 가지다.

먼저 KB스타뱅킹을 고객의 일상과 금융을 잇는 핵심 플랫폼으로 키운다. AI 에이전트가 고객을 대신해 금융서비스를 고르는 시대에도 가장 먼저 선택받는 솔루션을 내놓겠다는 계획이다.

해외 전략도 단순 진출에서 한 단계 나아간다. 현지 시장에 깊숙이 뿌리내리고, 글로벌 유수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계열사 간 칸막이는 걷어낸다. 이 회장은 “계열사가 많다는 사실 자체가 고객에게 가치를 주는 것은 아니다”라며 “고객이 어떤 문으로 들어오든 KB가 가진 최고의 역량과 솔루션을 만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마지막은 압도적인 경쟁력이다. 그는 “금융상품과 기술은 빠르게 모방할 수 있지만 고객의 작은 불편까지 살피는 세심함과 오랜 시간 쌓아 온 신뢰는 쉽게 따라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취임 후 첫 일정을 정보보호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것으로 시작했다. 최근 금융권에서 잇따른 정보유출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그는 그룹 IT, 정보보호, AI/DT 담당 임원들과 티타임을 갖고, 경영진부터 현업까지 정보보호 책임체계를 명확히 하고, 외부 접점의 보안체계를 핵심시스템과 동일한 기준으로 원점에서 재점검할 것을 주문했다.

이 회장은 “내부통제와 소비자보호는 성장의 걸림돌이 아니라 더 멀리, 더 오래 성장하기 위한 경영의 근간”이라며 “고객의 이익과 신뢰를 모든 경영 판단의 최우선에 두겠다”고 말했다. 이를 바탕으로 2027년을 새로운 변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대전환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인뱅 CEO연임 갈림길… 해외사업·기업가치 제고 ‘핵심’

내년 3월 임기 만료

카카오뱅크, 인니·태국·몽골 등 ‘해외사업 경영전략’ 연임 필요성

이사회 독립성·경영 전문성 강조 케이뱅크, 외부인사 검토 가능성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이사



최우형 케이뱅크 행장

인터넷전문은행 수장들의 연임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 최고경영자(CEO)의 임기가 내년 3월 나란히 만료되면서 차기 경영진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두 은행 모두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가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카카오뱅크는 해외 사업 확대, 케이뱅크는 상장 이후 기업가치 제고가 연임 여부를 가를 주요 평가 요소로 꼽힌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와 최우형 케이뱅크 행장의 임기는 각각 내년 3월 25일과 31일 만료된다. 토스뱅크 이은미 대표는 올해 연임에 성공해 2028년 3월까지 임기가 남아 있다.

윤 대표는 2016년부터 카카오뱅크를 이끌어 온 은행권 대표 장수 CEO다. 카카오뱅크 출범과 성장 과정을 주도해 온 만큼 경영 연속성이 연임을 뒷받침할 요인으로 거론된다.

특히 카카오뱅크가 기존 예금·대출 중심의 사업구조에서 벗어나 결제 서비스와 해외 사업으로 영역을 넓히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최근 애플페이를 도입한 데 이어 해외 디지털은행 투자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카카오뱅크는 인도네시아 슈퍼뱅크에 투자한 데 이어 태국 합작 디지털은행 ‘뱅크X’의 내년 영업 개시를 준비하고 있다. 지난 18일에는 몽골 디지털은행 M뱅크 지분 15%를 확보해 2대 주주에 오른다고 발표했다.

인도네시아와 태국에 이은 세 번째 해외 진출로, 사업 영역을 동남아시아에서 중앙아시아까지 확대한 것이다.

해외 사업이 본격적인 수익으로 이어지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만큼 기존 경영진의 전략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해외 금융당국과의 협력과 현지 사업 안정화 등 중장기 과제를 추진해야 한다는 점도 경영 연속성에 무게를 싣는 요인이다.

다만 윤 대표의 장기 재임은 변수다. 10년 가까이 카카오뱅크를 이끌어 온 만큼 금융당국의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 기조 속에서 장기 재임에 대한 평가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사회가 그동안의 경영 성과와 함께 해외 사업의 수익성, 향후 성장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전망이다.

케이뱅크는 상장 이후 달라진 지배구조와 주가 부양 과제가 차기 행장 인선의 핵심 변수로 꼽힌다.

케이뱅크는 지난 3월 유가증권시장 상장 이후 첫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사회 규모를 기존 11명에서 7명으로 축소했다. 사외이사는 8명에서 5명으로, 기타비상무이사는 2명에서 1명으로 줄였다.

이 과정에서 KT 출신 이사가 물러나고 최대주주인 BC카드 출신 이찬승 기타비상무이사만 남았다. 최 행장이 겸임하던 이사회 의장직도 KB국민은행 부행장 출신 정진호 사외이사에게 넘겼다.

케이뱅크는 초대 심성훈 행장과 2대 이문환 행장을 KT 출신으로 선임했으나 3대 서호성 행장부터 외부 금융권 인사를 영입했다. 상장 이후 이사회 독립성과 경영 전문성이 강조되고 있어 차기 행장 인선에서도 금융권 경력을 갖춘 외부 인사가 검토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최 행장의 경영 성과도 주요 평가 대상이다. 최 행장은 올해 3월 첫 연임에 성공했으며 재임 기간 케이뱅크의 증시 상장을 이끌었다.

실적은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다. 케이뱅크의 올해 3분기 누적 당기순이익은 102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 감소했다. 다만 3분기 순이익은 421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9% 증가했다.

문제는 상장 이후 주가 흐름이다. 케이뱅크 주가가 공모가를 크게 밑돌면서 기업가치 제고가 주요 경영 과제로 떠올랐다. 상장을 통해 확보한 성장 기반을 실질적인 수익성 개선으로 연결하고 투자자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가 평가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두 은행은 CEO 인선에 앞서 연말 임원 인사도 예정돼 있다.

카카오뱅크는 권태훈 경영전략그룹장과 신재홍 기술그룹장, 송호근 투자·신사업그룹장 등 미등기임원 17명의 임기가 다음 달 31일 만료된다.

케이뱅크 역시 이준형 전략실장과 강병주 사업본부장, 탁윤성 소비자보호실장, 김재성 기술실장 등 미등기임원 7명이 같은 날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특히 케이뱅크에서는 최대주주 BC카드의 경영기획총괄을 맡고 있는 이찬승 기타비상무이사의 재선임 여부도 관심사다. 이 이사는 차기 행장 후보를 추천하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도 참여하고 있다. /나유리 기자 yul115@

NH농협금융

군장병 금융세미나

NH농협금융지주는 지난 20일 경북 포항시에 위치한 해군 항공사령부에서 군장병 100여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금융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국가 안보를 위해 헌신하는 군 장병들의 체계적인 자산관리와 안정적인 미래 설계를 지원하고, 군부대와의 교류와 금융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홍순옥 NH농협금융지주 사업전략부문장은 돈에 대한 철학과 투자전략에 대해 직접 강의를 진행했다. 이어 NH농협은행 자산관리(WM) 전문가가 은퇴 준비부터 자산 관리까지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맞춤형 금융정보를 제공했다.

홍순옥 NH농협금융지주 부사장은 “청년들이 올바른 금융지식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자산을 형성하고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주형 기자 gh471@

OK금융

채용형 인턴 공채

OK금융그룹은 ‘2026 인공지능(AI) 네이티브 채용형 인턴’ 공개채용을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인공지능 전환(AX)·데이터, 기업금융, 개인금융, 경영관리 총 4개 부문에서 40명 내외를 선발한다. 원서 접수는 이달 23일부터 내달 6일까지다.

OK금융그룹은 이번 채용에 ‘AI역량평가’를 처음으로 도입한다. 지원자는 챗GPT, 클로드 코드 등 AI 도구를 이용해 주어진 과제를 수행하면 된다. 과제를 마친 후에는 실무진 면접이 실시된다. 평가에 쓰이는 AI 도구 유료 계정과 개인별 노트북은 별도로 제공된다.

선발된 인원은 오는 2027년 1월 11일부터 3월 5일까지 인턴십에 참여하며 현업 AI 과제를 수행한다. 인턴 교육 과정에는 OK금융그룹의 현직 ‘AI 캡틴’들이 멘토로 참여해 인턴의 정규직 전환 여부를 심사한다. /안재선 기자

대환대출·리볼빙 등 카드 빚 일제 증가

카드사 9곳 카드론 잔액 증가 전환

대환대출 1.7조, 전월비 4.8% 증가

지난달 카드론과 대환대출, 리볼빙, 현금서비스 잔액이 일제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카드론은 지난달 부실채권 상·매각에 따른 기저효과로 늘었지만, 나머지 지표까지 동반 상승하면서 취약차주 자금난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는 모습이다.

23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국내 카드사 9곳(신한·삼성·KB국민·현대·롯데·우리·하나·비씨·NH농협카드)의 카드론 잔액은 42조6701억원으로 집계됐다. 전월 대비 3297억원 증가한 수준이다.

지난 5월 이후 첫 증가세 전환이다. 카드론 잔액은 지난 5월 말 43조2534억원을 기록하며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이후 6월부터 9월까지 연달아 감소세를 유지했다.

3분기 말 카드사들의 부실채권 상·매각에 따른 기저효과가 반영되면서다. 여기에 지난달 증시 변동성으로 인해 대출 수요가 일부 증가하면서 카드론 수요를 견인했다는 분석이다.

카드론 금리 하락도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NH농협카드를 제외한 국내 8개 카드사의 지난달 카드론 평균 금리는 13.55%다. 지난 8월 14.15%에서 9월 13.85%로 낮아진 데 이어 10월에도 하락세를 이어갔다.

문제는 카드론 외에 대환대출·리볼빙·현금서비스 등이 일제히 올랐다는 점이다.

대환대출 잔액은 1조7133억원으로, 전달(1조6342억원) 대비 791억원(4.8%) 증가했다. 대환대출은 기존 대출을 상환하기 위해 새로운 대출로 갈아타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대환대출 잔액은 한 달 만에 반등하며 증가 폭을 키웠다. 지난 8월 1조6952억원에서 9월 1조6342억원으로 610억원 감소했지만, 10월에는 791억원 늘며 8월 수준을 넘어섰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

K-디스플레이, OLED 투자 온도차
삼성D '생산 확대' LGD '투자 철회'

삼성D, 아산공장 생산효율 개선
IT용 등 시장상황에 따라 투자

LGD, 기존 설비활용 수요 대응
수익성 집중… 게이밍 시장 공략

삼성디스플레이와 LG디스플레이가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생산시설 투자에서 서로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삼성디스플레이가 신규 생산시설 확충에 나선 가운데 LG디스플레이는 대형 OLED 투자 계획을 철회하고 기존 설비 활용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LG디스플레이는 지난 19일 경기도 파주 P10 공장의 10.5세대 대형 OLED 생산시설에 대한 3조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철회했다. 지난 2019년 7월 초대형 OLED 시장 선점을 위해 투자를 결정한 지 약 7년 만이다.

LG디스플레이는 코로나19 확산과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 등으로 투자 일정을 연기해 왔다. 지난 2023년 3월에는 투자 종료 시점을 2028년 3월로 연장했지만 이번에 최종적으로 투자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투자 철회 배경으로는 대형 OLED 시장의 수요 둔화를 꼽았다. OLED TV 시장의 성장이 둔화하고 액정표시장치(LCD)에서 OLED로의 전환 속도도 당초 예상보다 늦어졌다는 설명이다. 반대로 게이밍 OLED 모니터를 비롯한 중소형 프리미엄 제품의 수요는 빠르게 늘고 있다고 밝혔다.

LG디스플레이는 신규 10.5세대 생산시설을 구축하는 대신 기존 대형 OLED 생산능력을 활용해 시장 수요에 대응할 계획이다. 회사는 지난 19일 공시를 통해 기존 설비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신규 투자보다 수익성 확보에 합리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삼성디스플레이는 IT용 OLED와 폴더블 패널 수요 확대에 대응해 신규 생산시설 확보에 나섰다. 지난 8월 충남 아산 2단지의 A7 공장 건설 재개를 결정했다. 지난 2021년 공사가 중단된 지 5년 만이다. 오는 2028년 초 완공을 목표로 폴더블 OLED 생산을 우선 검토하고 있다. 노트북 등 IT용 OLED도 시장 상황에 따라 추가 투자를 추진할 방침이다.

아산 A6 라인에서는 8.6세대 IT용 OLED 양산을 추진하고 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지난 2023년 해당 라인에 2026년까지 총 4조1000억원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기존 6세대보다 큰 유리기판을 활용해 노트북과 태블릿용 OLED 패널의 생산 효율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삼성전자 3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삼성디스플레이는 올해 1~9월 생산시설 신·증설과 보완 등에 2조4471억원을 투자했다. 같은 기간 매출은 22조175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 증가했다. 영업이익은 2조1502억원을 기록했다.

이처럼 생산시설 투자 방향은 다르지만 양사 모두 게이밍 모니터 등 프리미엄 OLED 시장에서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지난 19일부터 22일까지 부산에서 열린 게임 전시회 '지스타 2026'에서 글로벌 게임사들과 협력해 QD-OLED 체험 공간을 운영했다.

LG디스플레이도 게이밍 OLED 모니터를 주요 성장 제품군으로 보고 있다. 회사는 지난 19일 투자 철회 공시에서 게이밍 모니터 등 중소형 프리미엄 OLED 수요 확대를 시장 변화의 주요 요인으로 제시했다.

업계 관계자는 "OLED 수요가 TV뿐 아니라 IT 기기 등으로 확대되면서 업체별 투자 방향도 달라지고 있다"며 "생산시설 투자에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만큼 신규 설비 확충과 기존 설비 활용 사이에서 수익성을 고려한 판단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삼성글로벌리서치, 김원준대표 사장 승진

최진원 재무전략담당 사장 합류



삼성그룹의 경영전략 연구조직인 삼성글로벌리서치가 사장단 인사에서 기존 대표이사 체제를 유지하고 재무전략담당 사장을 새로 선임했다. 경영·전략 전문가인 김원준 대표이사(사진)의 사장 승진과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출신 최진원의 합류로 계열사 경영 컨설팅 역량 강화에 힘을 실었다.

삼성글로벌리서치는 23일 김원준 대표이사 부사장을 사장으로 승진 발령하고, 최진원 삼성전자 디바이스경험(DX)부문 경영지원담당 재경팀 부사장을 재무전략담당 사장으로 선임하는 사장단 인사를 단행했다.

삼성글로벌리서치는 옛 삼성경제연구소를 전신으로, 그룹의 경영환경과 산업 동향을 분석하고 중장기 전략 수립을 지원하는 연구조직이다. 이번 인사에서는 기존 경영체제를 유지하면서 재무 분야의 전문성을 보강해 계열사 경영 컨설팅 기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김원준 신임 사장은 한국과학기술원(KAIST) 기술경영학부 교수 출신의 경영·전략 전문가로, 2022년 삼성글로벌리서치에 입사해 2023년 말부터 대표이사를 맡아왔다. 이번 인사에서는 그동안의 경영 역량을 인정받아 사장으로 승진했다.

최진원 신임 사장은 삼성그룹 회장실과 미래전략실을 거친 재무·전략 전문가다. 1989년 삼성전자 경리그룹에 입사해 미래전략실 경영지원팀과 전략팀을 거쳤으며, 2013년부터 삼성전자 경영지원실 경리그룹장을 맡았다. 이후 삼성전자 재경 조직에서 근무하며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인사에서 삼성글로벌리서치 재무전략담당 사장으로 승진했다.

특히 최 사장은 그룹의 핵심 전략조직에서 근무한 경력을 갖춘 만큼, 앞으로 계열사 대상 경영 컨설팅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삼성글로벌리서치는 조만간 부사장 이하 임원을 대상으로 한 2027년도 정기 인사도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HMM, 넥스트파워 '그린세일링 서비스' 계약

저탄소 연료도입 비용 일부보전

HMM이 미국의 글로벌 신재생 에너지 기업인 넥스트파워와 온실가스 감축량을 거래하는 '그린세일링 서비스' 계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HMM의 그린세일링 서비스는 해상운송 과정에서 저탄소 연료를 사용함으로써 줄인 온실가스 감축량을 화주에게 이관하는 친환경 서비스다. 이를 통해 글로벌 화주들은 공급망 전반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간접 배출량을 관리할 수 있다.

미국 나스닥 상장사인 넥스트파워는 대규모 태양광 발전 설비와 스마트 에너지 설루션을 공급하는 기업이다. 이번 계약을 통해 넥스트파워는 이관받은 감축량을 온실가스 간접 배출량의 회계 및 보고에 반영할 수 있게 됐다. HMM도 저탄소 연료 도입 비용의 일부를 보전받을 수 있게 돼 선순환 투자 구조를 구축하게 됐다.

HMM은 2023년 독일 물류기업 헬만을 시작으로 2024년 스웨덴 이케아, 2025년 나이키에 이어 이번 넥스트파워와의 계약까지 성사시키며 글로벌 화주와 다양한 협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풍력보조추진장치를 탑재한 HMM의 5만 톤급 중형유조선 '오리엔탈아쿠아마린호' /해진공

HMM 관계자는 "앞으로도 저탄소 연료 도입 다변화 등 온실가스 절감을 위한 선제적 투자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며 "친환경 정책을 회사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HMM은 올해 3분기 연결 기준 매출 4조 1271억원, 영업이익 1조 3947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52%, 영업이익은 370% 증가했다. 3분기 영업이익은 2024년 3분기(1조 4613억원) 이후 최대치다. 당기순이익은 3038억원에서 1조 5352억원으로 405% 늘었다.

/양성운 기자 ys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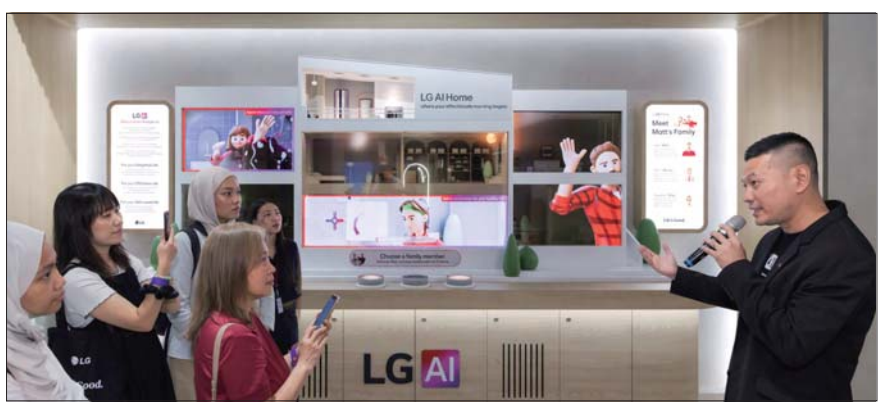
LG전자, 싱가포르 등 글로벌 AI홈 사업 속도

싱가포르에 AI 홈 체험공간 마련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확대 구축

LG전자가 싱가포르에 인공지능(AI) 홈 체험공간을 마련하고 동남아시아 시장 공략에 나섰다. 현지 주거 환경에 맞춘 가전과 AI홈 솔루션을 선보이고 고객 접점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LG전자는 최근 싱가포르 복합 쇼핑몰 '밀레니아 워크(Millenia Walk)'에 AI홈 체험에 특화된 지역 거점 매장을 열었다고 23일 밝혔다. 싱가포르를 시작으로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주요 시장에도 체험공간을 확대할 예정이다.

약 140㎡ 규모로 조성된 체험공간에는 주방과 세탁실, 드레스룸, 거실, 아이 방 등 실제 생활공간을 구현했다. 투명 유기발광다이오드(OLED)를 활용한 디오라마를 통해 AI홈의 개념을 소개하고 가전제품 간 연결 기능을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LG전자는 싱가포르 대표 복합 쇼핑몰 밀레니아 워크(Millenia Walk)에 'AI홈 특화 거점 매장을 열었다. LG전자 직원이 투명 올레드로 구현한 디오라마를 활용해 AI홈 솔루션을 소개하고 있다. /LG전자

방문객들은 LG 씽큐(ThinQ)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가전과 사물인터넷(IoT) 기기를 연결하고 제어할 수 있다. 세탁물 특성에 따라 세탁·건조 강도를 조절하는 AI DD 모터와 6모션 기술 등 핵심 부품 기술도 소개한다.

아울러 현지 주거 특성을 고려한 가전제품도 전시했다.

이군호 LG전자 싱가포르 법인장은 "현지 주거 환경과 고객의 생활방식에 최적화된 제품과 서비스를 통해 LG전자의 차별화된 AI홈 경험을 지속적으로 알려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

LG화학, 김동춘 사장 유임… 고부가 소재 사업 속도

반도체·전장용 소재 연구개발 집중

LG화학이 김동춘 사장의 유임과 함께 고부가 소재 중심의 사업구조 전환에 속도를 낸다. 범용 제품의 공급과잉으로 석유화학 업황의 회복이 더딘 만큼, 김 사장 체제에서 여수 설비 통합 등 범용 사업 재편을 이어가면서 반도체·전장용 소재에 연구개발 투자를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김 사장은 취임 이후 반도체·인프라, 모빌리티·로봇 소재와 항암 신약을 LG화학의 핵심 성장 분야로 제시하고 관련 연구개발 투자를 늘리고 있다. 기존 석유화학 사업에서는 수익성이 낮은 설비를 정리하는 한편 반도체 세정용 소재와 전기차 타이어용 합성고무 등 고부가 제품의 매출 비중을 높이고 있다.

첨단소재부문은 반도체 소재를 중심으로 외형을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LG화학은 현재 1조원 규모인 전자소재 사업을 2030년까지 2조원으로 늘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패키징용 접착제와 열관리 소재, 유리기판 등 차세대 반도체 패키징 소재 개발에 집중할 방침이다. 2035년까지 투입하는 연구개발비 15조원 가운데 약 70%도 반도체·모빌리티·로봇 소재 등 육성 사업에 배분할 계획이다.

/원관희 기자 wkh@

삼성중공업, 이왕근 신임 대표 발탁

설계 등 조선해양 사업 경험 풍부

삼성중공업이 설계·생산 등 조선해양 사업 전반을 두루 경험한 이왕근 부사장(사진)을 새 수장으로 발탁했다.

삼성중공업은 이 부사장을 신임 대표이사 사장으로 승진 내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신임 대표이사는 서울대학교 조선해양공학 석사 출신으로 1996년 삼성중공업에 입사했다. 이후 해양설계 담당, 해양사업담당, 생산담당, 조선소장 등을 거쳐 지난해 말부터 최고운영책임자(COO) 겸 조선해양부문장을 맡아왔다.



이 신임 대표이사는 설계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은 기술 전문가로, 사업관리와 생산 분야의 주요 보직을 거치며 조선해양사업 전반의 경험과 경영 역량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삼성중공업은 이 신임 대표이사가 조선해양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신사업을 통한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이끌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삼성중공업은 부사장 이하 2027년 정기 임원인사도 조만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유혜온 기자

“목돈 부담 덜고 관리까지”… 보일러 시장에도 구독경제 바람

귀뚜라미 구독 주문 전년比 2.5배↑
초기 구입비 대신 월 구독료 납부
설치부터 정기점검·A/S까지 제공
제휴카드 할인 시 월 이용료 ‘0원’
최대 8년 관리로 수리 부담 덜어


귀뚜라미 기사가 보일러를 설치하고 있다.

보일러도 목돈을 내고 한번에 사지 않고 생활가전처럼 매달 나눠내는 구독경제 시대가 점점 확산되고 있다.

23일 귀뚜라미보일러에 따르면 올해 9~10월 자사 대리점을 통한 보일러 구독 주문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2.5배 가까이 늘어나는 등 보일러 렌탈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서울 강북구에 거주하는 김소아(48·가명)씨도 마찬가지다. 김씨는 지난해 9월에 8년간 쓰던 귀뚜라미보일러를 바꾸면서 고민에 빠졌었다. 같은 브랜드의 보일러로 교체하는 것에 대한 망설임은 없었지만 100만원 정도하는 목돈을 한번에 내는 것이 부담스러웠기 때문이다.

그래서 김씨가 찾은 것이 귀뚜라미보일러 구독서비스 ‘따숨케어’다.

귀뚜라미는 현대렌탈케어와 함께 보일러 설치부터 정기 점검, A/S까지 한 번에 묶은 관리형 서비스인 ‘따숨케어’를 출시한 바 있다. 고객들은 5년(60개월)과 8년(96개월)의 이용 기간 가운데 고를 수 있다. 교체 때 드는 초기 비용을 매달 나눠내고 계약 기간 내내 관리받는 구조다. 정수기나 비데 등의 구독과 같은 형태다.

김씨는 “일시불로 구매하는 것과 구독을 하는 것을 비교해 봤는데 큰 차이가 없어서 구독을 선택하게 됐고, 제휴카드 할인을 생각하면 거의 무료여서 고민할 필요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30평형대에 주로 설치하는 고급형 ‘거꾸로 ECO 콘덴싱 L20-22H’ 기준으로 일시불 구매 비용은 제품과 기본 설치비를 합쳐 104만3000원이다. 그런데 같은 모델의 따숨케어 8년형은 매달 1만9900원씩 96개월간 총 191만400원을 내야한다. 일시불보다 구독이 86만7400원 많은 셈이다.

귀뚜라미 관계자는 “구독에는 최대 8년간 무상 A/S, 연 1회의 정기 성능 점검, 24시간 이내 고장 대응이 포함돼 있다”면서 “구독 고객이 매달 내는 총 금액은 일시불로 내는 것보다 많은 대신 최대 8년간 보일러 점검과 수리 걱정을 덜 수 있다. 물론 구입시 목돈 부담이 없다는게 따숨케어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설명했다.

제휴카드를 활용하면 월 구독료는 더욱 싸진다. 특히 카드 실적에 따라 구독료를 한푼도 내지 않을 수 있다.

‘거꾸로 ECO 콘덴싱 L20-22H’ 모델을 8년(96개월) 구독하는 경우 제휴카드 할인이 없으면 매달 1만9900원씩 내야한다. 하지만 제휴카드 전월 사용 실적이 40만원(올해 11월1일 프로모션 기준)을 넘으면 월 구독료는 1900원으로 매달 1만8000원씩 아낄 수 있다. 만약 카드실적이 80만원(월 2만원 할인 혜택)이면 월 구독료는 ‘제로(0원)’다.

8년간 총 비용은 제휴카드가 없는 경우 191만400원을 온전히 내야하지만 월 실적 40만원은 18만2400원, 80만원은 0원인 셈이다.

현재 구독 대상 제품은 고급형 ‘거꾸로 ECO 콘덴싱 L20’과 일반형 ‘트윈알파 ECO L11’ 2종이다.

귀뚜라미 관계자는 “보일러는 설치 후 10년 가까이 쓰는 제품인 만큼 교체 비용 만큼이나 점검과 수리 부담도 따져봐야 한다”며 “따숨케어로 고객이 목돈 부담 없이 오랫동안 관리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LS전선, 美 뉴욕에 7000억 규모 케이블 공급

국내 전선업계 역대 최대 대미 수출
뉴욕 145㎞ 초고압 전력망 구축 참여
현지 생산·시공 역량 강화로 입지 확대



강원도 동해시 동해항에서 LS전선이 생산한 초고압 해저케이블을 LS마린솔루션이 선적하고 있다. /LS전선

LS전선이 국내 전선업계 역대 최대 대미 수출 프로젝트인 미국 뉴욕 초고압 전력망 사업에 해저·지중케이블을 공급한다. 최근 뉴욕주 당국이 이 사업의 시공계획을 승인하면서 공사가 본격화하는 만큼, 북미 초고압 전력망 시장에서 LS전선의 입지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LS전선은 미국 법인(LS Cable Systems America)을 통해 뉴욕 ‘프로펠 뉴욕 에너지(Propel NY Energy)’ 사업에 약 7000억원 규모의 345kV 초고압 해저·지중케이블을 공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 사업은 뉴욕전력청(NYPA)과 송전망 개발·운영사 뉴욕 트랜스코(New York Transco)가 공동 추진하는 프로젝트로, 롱아일랜드와 뉴욕시 퀸스·브롱크스, 웨스트체스터 카운티를 잇는 약 145km 전력망을 구축한다. 송전 용량을 늘리고 전력 공급을 안정화하는 한편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전력망에 연계하는 것이 목적이다. 지난 2월 계약 체결 이후 최근 뉴욕주 당국이 시공계획을 승인하면서 본격적인 공사 단계에 들어섰다. LS전선은 이 공사에서 345kV급 지중·해저케이블 납품과 전기공사, 준공시험을 수행한다.

국내 전선업체 가운데 해외에 초고압 해저케이블을 공급한 실적을 가진 곳은 LS전선이 유일하다. 이번 프로젝트로 글로벌 시장에서 쌓아온 기술력과 사업 수행 경험을 다시 입증한 LS전선은 북미 현지 생산 기반도 강화하고 있다. 미국 버지니아주에 건설 중인 LS그린링크를 초고압 해저케이블 생산 거점으로 키우고 있다. 계열사 가온전선도 미국 법인 LSCUS를 통해 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DC)와 재생에너지용 배전케이블, 버스덕트 공급을 늘리면서 관련 매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해저케이블 시공 역량도 보강하고 있다. LS마린솔루션이 2028년 투입을 목표로 1만9000톤급 초대형 포설선을 건조 중으로, LS전선은 이를 통해 생산부터 시공까지 아우르는 턴키 사업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원관희 기자 wkh@

애경그룹, 고준 AK홀딩스 대표 사장 승진

사장단 유임·임원 13명 인사



애경그룹이 고준 AK홀딩스·애경케미칼 대표이사(사진)의 사장 승진을 포함한 2027년 정기 임원인사를 실시했다. 기존 사장단은 유임해 경영 안정을 꾀하는 한편 계열사별로 차세대 리더를 발탁해 미래 성장에 대비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애경그룹은 사장 1명, 부사장 1명, 전무 2명, 상무 5명을 승진시키고 상무보 4명을 새로 선임하는 등 모두 13명에 대한 임원 인사를 단행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보다 2명 늘어난 규모로, 발령일은 내년 1월 1일이다.

고 사장은 글로벌 컨설팅사 베인앤컴퍼니 출신으로, 2018년 애경에 합류한 뒤 AK홀딩스 전략기획팀장을 맡아 그룹 경영 전략을 총괄해 온 ‘전략통’이다. 2022년 AK플라자 대표이사를 거쳐 2024년 말 지주사 AK홀딩스 대표로 선임됐다.

기존 사장단은 모두 유임됐다. 애경그룹은 그간 추진해 온 변화와 혁신을 이어가고 주요 경영 과제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현 경영진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지난해에도 재무구조 개선 등 위기 극복에 집중하기 위해 사장단을 교체하지 않았다.

계열사 임원 인사는 성과와 역량을 기준으로 이뤄졌다. 제주항공에서는 전무 1명, 상무 4명, 상무보 1명 등 6명이 승진하거나 새로 임원으로 선임돼 계열사 가운데 가장 많았다. 애경스페셜티에서는 박태한 대표이사가 부사장으로 승진했으며 상무 승진과 상무보 신규 선임도 각각 1명씩 이뤄졌다.

애경그룹 관계자는 “이번 인사를 통해 계열사별 책임경영을 강화하고 대내외 불확실성 속에서도 새로운 성장 기회를 적극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

중기부,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 9곳 선정

중소기업까지 선정 대상 확대

중소벤처기업부가 ‘2026년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으로 9개사를 선발했다.

여기에는 ▲뉴금우고속관광전세 ▲대화공업 ▲롯데칠성음료 ▲에이치디건설기계 주식회사 ▲풍산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서부발전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이름을 올렸다. 23일 중기부에 따르면 올해는 위탁기업인 대·중견기업은 물론 납품대금 조정을 받는 수탁기업인 중소기업까지 선정 대상을 넓혔다. 수·위탁 거래에서 주요 원재료 비용 등이 일정 수준 이상 변동하면 납품대금 연동제에 따라 그 변화분을 납품대금에 반영해야 한다.

풍산은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23개 협력사와 연동 약정을 맺고 약 374억원의 납품 대금을 인상했다. 다음 달 3일부터 전기료, 가스비 등도 납품대금 연동 대상에 포함되는 에너지경비 연동제를 미리 계약에 반영했으며, 협력사를 위한 연동제 교육을 매년 시행하고 있다.

올해 롯데칠성음료는 지난달 기준 협력사 26곳에 37억원 규모의 납품대금을 올려줬다. 또 계약 전산시스템(SRM)에 에너지 경비 연동 기능을 추가하고, 내부 관리 체계를 개선해 매년 이행 현황을 점검하도록 했다. 지난 2월 발발한 중동전쟁으로 인해 플라스틱 제작에 필요한 나프타 원가가 뛰자 플라스틱 가공업계 상생 협약에 참여해 합력사 대금 조정 시기 1~2개월도 앞당겼다.

수탁기업으로는 훈·포장 부품을 가공하는 대화공업이 선정됐다.

이밖에 지역난방공사는 올해 누적 72건의 연동 약정을 체결했다.

/김승호 기자

휴롬

착즙기·블렌더 합친 ‘헬시마스터’ 선보여

휴롬이 착즙기와 블렌더를 본체 하나로 구현하는 2 in 1 건강가전 ‘헬시마스터 VM200’ 신제품을 출시했다. 23일 휴롬에 따르면 휴롬 헬시마스터 VM200은 착즙기와 블렌더의 전문 기능을 하나의 스테이션으로 연결해 음료부터 음식까지 건강한 식생활을 하나의 경험으로 이어주는 ‘헬시마스터’라는 새로운 프리미엄 건강가전 카테고리로 이번에 새롭게 기획됐다.

휴롬의 저속 착즙 기술력과 초고속 블렌딩 성능을 결합해 채소·과일 착즙주스부터 스무디, 수프, 다지기 등 음료부터 요리까지 다양한 건강 레시피를 한 대로 구현하며, QR코드를 통해 맞춤 건강 레시피도 확인할 수 있다.

/김승호 기자

코웨이, 성과형 방문판매원 ‘코디’ 찾는다

출퇴근 제약 없이 원하는 지역서 활동
월평균 소득 328만원·최고 1585만원

코웨이가 파트너십을 맺고 활동하는 방문판매원 ‘코디(Cody)’를 전국적으로 모집한다. 현재 코웨이 코디는 약 1만2000명에 이른다. 23일 코웨이에 따르면 코디는 회사와 위임 계약을 맺고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방문판매업자(자유직업소득자)로 활동한다. 주요 업무는 코웨이의 다양한 제품들을 고객들에게 소개하고 판매하는 세일즈다. 고객이 렌탈한 제품의 정기점검 및 필터 교체 등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

코웨이 관계자는 “개인사업자로서 독립적인 활동을 수행하는 코디는 정해진 출퇴근 시간 없이 거주지 인근 등 희망지역에서 고객과 직접 일정을 조율하며 활동할 수 있어 시간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면서 “육아와 경제 활동을 병행해야하는 사람은 물론 취미 활동, 자기계발 등 개인 시간이 중요한 이들도 부담 없이 도전할 수 있어 경력 단절 여성과 N잡러 등 다양한 사람들에게 새로운 경제 활동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코디의 가장 큰 매력 중 하나는 각자의 세일즈 역량에 따라 소득이 높아지는 구조에 있다. 코디는 주로 판매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세일즈 역량과 활동량이 곧 소득으로 이어진다.

코웨이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코디 월평균 소득은 328만원이며 상위 2000명은 648만원, 상위 100명은 1106만원을 기록했다. 최고 소득을 올린 코디는 1585만원에 달했다.

세일즈 경험이 없어도 세일즈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도 갖췄다.

/김승호 기자


“ 햇빛을 보는게
비타민D 합성에
좋다는데…”
“실내에만 있어서
비타민D가 부족한
기분이 들어요. ”
약국 입점
상품
야외활동을 하기 힘든 바쁜 당신에게
따듯한 마음을 선물합니다!
NAVER
보령 비타민D 4000IU 츄어블
지금바로 네이버 검색해보세요

KT스카이라이프, 인수 5년 만에 KT HCN 흡수합병 추진

합병 예정일, 내년 6월 30일
중복 기능 통합, 사업 시너지 강화

노조 "2500억 손실 초래한 인수"
경영진 책임, 졸속합병 중단 요구



생성형 AI로 만든 KT스카이라이프의 KT HCN 흡수합병 이미지.

KT스카이라이프가 KT HCN 인수 5년 만에 흡수합병을 추진한다. 중복 조직을 통합해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재무 개선을 위한 목적이다. 다만 노조 반발에 따라 정부 합병 심사 과정에서 고용안정 문제가 변수가 될 전망이다.

23일 방송업계에 따르면 KT스카이라이프는 최근 KT HCN 흡수합병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KT HCN은 소멸하고 보유 자산은 KT스카이라이프에 귀속된다.

합병 비율은 1대 0이며, 합병 예정일은 내년 6월 30일이다. 회사 측은 "현대 HCN 인수 후 조건부 승인으로 별도법인을 3년간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합병 이유는 KT HCN의 케이블TV 지역 영업망과 콜센터, 전산시스템 등 운영 기능 통합이다. 자회사 KT HCN의 중복 기능을 줄여 사업 시너지를 높인다는 취지다.

양사 간 중복 사업은 그룹사 KT의 통신망을 활용한 IPTV와 초고속인터넷 등이다. KT스카이라이프는 초고속 인터넷 '스카이 인터넷'과 IPTV 서비스 '아이핏 TV'를 운영하고 있으며, KT HCN도 KT망 인터넷과 '아이핏TV_H'를 운영 중이다. 알뜰폰의 경우 KT 스카이라이프 모바일 상품을 KT HCN이 위탁판매 하는 구조다.

이같은 상황에서 노조는 합병 추진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언론노조 스카이라이프지부는 지난 19일 낸 성명을 통해 "(HCN의) 지분 100%를 가진 자회사임에도 불구하고 경영진과 이사회는 KT 출신들이 장악했다. 인수는 결국 2500억원이 넘는 재무적 손실을 초래하며 스카이라이프의 경영 기반을 뒤흔들었다"고 주장했다. 인수 합병을 추진하기 이전에 경영진에 대한 책임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KT스카이라이프는 2021년 KT HCN(당시 현대HCN)을 약 5151억원에 인수했다. 당시 유료방송 시장 경쟁력 강화와 지역 기반 확대 등을 기대했지만, 인수 이후 가시적인 투자 성과는 미미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실제로 당시 경영진들은 인수 대금의 절반 수준인 2527억원을 미래에 발생할 초과 수익 가치로 인정해 최종 인수를 결정했지만, 이후 실적 부진 등으로 해당 금액의 상당 부분이 회계상 손실 처리되며 투자금 회수에 실패했다.

여기에 과거 합병을 위해 2년 전 진행한 외부 컨설팅 결과에 따르지 않은 점도 졸속 합병이라는 비판에 힘을 싣는다. 당시 컨설팅 업체는 9가지 선결과제를 우선 시행 후 판단하라고 회사에 권고했다. 노조는 해당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스카이라이프 이사회의 합병 추진 의결을 중단하라는 입장이다.

노조의 반발은 향후 정부의 합병 심사에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기업결합 심사에서는 고용안정과 시청자 보호 등 공익적 요소도 주요 검토 대상이기 때문이다.

이에 KT스카이라이프 측은 앞으로 합병 후 통합(PMI) 계획을 수립하면서도 인위적인 인력 구조조정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

KT스카이라이프 관계자는 "방송의 공공성과 이용자 보호 원칙을 충실히 이행하면서 콘텐츠 경쟁력과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투자를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민선 기자
msjo@metroseoul.co.kr

LG U+, 7개국 통신사와 해외여행 혜택 공유

해외 여행 멤버십 서비스 '원더조이'
日 돈키호테 최대 7% 할인 등 제공



LG유플러스 모델이 원더조이를 설명하고 있다. /LG유플러스

LG유플러스가 해외 통신사와 협력해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여가 혜택 확대에 나선다. LG유플러스는 글로벌 여행 멤버십 서비스 원더조이를 출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원더조이는 해외여행을 떠나는 유플러스 모바일 이용 고객에게 쇼핑·외식·교통·숙박·액티비티 혜택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기존의 제휴 쿠폰 혜택에서 나아가 방문 국가 통신사들이 발굴한 제휴 혜택을 공유하는게 특징이다.

이는 글로벌 통신사 협력 플랫폼 '원더조이 트래블 얼라이언스'를 기반으로 운영된다. LG유플러스가 한국 파트너로 합류한 얼라이언스에는 ▲일본 KDDI ▲싱가포르 싱텔 ▲홍콩 HKT ▲태국 AIS ▲대만 타이완 모바일 ▲필리핀 글로브 ▲인도네시아 텔콤셀 ▲호주 옵터스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고객들은 일본·싱가포르·인도네시아·홍콩·대만·태국·필리핀 등 해외 7개국에서 다양한 여행 혜택을 이용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일본 돈키호테는 구매 금액의 최대 7%를 할인 해준다. 빅카메라는 면세 10% 할인에 더해 추가 7%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싱가포르 그랩 트래블 패스는 공항 이동 시 50% 할인 등을 제공한다.

고객들은 LG유플러스 통합 앱 유플러스 원의 해외로밍 메뉴에서 원더조이를 이용할 수 있다. 최초 이용 시 약관에 동의하고 여행할 국가를 선택하면 이용 가능한 혜택을 확인하고 현지 제휴처에서 사용할 수 있다.

원더조이 출시 기념 혜택도 제공한다. 일본 로손 편의점에서 사용 가능한 500엔 쇼핑 이용권 등이 있다. 로밍 상품에 가입하고 원더조이 쿠폰을 내려받은 고객에게는 네이버페이 포인트 3000원을 제공한다.

이번 상품에 해외여행보험 서비스도 연계했다. 고객은 유플러스 공식온라인스토어 또는 공식 앱 해외로밍 메뉴에서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의 해외여행보험 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여러명이 함께 가입하면 최대 10%까지 할인률이 더 커진다. 또한 사고 없이 귀국할 경우 납입 보험료의 10%(최대 3만원)를 돌려주는 '안전귀국환급' 혜택도 있다.

앞으로 원더조이 혜택은 해외 출국 고객을 포함해 한국에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에게도 제공된다. 양방향 글로벌 여행 멤버십을 통해 관광객들은 LG유플러스가 발굴한 성수·한남·명동 등 국내 주요 핫스팟의 제휴 혜택과 여행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조민선 기자

LG CNS, 'AI지니어스 아카데미' 시상식

고교생 진로 설계형 프로그램

LG CNS는 지난 20일 서울 마곡 LG사이언스파크 본사에서 'AI지니어스 아카데미 챌린지데이'를 열고 시상식을 진행했다고 23일 밝혔다.

AI지니어스 아카데미는 LG CNS가 운영하는 고등학교 학생들 대상의 진로 설계형 AI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올해 행사에 참여한 고교생은 약 1300명으로, 2021년 프로그램 시작 이후 역대 최대 규모다.

수상한 학생들은 약 1년 동안 인공지능(AI), 데이터 분석, 코딩 교육을 받은 뒤 팀을 꾸려 AI를 활용한 서비스를 직접 기획하는 프로젝트를 수행한다. 이 과정에서 LG CNS 전문가들의 멘토링을 받는다.

이날 챌린지데이에서는 학생들이 개발한 AI 서비스를 시연하고 우수팀을 선정했다. 올해 총 161개 팀 가운데 10개 팀이 시상에 참여했다. AI, 사회공헌 분야 외부 전문가와 LG CNS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은 학생들이 제출한 개발 결과물과 시연 및 발표를 평가했다.

대상은 미림마이스터고등학교 학생들이 개발한 안심 귀가 서비스 '귀가 ON'이 차지했다. 귀가 ON은 주변 안전 정보를 바탕으로 보행 경로를 추천하고, 보호자에게 귀가 소식을 전달하는 서비스다.



LG CNS가 개최한 'AI지니어스 아카데미 챌린지데이'에서 대상을 수상한 미림마이스터고등학교 학생들이 AI 안심 귀가 서비스 '귀가 ON'을 시연하고 있다. /LG CNS

최우수상은 수도전기공업고등학교, 우수상은 광주수피아여자고등학교 학생들이 각각 수상했다.

이 밖에 학생들은 부동산 계약 시 AI가 위험 요소를 미리 알려주는 AI 안심 주거 서비스, 어르신의 정서적 교감과 인지·신체 재활을 돕는 탁상형 휴머노이드 로봇, 화재 발생 시 진동으로 최적의 경로를 안내하는 시각장애인용 AI 지팡이 등 일상 속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선보였다.

AI지니어스 아카데미는 2021년부터 올해까지 약 3000명의 고등학생에게 교육을 제공했으며, 참여 학교는 약 180개교에 이른다.

/조민선 기자

공공기관 필수정보 '헬로tv뉴스'서 확인

LG헬로비전, AI로 공공데이터 수집
전국 CCTV 연동 안전 골든타임 확보

LG헬로비전은 지역채널 '헬로tv뉴스'에 인공지능(AI)을 적용해 공공기관의 필수 정보를 전달한다고 23일 밝혔다.

회사 측은 AI로 공공 데이터를 수집·가공해 지역 내 정보 영역을 넓히고, 또한 현장 기자의 심층 취재를 강화해 지역민에게 실질적인 뉴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AI를 사람의 역할을 대체하는 도구로 사용하기보다, 새로운 정보 영역을 여는 확장의 도구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청, 국토교통부, 국립공원공단 등 공공기관의 방대한 데이터를 인공지능(AI)으로 수집·분석해 지역민의 실생활과 안전에 필요한 정보를 전달한다. 지역민의 생명과 직결된 재난 정보 전달 체계를 AI로 고도화한다.

전국 8000여 곳의 CCTV 화면을 실시간 연동해 산불 및 태풍 등 재난 발생 시 현장 영상을 특보에 즉각 노출한다. 재난 발생부터 특보 송출까지의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여 지역민 안전을 위한 골든타임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민들이 일상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동네 밀착 콘텐츠를 대폭 늘렸다. AI를 활용해 대표 콘텐츠 '우리동네NOW'에서 보도하는 지자체 및 지역 단신 소식을 음성 변환해 송출한다. 사진·영상 자료를 찾아 매칭해 제작하면, 사람이 검수해 수시로 방송에 내보내는 방식이다.

새로운 콘텐츠도 소개한다. 공공기관의 실시간 정보를 바탕으로 ▲주말 나들이와 지역 명소를 소개하는 '축제NOW 여기어때' ▲지역 주요 이슈를 빠르게 전하는 숏폼 뉴스 '숏픽NOW' ▲날씨 연계 생활 정보를 전하는 '날씨와 생활' 등이 대표적이다.

/조민선 기자

안랩, 디지털 포렌식 분야 전문성 입증

'KDFS 챌린지 2026' 우수상

안랩은 지난 9일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열린 'KDFS 챌린지 2026'에서 자사 연구 인력이 참여한 '먼데이'팀이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23일 밝혔다.

KDFS 챌린지는 한국디지털포렌식학회가 2014년부터 매년 주최하는 디지털포렌식 문제풀이 대회다. 올해는 일반(민간)·공공·학생 트랙으로 나눠 랜섬웨어 감염, 정보 유출, 가상자산 탈취 등 실제 보안 사고와 수사 사례를 기반으로 한 문제 해결 역량을 평가했다.

이번 대회에서 안랩 소속의 김승학 A-FIRST팀 매니저와 이준규 A-CERT팀 매니저는 타사 구성원과 함께 먼데이(Monday)팀을 꾸려 전체 3위, 일반 트랙 1위로 우수상(경찰청장상)을 받았다.

특히 제한된 시간에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방대한 데이터를 해석하고, 다양한 디지털 증거 간 연관성을 파악해 사건의 발생 경위와 사실관계를 규명해내며 실전 분석 역량을 발휘했다.

안랩은 KDFS 챌린지에서 2024년 우수상, 2025년 최우수상에 이어 올해까지 3년 연속 수상에 성공하며 디지털 포렌식 분야 전문성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는 설명이다.

/조민선 기자

국민성장펀드 3개월 성적 -4.17%… 국민 기대에 찬물

설정액 1조1190억, 순자산 1조943억
정부-운용사 후순위 출자금 20% 부담
일부 펀드 완충 범위 초과 우려도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가 2차 판매를 시작한 지난 9월 30일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 전광판에 국민성장펀드 안내가 표시돼 있다. /뉴시스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의 3개월 수익률이 -4.17%로 집계됐다. 일부 자펀드에서는 정부와 운용사가 손실을 약 20%까지 먼저 떠안도록 설계한 완충 범위를 넘어서 원금이 훼손됐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만, 성장펀드는 폐쇄형이라 5년 만기가 돼야 최종 손익 여부가 가려진다.

23일 펀드평가사 에프앤가이드가 집계한 국내 전체 펀드 유형별·테마별 평균수익률 자료를 보면, 지난 20일 기준으로 공모 국민성장펀드(6개)의 3개월 수익률은 -4.17%로 나타났다. 국민성장펀드 설정액은 1조1190억원, 순자산은 1조943억원이다.

펀드 테마별로 다른 주요 펀드의 같은 기간 평균수익률을 보면, 국내주식형펀드(설정액 122조원) -23.06%, 국내 채권형펀드(96조원) 0.75%, 레버리지펀드(35조원) -41.33%, 퇴직연금펀드(45조원) -9.51%, 연금저축펀드(16조원) -12.23% 등이다.

기준가격으로 볼때도 상황은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서비스에 따르면 20일 기준 성·KB·미래에셋자산운용의 1차 국민성장펀드 기준가격은 가입 클래스별로 951.25~952.08원이다. 운용사별 4개씩 총 12개 클래스 모두 6월 12일 설정가인 1000원보다 4.79~4.88% 낮았다. 설정 당시 1000만 원을 투자했다면 기준가격으로 환산한 평가액은 약 951만~952만 원이다.

1차 국민성장펀드는 인공지능(AI), 반도체, 바이오, 이차전지, 로봇 등 12대 첨단전략산업에 투자한다. 상장주식 약 10~30%, 비상장주식 약 15~45%, 그리고 채권, 인프라 대출, 확정금리부 금융상품 등으로 투자 운용되는 것으로 알려진다. 손실이 발생할 경우 정부 재정과 자펀드 운용사의 후순위 출자금이 약 20% 안팎을 먼저 흡수, 부담한다.

금융위는 국민참여성장펀드가 5년 만기 폐쇄형 펀드인 만큼 단기 수익률보다 장기적인 운용 성과를 평가해야 한다고 했다. 펀드에 비상장주식과 메자닌처럼 바로 가치를 매기기 어려운 자산이 섞여 있고 자산별로 가치평가 시점도 달라 의미 있는 투자 성과를 확인하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운용사들은 향후 자펀드의 투자 자산과 비중 등을 점검하고 위험관리 절차에 따라 운용 상황을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자산운용보고서는 앞으로 3개월 주기로 공시된다.

한편,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국민참여성장펀드가 가장 많이 투자한 자산은 상장주식(28.4%)이었다. 상장 메자닌(10.1%), 비상장 메자닌(4.6%), 비상장 주식(0.7%)이 그 뒤를 이었다. 산업별로는 반도체 주식과 메자닌 등에 총 16.1%를 투자했다. 헬스케어(7.7%), 산업재(5.9%)가 그다음이었다. 현금성 자산이 국민참여성장펀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9.7%로 집계됐다. /김아영 기자

aykim@metroseoul.co.kr

배재규 "AI, 20년 산업 이끌 메가트렌드"

〈한국투자신탁운용 사장〉

AI 밸류체인 담은 TDF 출시 세미나
피지컬 AI 등 7개 분야에 분산 투자
"단기 보다 장기 성장성에 주목해야"



배재규 한국투자신탁운용 대표가 23일 열린 한국투자신탁운용 신규 생애주기펀드(TDF) 출시 기념 세미나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한국투자신탁운용

"현재 우리는 인공지능(AI)이라는 새로운 기술이 주도하는 변화의 과도기에 서 있다. AI는 향후 20년 이상 산업 전반의 변화를 이끌 메가트렌드인 만큼, 단기적인 시장 변동에 흔들리기보다 미래 성장 방향에 집중해야 한다."

배재규 한국투자신탁운용 사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 서울에서 개최한 신규 타깃 데이트 펀드(TDF) 출시 기념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AI 패러다임 변화에 발맞춘 장기 연금 투자 솔루션을 제시하고, 최근 새롭게 선보인 한국투자연금적격TDF알아서글로벌AI밸류체인 펀드의 투자 철학과 운용 전략을 소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배 사장은 "이번에 선보인 TDF는 AI 밸류체인에 집중 투자해 전통적인 글로벌 자산 중심의 기존 TDF와 차별화된 투자 전략을 추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수한 장기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미래 성장에 장기 투자한다는 당사 투자 철학을 바탕으로 기술 혁신이 만들어 낼 부의 기회에 주목했다"고 강조했다. 지난 13일 출시된 이번 펀드는 은퇴 목표 시점(빈티지)에 따라 2050·2060·2070 등 3종으로 구성됐다.

이어 정지훈 DGIST 교수는 '투자 관점에서의 AI 기술 발전과 문명사적 임팩트'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정 교수는 "현재 AI 사이클은 인프라 설비를 구축하는 '구축기'에서 서비스와 실질적인 이익을 거둬들이는 '수확기'로 진입하고 있다"며 "특히 반도체와 데이터센터 등 AI 인프라에서 피지컬 AI로 산업 생태계가 확장돼 시장 규모가 커질 것"이라고 투자 시사점을 짚었다. 특히 실물 제조 기반의 가치를 강조하며, 파운더리·패키징의 대만, 메모리·제조업의 한국, 소재·장비의 일본이 피지컬 AI 시대에 생산 거점으로서 핵심 우위를 점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강성수 한국투자신탁운용 솔루션본부장은 한국투자TDF알아서글로벌AI밸류체인 펀드의 투자 전략을 소개했다. 해당 펀드는 장기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글로벌 AI 밸류체인 투자와 TDF의 생애주기별 자산배분 기능을 결합한 상품이다. 반도체, 전력인프라, 데이터센터·클라우드, 네트워크, 에이전틱 AI, 피지컬 AI 등 7개 분야에 분산 투자하고, 한국·대만·일본 등 아시아 주요 국가에도 투자해 지역적 분산 효과를 추구한다.

또한 글라이드 패스를 통해 은퇴 시점에 맞춰 위험자산 비중을 조정하며, AI 산업 내 주도 분야와 기업이 변화하는 점을 고려해 밸류체인별 성장 단계와 시장 환경, 종목별 상대가치 분석을 바탕으로 투자 비중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도록 설계했다.

강 본부장은 "이번 신상품은 특정 기업이나 기술에 대한 집중투자보다 AI 산업을 구성하는 다양한 밸류체인에 분산투자해 산업 내 주도권 변화에 대응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수한 연금성과를 추구하는 투자 솔루션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하은 기자 godhe@

두나무, AI·블록체인으로 시장 디지털 혁신

중기청·소진공과 아이디어 공모전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가 지난 2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지역본부와 함께 '2026년 전통시장 디지털 혁신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시상식에는 오경석 두나무 대표를 비롯해 각 기관장들이 참석했다.

이번 공모전은 AI, 블록체인 등 디지털 기술의 활용이 확대되는 가운데 오랜 역사와 노하우를 축적해 온 전통시장이 기술을 통해 새로운 성장 기회를 모색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특히 청년들의 시선에서 전통시장의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찾는 데 중점을 뒀다.

공모전은 서울 소재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AI 기술을 활용한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두나무의 기업용 블록체인 플랫폼 'GIWA(기와)' 등을 활용한 디지털 혁신 방안 등 2개 분야로 나뉘어 진행됐다.

최종 심사 결과, 전통시장 현장에 즉각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4개 팀이 수상했다. 이 중 두나무의 기술적 비전과 가장 맞닿아 있는 '업비트(GIWA)상'은 성균관대학교 최준렬, 윤현아 학생이 차지했다. 이들은 분산된 지역화폐와 디지털온누리상품권을 하나의 앱으로 통합하고, 스마트컨트랙트를 통해 환급 절차를 자동화하는 플랫폼 '마켓체인'을 제시했다. 나아가 원화 스테이블코인 기반 결제 시스템으로의 확장 가능성까지 선보여 두나무 임직원 및 심사위원들의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 외에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FC 망원 킥오프' 팀 - 망원월드컵시장 연계 게임형 마케팅)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상('만세장터' 팀 - AI 도슨트 기반 역사·관광 연계 서비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상('알고 가는 시장' 팀 - AI 활용 재고관리 및 고객 안내 서비스)이 각각 수여됐다. /신하은 기자



교보증권은 지역아동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임직원 참여형 사회공헌 프로그램 '해피쿠킹(Happy Cooking)'을 진행했다고 23일 밝혔다. /교보증권

교보증권, 직접 만든 간식으로 온정 나눔

임직원 사회공헌 프로그램 진행

교보증권은 지역아동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임직원 참여형 사회공헌 프로그램 '해피쿠킹(Happy Cooking)'을 진행했다고 23일 밝혔다.

'해피쿠킹'은 임직원들이 직접 간식을 만들어 지역아동들에게 전달하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이번 활동에 참여한 임직원들은 식재료 손질부터 조리, 포장까지 전 과정에 참여해 오란다 과자 100세트를 제작했다.

완성된 간식은 비영리단체 '함께하는 한숲'을 통해 안양시 지역아동복지센터에 전달됐다.

교보증권 관계자는 "임직원들이 직접 만든 간식에 아이들을 향한 따뜻한 마음을 담았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아영 기자

빗썸, 국세청 379억 과세소송 일부 승소

218억 세금 취소로 부담 덜어
이벤트 지급 코인 등은 과세 인정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국세청을 상대로 제기한 379억원 규모의 조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국내 거래소를 통해 이뤄진 거래라는 이유만으로 비거주자의 가상자산 관련 소득을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고, 당시 명확한 회계기준이 없었던 가상자산의 평가 방식도 회사의 재량을 인정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다만 회원 유치를 위해 지급한 이벤트 보상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봤다.

23일 디지털자산업계 및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영민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빗썸이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기타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에 따라 당초 부과된 세금 중 약 218억원은 취소되고, 이벤트 지급분에 대한 세금 약 30억원은 유지된다.

이번 소송은 2023년 국세청이 빗썸에 부과한 세금의 적법성을 둘러싸고 진행됐다. 서울지방국세청은 같은 해 1~4월 세무조사를 실시한 뒤 6월 기타소득세 약 86억원과 법인세 약 293억원 등 총 379억원을 부과했다.

재판부는 비거주자 회원에 대한 과세가 법적 근거를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국내 거래소에서 거래가 이뤄졌다는 사실만으로 가상자산 관련 소득을 국내원천소득으로 간주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가상자산 거래정보가 특정 국가의 서버에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분산돼 있다는 특성을 반영한 것이다.

재판부는 비거주자의 가상자산 관련 소득을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하는 규정이 2020년 말 별도로 신설된 점도 고려했다. 해당 개정은 기존 과세 규정을 구체화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납세의무를 부과한 성격인 만큼, 개정 이전인 2018년 지급분에 소급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가상자산 과세 규정이 2020년 말 신설되긴 했지만 시행은 2027년까지 미뤄진 상태다. /신하은 기자

저탄소 인증에 AI 기술 더해… 축평원, 미래 축산 경쟁력 강화

해외 저탄소 인증제 비교·분석
그린워싱 방지·온실가스 검증 제안
동물복지 등 기존 인증 연계 제시
26일 AI·데이터 축산 혁신 포럼
품질평가 고도화·맞춤 서비스 공유


세종 아름동 소재 축평원 본원.

축산물품질평가원이 해외 주요국의 저탄소 축산물 품질인증제 사례를 모아 책자로 펴냈다. 국내 인증제 개선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축평원은 또 AI 기반의 신규 서비스 및 기술혁신 사례 공유를 위한 포럼을 이번 주 개최한다.

축평원은 '해외 저탄소 축산 및 축산물 품질 인증제'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는 미국, 브라질, 호주, 유럽연합(EU) 등 해외 주요국의 저탄소 축산물 인증 기준과 인증제 운영 사례에 대한 비교·분석이 담겼다. 국내 축산물 품질 인증 제도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친환경 표시·광고와 관련해 그린워싱 방지를 위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해외 축산물 인증 제도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축산물의 친환경성을 강조하는 것뿐 아니라,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과정이 중요해지고 있다. 그린워싱(친환경 위장 광고)이란 친환경적 특성이나 환경 개선 효과를 실제보다 과장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표시·홍보하는 행위를 말한다.

미국의 경우, 육류의 환경 관련 표시 지침을 개정해 제품에 표시한 친환경 정보의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출과 외부 전문 기관의 검증을 권고하고 있다. 유럽연합(EU)도 소비자가 축산물의 환경적 효과를 오해하지 않도록 '탄소중립' 표시·광고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다.

축평원은 "동물복지와 환경 등을 고려하는 가치소비가 확산되면서 축산물을 판단하는 기준도 달라지고 있다"며 "해외 주요국에서는 육질과 외관뿐 아니라 가축에게 어떤 사료를 먹이고, 어떤 환경에서 길렀는지도 축산물 품질 인증 기준에 반영한다"고 설명했다.

호주는 국가 비육장 인증제(NFAS)를 통해 소 한 마리당 사육 공간과 사료 급여량 등으로 비육장의 관리 상태를 점검한다. 유럽연합(EU)은 산란계의 사육 공간을 1㎡당 9마리를 넘지 않도록 제한한다.

보고서는 이러한 해외 사례를 바탕으로 국내 저탄소 축산물 인증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온실가스 감축 검증 체계를 마련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또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안전관리인증(HACCP) 등 기존 인증 제도와 연계해 농가의 서류 제출 부담을 줄이는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박수진 축산물품질평가원장은 "이번 보고서는 해외 저탄소 축산과 축산물 인증 제도 사례를 통해 지속 가능한 축산을 구현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며 "국내 축산업 발전과 유통정책 수립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AI 시대, 미래 축산을 위한 행보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축평원은 오는 26일 세종 소재 축산물품질평가원 본원 에서 '2026 축산데이터 혁신 서비스 포럼'을 개최한다.

행사 주제는 '데이터의 가치를 넘어, 축산의 미래를 바꾸다'이다. AI·데이터 기반 신규 서비스와 기술혁신 사례 소개 및 축산 현장의 데이터 활용 성과 및 향후 발전 방향을 공유하기 위한 자리다.

행사는 '1부: AI 기술과 신규 서비스로 축산의 미래를 열다'와 '2부: 데이터의 연결, 현장의 변화를 이끌다'로 나뉘어 진행된다.

1부에서는 AI 기술을 접목한 축산물 품질평가 혁신 성과와 축산데이터 기반 신규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특히, 객관성과 정확성을 높인 AI 품질평가 고도화 사례와 농가별 맞춤형 경영관리 서비스 등 축산업의 디지털 혁신 방향을 소개한다.

2부에서는 공공데이터와 민간기업 데이터의 융합을 통한 AI 분석 서비스 성과를 공유한다. 또 2026년 축산 피드백 사업의 혁신 성과와 지역별 현장 적용 사례를 소개하고, AI·데이터 기반 피드백 서비스의 활용 확산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축평원은 이번 포럼을 계기로 축산 데이터의 연계·분석·활용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농가 맞춤형 서비스 확산을 통해 축산업 전반의 스마트화를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박수진 원장은 "이번 포럼은 AI와 데이터 기술이 축산 현장에서 거둔 실질적인 성과를 공유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기관이 보유한 고품질 데이터를 활용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AI·데이터 기반 서비스를 확대해 축산업의 혁신과 경쟁력 강화를 이끌어 가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한전, 152만명 개인정보 유출에 대국민 사과

고객 65만명·조달시스템 87만명 피해
주민번호·계좌번호 등 민감정보 포함
2차 피해 예방·보안체계 전면 재점검



한국전력이 외부 사이버 공격으로 고객과 임직원·협력사 등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문을 내고 피해 예방과 보안 체계 전면 재정비에 나섰다.

23일 한전에 따르면, 한전은 지난 20일 전산시스템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확인하고 외부 IP 접속 차단과 일부 대외 서비스 잠정 중단 조치를 취한 뒤, 22일 김동철 사장(사진) 명의의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한전은 사고 인지 직후 비상대책 종합상황실을 가동하고 관계기관 신고와 함께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유출이 확인된 시스템은 전기요금 조회·납부 플랫폼 '한전ON'과 구매·공사·용역 조달 업무용 '전자조달시스템(SRM)'이다. 한전ON에서는 전기사용 고객 65만 487명의 정보가 유출됐다. 고객번호와 성명, 전화번호, 주소, 요금·청구정보뿐 아니라 주민·외국인등록번호와 은행명·계좌번호·예금주명, 카드사·카드번호·카드명의자 등 금융·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 총 12개 항목이다.

SRM에서는 총 86만9761명분의 정보가 유출됐다. 기업 대표자 42만6827명의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이메일, 회사 주소(4개 항목)와 한전 직원 및 기업 직원 44만2934명의 성명, 소속, 사번,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회사전화번호(6개 항목)가 포함됐다.

한전은 간편인증 등 개방형 디지털 서비스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고객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제공해 온 일부 기능이 AI 등 첨단기술을 악용한 외부 사이버 공격의 표적이 된 것으로 추정했다. 현재까지 파악된 2차 피해는 없으나, 계좌·카드번호 등 금융정보 유출 우려를 감안해 정부 및 금융당국과 정보를 공유하고 이상거래 탐지 강화와 추가 보호조치 필요성을 협의할 계획이다.

한전은 유출 확인 대상자에게 유출 항목과 사칭 전화·문자·이메일 대응 요령 등을 개별 안내했으며, 개인별 실제 유출 항목은 다를 수 있는 만큼 '한전ON 홈페이지'에서 유출 여부 조회 및 피해 접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관련 문의는 한전 고객센터(123)와 전자조달시스템 전용 상담 창구로 받는다.

김동철 사장은 사과문에서 "고객의 소중한 정보를 완벽히 지키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며, 이번 사고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번 사고를 계기로, 외부 전문기관의 객관적 진단을 바탕으로 개인정보 보호 체계 전반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마사회, 정부혁신박람회서 말문화 알린다

25~27일 킨텍스서 체험형 전시 운영

한국마사회가 2026 정부혁신박람회에 참가해 '말문화를 활용한 미래교육 및 기관의 주요 혁신성과'를 국민 앞에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이 행사는 이달 25~27일까지 사흘간 고양 킨텍스에서 개최된다. 박람회에서 한국마사회는 '말(馬)이 되는 혁신, 말문화와 함께하는 미래교육'을 주제로 전시부스를 운영할 예정이다. 국민이 직접 보고 체험하며 말문화의 가치를 이해할 수 있도록 체험형 전시를 구성하고, 기관의 혁신성과를 국민과 공유하는 소통의 장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전시부스에서는 말과의 교감을 통해 정서적 안정과 힐링의 경험을 제공하는 '말랑말랑 마음교실'을 소개하고 박람회 방문객을 대상으로 체험교육을 시행한다. 또 AR(가상현실) 기술을 활용한 말 포토존 등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를 통해 대국민 대상으로 일상속 말문화 경험을 확장하고자 하는 기관의 노력을 알린다.

아울러 마사회가 연간 추진해 온 혁신사례와 국정과제 실적을 전시·홍보하고 국민 참여형 투표도 진행한다. 방문객이 성과를 살펴보고 직접 우수사례 선정에 참여하도록 한다. 국민의 시각에서 혁신의 가치를 평가하고 공유하는 방식이다.

마사회는 이번 박람회 참가를 계기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 혁신과 말문화 확산을 사업을 소개하고, 현장 중심의 소통을 통해 향후 혁신과제 발굴에도 활용할 계획이다. /세종=김연세 기자

韓日, 노동시간 단축·생산성 향상 해법 모색

노사발전재단, 韓·日 노사정 심포지엄

한국과 일본의 노동 관련 기관이 만나 양국의 고용노동 정책 및 사례를 공유하고 공통의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노사발전재단은 도쿄에서 '노동생산성 향상, 지속가능일터 조성, 실노동시간 단축'을 주제로 한·일 노사정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양국의 노동계·경영계·정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지난 19일 열린 행사에서 참석자들은, 양국이 공동으로 추진한 실노동시간 단축 관련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정책 경험 및 기업의 실천 사례를 공유했다. 또 노동생산성 향상 및 지속 가능한 일터 조성을 위한 협력 방향을 모색했다.

박종필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은 개회사에서 "실노동시간 단축은 단순히 노동시간을 줄이는 것을 넘어 노동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기업의 생산성을 향상하는 중요한 과제"라며 "이번 한·일 공동연구와 심포지엄이 양국의 정책 경험과 기업 현장의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의미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노사발전재단은 한·일 양국의 지속적인 노사정 교류와 협력을 통해 고용노동 분야의 공동 발전과 지속 가능한 일터 조성에 이바지하겠다"고 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실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정책'을 주제로 일본의 타카미 토모히로 연구원이 '일하는 방식 개혁에 대한 정책'에 대해 발표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실노동시간 단축과 기업의 인사관리체계의 변화'를 주제로 일본의 오학수 특임연구원이 일본 기업의 실노동시간 단축 우수사례를, 남궁준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이 한국 기업의 우수사례를 소개했다.

재단은 이번 일본 방문 기간 주일본대한민국대사관 및 코트라(KOTRA) 도쿄무역관과도 면담했다. 면담에서는 AI를 활용한 '해외노동정보 AI' 구축 방안 등을 논의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에너지 미래인재 육성 위한 진로교육 확대

에기평, 체험형 에너지 교육 개발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하 에기평)이 대학(원)생 중심의 에너지인력양성사업 저변을 초·중·고 학생과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으로 넓히기 위해 진로탐색 콘텐츠 개발과 교육기부 활동을 확대하고 있다.

23일 에기평은 서울에너지드림센터와 공동으로 체험형 진로교육 프로그램 '출동! e-히어로즈, 기후위기 탈출작전'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직업흥미검사를 통해 자신의 적성과 흥미에 맞는 에너지 분야 직업을 찾아보는 워크북과, 기후·에너지 위기 상황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에너지 직업의 역할을 익히는 보드게임으로 구성됐다.

에기평은 올해 강남구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와 협력해 상·하반기에 걸쳐 지역 내 4개 학교 자유학기제 학생 112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서울에너지드림센터 전문강사와 에기평 사내강사가 함께 참여한 이 교육에서 학생들의 만족도는 평균 약 92점으로 집계됐다.

아울러 에기평은 지난달(11월) 세이브더칠드런과 손잡고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으로 교육기부 대상을 넓혔다. 참여 학생들은 아동 참여형 기후위기 대응 캠페인 '도전 레드벨'을 통해 기후행동을 실천해 온 아동·청소년들이다.

서울에너지드림센터와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해당 프로그램에서는 기존 대학 탐방형 교육기부에 자체 개발 워크북과 보드게임을 결합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NARA CELLAR
역시!
몬테스
MONTES ALPHA
CABERNET SAUVIGNON
VALLE DE COLCHAGUA·CHILE
ALPHA
역시!
몬테스
2025 브랜드 고객충성도 대상
와인 부문 2년 연속 1위
※지나친 음주는 뇌졸중, 기억력 손상이나 치매를 유발합니다. 임신 중 음주는 기형아 출생 위험을 높입니다.

“제설부터 난방비 지원까지”… 전남광주, 겨울철 안전망 강화

제설 취약 199개 노선 중점관리
한파쉼터 9184곳·대피소 33곳 가동
취약계층 보호 16개 복지사업 시행
경로당 난방비·돌봄 서비스 강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청사.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본격적인 동절기를 맞아 대설과 한파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를 막기 위해 선제적 재난 대응 체계를 가동한다. 아울러 1977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어르신과 장애인, 저소득층 등 한파 취약계층의 안전한 겨울나기를 돕는 맞춤형 복지 대책을 병행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따르면 시는 내년 3월15일까지를 ‘대설·한파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기상 특보 발효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업체계를 구축했다.

우선 폭설로 인한 교통 마비와 고립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도로 제설 역량을 집중한다. 시는 전체 제설 대상 도로 9090㎞ 가운데 고갯길이나 교량 등 교통 두절 우려가 있는 199개 노선(472.8㎞)을 중점관리구간으로 지정해 집중 점검에 나섰다.

현장 대응을 위한 자원과 매뉴얼도 정비했다. 시는 제설제 1만8791t과 제설 장비 2237대, 인력 3462명을 확보해 기상 상황에 따라 단계별로 투입한다. 강설 예보 시 눈이 내리기 2시간 전 제설제를 미리 살포해 도로 결빙을 차단하고, 강설 중에는 3시간 간격으로 반복 제설 작업을 벌일 계획이다.

제설 사각지대 해소와 물류 흐름 유지에도 주력한다. 대형 장비 진입이 어려운 마을 안길과 이면도로에는 민간 장비와 인력을 투입해 주민 통행 불편을 줄인다. 지역 경제와 직결된 산업단지 주변 도로는 화물·물류 차량의 원활한 이동을 위해 출근 시간 전인 오전 3~4시 사이에 집중 제설을 실시한다.

한파로 인한 인명 피해를 막기 위한 현장 밀착형 보호 대책도 본격화된다. 시는 한파 쉼터 9184곳과 한파 응급대피소 33곳을 지정·운영한다. 취약노인 7만8000명과 노숙인, 쪽방촌 주민을 대상으로 안부 확인을 강화하는 한편, 현장에서 활동하는 생활지원사 4934명에게 추가 활동비와 방한용품, 쉼터 운영비 등을 지원해 돌봄 공백을 최소화한다.

재난 대응과 함께 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대규모 복지 사업도 펼쳐진다. 시는 내년 2월까지 총 1977억원을 투입해 16개 복지 사업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경로당 1만711곳에 5개월간 월 40만원씩 난방비를 지원하고, 노인 맞춤돌봄서비스와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통해 어르신의 안전을 상시 확인한다. 생계가 어려운 취약계층은 27개 시·구·군이 운영하는 먹거리 지원 공간 ‘그냥드림’ 224곳에서 먹거리와 생필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돌봄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가구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보호자가 일시적으로 부재한 장애인에게는 활동지원급여를 추가로 지급하며, 사회복지시설 1만1618곳을 대상으로 겨울철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 또한 민·관 협력 조직인 ‘우리동네 복지기동대’를 중심으로 취약계층 1만4500가구에 노후 난방 시설 수리와 화재 예방 물품을 지원한다.

시는 기관 간 공조 체계를 다지기 위해 다음 달 1일 시·구·군, 도로 건설부서, 소방·경찰, 기상청 등 37개 부서 50명이 참여하는 ‘대설·한파 재난대응 역량 강화 워크숍’을 열고 현장 대응 매뉴얼을 최종 점검할 예정이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관계자는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 체계를 유지하며 대설·한파 피해 예방과 현장 대응, 겨울철 취약계층 보호에 적극 나서겠다”며 “올겨울 시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전남광주=양수녕 기자 ysn6313@metroseoul.co.kr

전남광주, 무안국제공항 통합 추진 본격화

내년 말까지 국내선 통합 이전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내년 말까지 광주공항 국내선을 무안국제공항으로 통합 이전하기 위한 종합대책 마련에 본격 착수한다. 올해 연내 확정·고시될 예정인 정부의 ‘제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2026~2030년)’에 지역 핵심 항공 현안을 반영해 서남권 관문 공항의 위상을 확립하고 남해안권 항공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겠다는 구상이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 안으로 제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이 확정·고시되는 일정에 맞춰 무안국제공항 통합·이전 종합계획 수립에 나선다.

이번 계획의 핵심은 광주공항 국내선 기능을 내년 말까지 무안국제공항으로 통합 이전하는 것이다. 이는 지역 최대 숙원인 민·군 공항 통합 이전의 일환이자, 무안군이 광주 군공항 이전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한 ‘3대 선결 조건’ 중 하나를 이행하는 핵심 절차다.

시는 ‘12·29 여객기 참사’ 이후 장기 폐쇄 상태에 놓인 무안국제공항이 호남고속철도(KTX) 2단계 개통 시점에 맞춰 2027년 말 재개항할 예정인 만큼, 이 시기에 발맞춰 광주 민간공항 기능을 차질 없이 이전한다는 로드맵을 세웠다. 시는 재개항 전까지 안전성 저하가 확인된 무안공항의 활주로와 각종 운항시설물에 대한 보수·개축 공사를 모두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동부권 거점인 여수공항의 안전성과 운항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활주로 연장 사업도 속도를 낸다. /전남광주=양수녕 기자

경북도, 전기차 충돌안전 기술센터 준공

경산지식산업지구에 시험시설 구축

경북도는 지난 20일 경산지식산업지구에 ‘전기차 충돌안전부품 기술센터’를 준공했다고 밝혔다. 센터는 충돌 후 배터리 파손·화재 위험과 차체 안전성을 시험하고 자동차부품업체의 미래차 시장 진입을 지원한다.

센터는 2023년 4월 산업통상부 공모에 선정된 ‘xEV 보호차체 얼라이언스 기업지원 플랫폼 구축’ 사업으로 건립됐다. 센터 건립과 기업 기술고도화에 2027년까지 총 222억 원이 투입된다.

xEV 보호차체는 배터리 케이스와 하부 프레임 등 전기차 배터리를 보호하는 차체 하부구조물이다. 센터는 가상설계해석 시스템, 3차원 역설계 시스템, 레이저 용접 장비 등 10종을 갖췄다.

기업은 충격 가속 슬레드 장비를 활용해 보호차체 충돌·변형을 모사하고 관련 규정에 대응할 수 있다.

센터는 자동차안전도평가(KNCAP)에 대응해 전기차 하부 직접 충돌 검증 시스템과 충돌 후 배터리 파손·화재를 평가하는 지연화재 안전성 평가 시스템도 구축한다.

경북도는 내연차 중심의 차체·섀시 부품기업이 xEV 보호차체 분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협의체를 구성해 기업 간 협력과 충돌안전 대응을 지원한다.

준공식에서는 현대자동차 실차로 충돌시험 장비를 가동해 배터리와 시트 등 부품의 변형 상태와 안전성을 시험하는 과정을 공개했다. 조지연 국회의원, 김민석 경북도 정책실장, 조현일 경산시장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경북=김준한 기자 kih9@


최혜민 광명시 부시장(사진 앞줄 왼쪽에서 네 번째)이 현지시간 20일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시청에서 커크 왓슨(Kirk Watson) 오스틴시장(사진 앞줄 왼쪽에서 다섯 번째)과 공식 면담을 갖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광명시

광명시, 美 오스틴시와 교류협력 확대

자매결연 25주년 맞아 협력 논의
문화·교육·경제 분야 교류 강화

광명시가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시와 자매결연 25주년을 맞아 문화예술·교육·경제 분야의 교류협력 확대에 나섰다.

시는 현지시간 20일 오스틴시청에서 커크 왓슨(Kirk Watson) 오스틴시장과 공식 면담을 갖고 지난 25년간의 교류 성과를 공유하며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면담에는 오스틴시 자매결연 25주년 기념행사에 공식 초청받아 미국을 방문한 최혜민 광명시 부시장과 대표단이 참석했다.

양 도시는 기존 친선교류를 넘어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협력사업을 발굴하기로 뜻을 모았다.

특히 문화예술단체 교류와 공연·축제 협력, 문화관광 콘텐츠 활성화 등 양 도시의 특성을 살린 사업을 논의했다. 교육·청년·경제 분야에서도 협력을 확대하고 지방정부와 민간단체가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국제교류 방안을 모색했다.

또한 오스틴시의 문화산업 육성과 국제행사 운영 경험을 공유하고, 문화예술 교류를 지역경제 및 관광 활성화로 연결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광명(경기)=김예원 기자 ywon@

파주시, 장단콩축제 30주년 맞아 행사 풍성

27~29일 임진각광장서 개최

파주시 대표 농산물 축제인 ‘제30회 파주장단콩축제’가 오는 27일부터 29일까지 사흘간 임진각광장과 평화누리 일원에서 열린다. 올해는 파주시 시 승격 30주년과 축제 30회가 겹치는 만큼 장단콩 직거래와 체험 프로그램을 비롯해 600m 가래떡 나눔 등 기념행사도 마련된다.

파주시가 주최하고 파주장단콩축제추진위원회가 주관하는 올해 축제는 ‘콩으로 채우는 건강, 장단콩으로 잇는 미래’를 주제로 진행된다.

행사장에는 총 342개 부스가 운영된다. 농특산물·가공품 판매 105개, 전문음식 104개, 시정·체험·운영 133개 부스로 구성된다. 축제 공간은 ‘알콩·달콩·놀콩·살콩’ 등 4개 테마로 나눠, 장단콩의 유래와 역사를 소개하는 전시관과 축제 30회 기념 영상이 운영되며, 농산물 가공품을 판매하고 향토음식 판매점도 마련된다. 또한 체험 프로그램과 체험공간도 운영된다. 파주 농특산물 판매장과 재래장터도 열린다. 축제 첫날인 27일에는 파주장단콩 서리태 신품종 ‘평화흑청’ 선포식이 진행된다. /파주(경기)=안성기 기자 ask9990@

지역 이모저모

경기도

지역화폐 부정유통 집중단속

경기도는 경기지역화폐의 부정유통을 차단하고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11월 23일부터 12월 11일까지 3주간 도내 지역화폐 가맹점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지역화폐 부정거래를 예방하고 가맹점의 올바른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추진된다. 경기도와 31개 시군은 단속반을 편성하고,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에서 확인된 의심 거래와 부정유통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례를 중심으로 가맹점을 점검할 계획이다. /경기=김대의 기자 dykimi@

포항시

불빛축제서 AI 미래비전 선봬

포항시는 지난 21일 영일대해수욕장에서 열린 ‘2026 포항국제불빛축제’에서 특별 홍보 영상을 상영하고 시민과 관광객에게 ‘Steel & AI 수도 포항’ 비전을 알렸다. 시는 대한민국 산업화를 이끈 철강산업에 인공지능(AI)을 접목해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AI 신산업을 성장동력으로 육성한다는 구상을 영상에 담았다. 전국에서 모인 관람객들이 포항의 산업 역사와 앞으로의 산업 변화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마련했다. 포항시는 영상 상영을 통해 철강을 기반으로 성장해 온 포항이 AI를 지역 산업에 접목하는 방향을 소개했다. /포항(경북)=김진곤 기자 jingon@

경주시

신라왕경 복원사업 자문위 출범

경주시가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의 홍보와 시민 소통을 위해 자문위원회를 출범시켰다. 경주시는 지난 20일 시청 알천홀에서 자문위원 위촉식과 사업보고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주낙영 경주시장과 김석기 국회의원, 임활 경주시의회 의장, 도·시의원, 자문위원, 시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시는 문화유산·건축 전문가와 전·현직 지방의원, 지역 문화기관 관계자 등 17명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 위원들은 사업 홍보와 시민 소통, 지역사회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한다. /경주(경북)=김진곤 기자

거제시

김영삼 전 대통령 추모식 개최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 11주기 추모식이 22일 경남 거제에서 열렸다. 장목면 김영삼대통령기록전시관 앞 광장에서 열린 추모식에는 변광용 거제시장과 서일준 국회의원, 안석봉 거제시의회 의장, 도·시의원과 시민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거제필하모닉오케스트라 페스티벌 앙상블은 식전 공연에서 현악 4중주로 평소 클래식을 즐겼던 고인을 기렸다. 이어 국민의례와 묵념, 추모사가 진행됐고 유족 인사말 영상과 추모 영상이 상영됐다. 소프라노 이현서와 테너 김준연의 추모 공연 뒤에는 참석자들이 헌화했다. 기록전시관에는 이날 시민과 관람객이 자유롭게 헌화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됐다. /거제(경남)=박현철 기자 metrobusan88@

줄 세우는 지역 먹거리… 유통업계, 맛집·축제 등 협업 활발

신세계百, '대전 빵축제 in 서울' 예정
CU, 김천김밥축제 우승작 상품화
배달의민족, '빵지순례' 큐레이션

지역에서만 맛볼 수 있던 먹거리가 전국구 인기 상품으로 떠오르면서 유통업계의 '로컬 맛집' 발굴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지역 맛집의 인기가 확산하자 백화점부터 편의점, 배달 플랫폼까지 지역의 특색을 담은 상품과 콘텐츠를 앞세워 소비자 공략에 나섰다.

23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최근 지역 맛집을 찾아다니는 소비 트렌드가 확산하고 있다. 과거 홍보 수단이 부족했던 지역 맛집들이 SNS의 발달로 전국적인 인지도를 얻게 된 데다 '경험 소비' 트렌드까지 맞물린 결과다. 특정 지역이나 점포에서만 맛볼 수 있는 음식이 그 자체로 특별한 경험이자 소비 콘텐츠로 자리 잡은 것이다.

지난 19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는 빵을 사려는 소비자들의 대기 행렬이 수백 미터에 달했다. 대전 성심당, 전주 풍년제과, 부산 아델라7 등 전국 유명 빵집 116곳을 한데 모은 'K-베이커리 페스티벌 인 광화문'이 열리면서다. 대한제과협회에 따르면 올해 처음 열린 이번 축제에는 사흘간 37만명이 다녀갔다.

유통업계는 이 같은 로컬 맛집의 인기를 집객과 상품 차별화에 활용하고 있다. 백화점은 전국 각지의 유명 맛집을 한데 모아 고객의 방문을 유도하고, 편의점은 지역 인기 먹거리를 상품화해 경쟁력을 높이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

신세계백화점은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강남점 식품관에서 '대전 빵축제 in 서울'을 진행한다. MBC 예능 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에 소개된 '파이가든'을 비롯해 '손수베이커리', '콜마르브레드' 등 대전의 인기 베이커리·디저트 전문점 10곳이 참여한다.

백화점이 지역 유명 디저트 브랜드 유치에 공을 들이는 것은 식품관의 집객 효과가 다른 상품군의 구매로도 이어지기 때문이다. 신세계백화점 강남점의 이달 2~15일 스위트·델리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32.1%, 디저트 전문관 스위트파크 매출은 57.4% 증가했다.

롯데백화점도 지난달 잠실점에서 속초 '육구방앗간', 부산 '영도다리떡방' 등 전국 유명 떡집 8곳을 모은 '전국떡지순례2' 팝업스토어를 운영했다. 지난해 첫 행사에 약 2만명이 방문하고 베이커리·디저트 카테고리의 일평균 매출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자 올해 참여 브랜드를 5개에서 8개로 확대했다.

편의점업계는 지역 맛집뿐 아니라 지역 축제로까지 협업 대상을 넓히고 있다.

CU는 올해 김천김밥축제 경연대회 우승작을 상품화한 '고추잡채김밥'을 출시하고, 1·2회 대회 우승작인 '오삼이 반반김밥'과 '호두마요 제육김밥'을 재출시했다. 임형근 BGF리테일 상품본부장은 "지역 축제에서 고객들의 관심과 호응을 얻은 메뉴를 CU 상품으로 선보인 것이 실제 판매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송파구 신천동에 위치한 잠실점 지하 1층에서 진행 중인 '전국떡지순례 시즌2' 팝업스토어 전경. /롯데쇼핑



CU에서 김천김밥축제 우승작을 상품화 했다. 모델이 주요 상품을 선보이고 있다. /BGF리테일

이마트24는 지난 13일 트렌드랩 성수점에서 속초 육구방앗간의 대표 상품인 참쌀모찌를 한정 판매했다. 앞서 지난 9월 부산 영도다리떡방과 전북 익산농협떡방 앗간의 인기 상품을 선보인 행사에서는 일부 상품이 판매 당일 오전 중 완판되기도 했다.

GS25는 80년 전통의 서울 제과점 태극당과의 협업 범위를 아이스크림에서 빵으로 확대했다. 지난해 4월부터 선보인 태극당 협업 아이스크림 6종이 올해 9월 말까지 약 270만개 팔리자 지난달 버터크림빵과 오란다빵, 미니맘모스빵 등 3종을 추가로 출시했다.

배달 플랫폼도 지역 맛집을 활용한 콘텐츠 강화에 나섰다. 배달의민족은 오는 29일까지 픽업 서비스에서 전국 유명 베이커리 370여곳을 소개하는 '빵지순례' 큐레이션을 운영한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평소 방문하기 어려운 지역 맛집의 메뉴를 상품화했을 때 소비자들의 호응이 크다"며 "지역 특색을 담은 먹거리에 대한 관심과 경험 소비 트렌드가 맞물린 결과"라고 말했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벨리곰과 특별한 연말 보내세요"

롯데홈쇼핑, 먹거리 등 콘텐츠 확대
내달 1일 크리스마스 영상 공개 예정

롯데홈쇼핑은 연말을 맞아 식음료·생활용품·자동차 업계와 협업해 자체 캐릭터 '벨리곰'을 활용한 먹거리, 굿즈, 미디어아트 등 다양한 콘텐츠를 선보인다고 23일 밝혔다.

벨리곰은 지난 19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서울 잠실 월드파크 야외 잔디광장에서 열리는 '2026 롯데타운 크리스마스 마켓'에 참여한다. 올해로 4회째를 맞는 이 행사는 롯데백화점이 19세기 영국 크리스마스 마켓을 콘셉트로 마련했다. 롯데홈쇼핑은 아워홈의 뷔페 브랜드 '테이크'와 함께 영국 빅토리아역을 모티브로 한 '벨리곰×테이크 스테이션' 부스를 운영한다. 부스에서는 먹거리와 벨리곰 굿즈를 판매하고 크리스마스 의상을 입은 2.5m 높이의 벨리곰 조형물과 포토존을 선보인다.


롯데홈쇼핑은 연말을 맞아 식음료·생활용품·자동차 업계와 협업해 자체 캐릭터 '벨리곰'을 활용한 먹거리, 굿즈, 미디어아트 등 다양한 콘텐츠를 선보인다. /롯데홈쇼핑

내달 1일에는 롯데백화점 명동 본점 영플라자 외벽 미디어파사드에서 MINI 코오롱모터스와 공동 제작한 크리스마스 영상을 공개한다. 영상에는 벨리곰이 MINI 차량을 타고 크리스마스트리 모양의 트랙을 달리는 모습을 담았다.

앞서 지난 13일에는 아성다이소와 크리스마스 굿즈 20종을 출시했다.

/김서현 기자

대상웰라이프, '뉴노르딕' 국내 론칭

'아누카 애플 샷' 등 6종 제품 선봬

대상웰라이프는 덴마크 웰니스 브랜드 '뉴노르딕(NEW NORDIC)'과 국내 독점 유통 파트너십을 맺고 국내 시장에 공식 론칭한다고 23일 밝혔다.

뉴노르딕은 1990년 덴마크에서 설립된 브랜드로 식물 원료 연구를 기반으로 건강식품과 화장품, 헤어케어 등 150여종의 제품을 개발해 왔다. 현재 전 세계 45개국 약 5만개 매장에서 판매되고 있다.

이번 론칭을 통해 선보이는 제품은 웰니스샷 6종이다. 한 병당 15㎖ 용량의 액상 제품으로 유럽에서 생산되며 원액 그대로 마시거나 물과 음료에 섞어 섭취할 수 있다. 대표 제품인 '아누카 애플 샷'은 이탈리아 캄파니아 지역에서 재배한 아누카 사과 추출물을 사용했다. 뉴노르딕이 자체 개발한 추출물 '아누카솔'을 담았으며, '레드코어 샷'에는 프랑스 현지 파트너사와 공동 개발한 붉은 과육의 사과 품종 'RM-1'에서 추출한 원료를 적용했다. 이외에 크랜베리와 타트체리 추출물을 배합한 '크랜베리 샷', 빌베리와 블랙커런트를 활용한 '빌베리 샷', 차가버섯과 엘더베리를 담은 '차가플러스 샷', 애플사이다 비니거와 아티초크잎추출물을 조합한 '애사비 샷' 등을 선보인다.

대상웰라이프는 국내 건강식품 시장에 대한 이해와 유통망을 바탕으로 뉴노르딕의 브랜드 인지도와 판매 기반을 확대할 계획이다.

대상웰라이프 관계자는 "최근 글로벌 웰니스 시장에서는 단순한 영양 섭취를 넘어 원물이 지닌 고유한 가치에 주목하고 이를 일상 속에서 간편하고 꾸준하게 즐기는 라이프스타일이 확산되고 있다"며 "오랜 식물 연구와 원료 전문성을 축적해 온 뉴노르딕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이러한 흐름을 국내에 소개하고 소비자들에게 새로운 웰니스 경험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농심, '불오징어집' 출시

오징어볶음 맛 구현 제품



농심이 장수 스낵 브랜드 오징어집의 첫 시리즈 제품인 '불오징어집(사진)'을 출시한다.

불오징어집은 1985년 오징어집 출시 이후 41년 만에 선보이는 후속 제품이다. 오징어볶음 맛을 구현한 제품으로, 기존 오징어집의 구운 오징어 감칠맛에 고추장과 고춧가루를 더해 매콤한 맛을 살렸다. 오징어집 특유의 모양과 바삭한 식감은 유지했다.

불오징어집은 오는 30일 이마트와 이마트 에브리데이에 먼저 출시되며, 이후 판매 채널을 확대할 예정이다. /신원선 기자

제너시스BBQ, '서울닭방' 직장인 입맛 저격

평일 매출이 주말 평균 40% 웃돌아

제너시스BBQ 그룹의 K-치킨 델리 브랜드 '서울닭방'이 여의도 직장인 수요를 바탕으로 매출을 확대하고 있다. 점심과 퇴근 시간대 방문이 집중되면서 평일 매출이 주말 평균을 40% 이상 웃돌고 있다.

제너시스BBQ 그룹 자회사 파티센타는 지난 8월 더현대 서울에 문을 연 서울닭방의 평일 매출이 주말 평균 대비 40% 이상 높게 나타났다고 23일 밝혔다.

서울닭방은 한국식 치킨에 다양한 소스와 식재료를 접목한 브랜드다. 오븐 조리 방식의 치킨을 중심으로 치밥과 샐러드, 스낵 등을 판매하며 테이크아웃 위주로 운영한다. 점심 식사와 퇴근길 포장 수요를 겨냥한 구성이다.

메뉴는 오븐에 구운 치킨에 다양한 소스를 조합한 '시그니처 크리스피' 5종이 대표적이다. 트러플 버터를 활용한 '서울 화이트', 매콤달콤한 땡초 양념을 더한 '서울 레드', 국내산 김소스와 김크런치를 활용한 '서울 블랙' 등이 있다. 식사로는 '불향 바베큐 통다리', '스파이시 통다리', '서울 로스트 갈릭' 등 치밥 3종과 샐러드 4종을 운영한다. /신원선 기자

빕스, 수도권 중심 그릴 다이닝 매장 확대

겨울 신메뉴 출시… 미식 경험 강화

CJ푸드빌이 운영하는 빕스가 겨울 신메뉴를 출시하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그릴 다이닝 매장을 확대한다.

이번 신메뉴는 굴과 문어, 황금향 등 겨울 제철 식재료를 활용한 것이 특징이다. 주요 메뉴는 굴튀김에 레몬 아이올리 소스를 곁들인 '굴튀김과 레몬 아이올리', 문어와 감자·올리브·샐러리를 버터와 케이준 소스로 볶은 '지중해식 문어' 등이다. 베이컨 크림 숏 파스타와 황금향 샐러드도 선보인다.

한식 메뉴도 강화했다. 들깨와 미역을 넣은 '들깨 미역국'과 강된장 양념에 시래기를 버무린 '된장 시래기 무침'을 추가했다. 디저트는 체리 크림을 넣은 '체리 루비 케이크'를 비롯해 피스타치오 치즈케이크, 당근 넛츠 케이크, 황금향 판나코타 등으로 구성했다.

매장 확대에도 나선다. 빕스는 오는 26일 부천 중동점을 리뉴얼 오픈하고 다음 달 17일 수원점을 새롭게 연다. 두 매장 모두 그릴다이닝 모델을 적용한다. 지난해 7월 광교점에서 처음 선보인 그릴다이닝은 청량리점과 잠실점, 대구점 등으로 확대됐으며, 이번 출점을 통해 운영 매장은 총 8개로 늘어난다. /신원선 기자

하이트진로 테라·켈리 한정판 선봬

하이트진로가 맥주 원료 차별화를 내세운 한정판 제품 2종을 선보이며 연말 맥주 시장 공략에 나선다.

하이트진로는 '테라 싱글몰트 에디션'과 '켈리 유기농 에디션'을 출시한다고 23일 밝혔다.

테라 싱글몰트 에디션은 2022년 첫선을 보인 이후 올해로 5년째 출시되는 제품이다. 호주 태즈메이니아산 맥아와 홉을 100% 사용했다.

켈리 유기농 에디션은 지난해 선보인 '켈리 후레쉬 홉 에디션'을 업그레이드한 제품이다. 국내 최초로 맥아와 홉 모두 100% 유기농 원료를 사용했으며, 한국유기농인증원의 공식 인증을 받았다.

두 제품은 전국 대형마트와 가정용 유통채널에서 한정 수량 판매된다.

/신원선 기자

두피·모발 관리 '기술경쟁'… K-뷰티, 헤어케어 고도화

바이오·디지털·의료 기술 결합해
모발 건조 시간 단축·탈모 치료 등
고부가가치 헤어테크 시장 개척

국내 뷰티 업계가 고기능성 헤어케어 시장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낙점하고 시장 공략을 활발히 하고 있다. 저분자 펩타이드 등 바이오 신소재를 접목하고 뷰티 디바이스 기술까지 더해 K뷰티를 강화하는 모습이다.

23일 국내 뷰티 업계에 따르면 전통 뷰티 강자 아모레퍼시픽은 기존 주력 브랜드의 수익성 개선과 함께 헤어케어 부문을 적극 육성하며 매출 외연을 확장한다.

최근 공시한 '2026 기업가치 제고계획 이행평가 및 향후 계획'을 살펴보면, 헤어 브랜드 '려'는 글로벌 럭셔리 뷰티 설화수, 스킨케어 이니스프리와 함께 대형 브랜드 수익성 턴어라운드를 이끌며 2026년 3분기 누적 영업이익률이 2023년 대비 9%포인트 상승하는 데 기여했다.

려는 인도, 브라질 등 신흥 K뷰티 시장



그래비티 퀵 드라이 샴푸 /폴리페놀팩토리

에서 온라인 채널을 중심으로 고성장을 달성하면서 신규 기술 '그로우 펩타이드'를 적용한 '루트젠' 제품군을 출시하는 등 브랜드 경쟁력을 지속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다른 헤어 브랜드 라보에이치 역시 CJ올리브영 등 멀티브랜드숍에서 브랜드 입지를 확보했다.

그 결과, 아모레퍼시픽의 올해 3분기 기준 헤어 앤 뷰티 사업 누적 매출은 3733억원을 기록해 전체 매출의 의 10.8%를 차지했다.

전문성을 앞세운 신흥 강자도 약진하고 있다. 글로벌 두피 케어 브랜드 '닥터포헤어'를 운영하는 와이어트는 가파른 실적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액은 1288억원으로 전년 대비 약 34.8% 급증했고 영업이익은 전년 23억원에서 40억원으로 76% 가까이 뛰었다. 또 올해 들어서는 1000평 규모의 신사옥으로 이전하며 조직 인프라도 확충했다.

이러한 성장세를 바탕으로 닥터포헤어는 3세대 트리트먼트 '펩티본드 헤어 마스크'를 출시해 극손상모 시장으로 진출한다. 특히 모발 케라틴과 유사한 저분자 펩타이드 기반 '바이오 펩타이드' 기술을 신제품에 집약했다. 모발 내부 빈틈을 채워 근본적인 손상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뒀다.

학계 원천 기술을 상용화해 샴푸의 기능적 한계를 뛰어넘은 스타트업의 돌풍도 거세다. 카이스트 화학과 이해신 석좌교수가 창업한 폴리페놀팩토리는 흥합 접착 원리를 응용한 폴리페놀 기술을 통해 탈모 케어를 넘어 '모발 건조 시간 단축'이라는 새로운 시장을 개척했다.

이달 12일 정식 출시된 '그래비티 퀵 드라이 샴푸'는 앞서 5일 올리브영 사전 출시 당시 24분 만에 준비 물량이 완판됐다. 폴리페놀팩토리가 구현한 '드라이맥스 609' 기술은 바이오 신소재 폴리페놀이 모발 표면에 얇은 막을 형성해 물기를 물방울 형태로 뭉쳐 떨어뜨리는 원리를 갖췄다. 임상 평가에서 대조군 대비 1.90배 빠른 건조 속도와 모발 뿌리 볼륨 23.56% 개선 효과를 입증했다.

폴리페놀팩토리는 오는 2027년 1월 'CES 2027'에 3년 연속 참가해 원천 기술을 공유하며 K헤어테크의 위상을 알릴 계획이다.

뷰티 디바이스 브랜드도 자체 미용의료 기술을 탈모 치료 등으로 이식하고 있다. 에이피알은 주력 사업인 뷰티 디바이스를 개발하면서 고주파 미세천공 기술과 플랫폼을 확보했다.

에이피알이 보유하고 있는 '에이지알 부스터 프로 X2'의 에어샷 모드 기술을 병용했을 때 탈모 치료제 성분 미녹시딜의 표피·진피 내 침착량이 단독 도포 대비 최대 2.40배 증가했고 모발 피복률, 굵기 등도 유의미하게 개선됐다. 에이피알은 해당 연구결과를 지난 9월 국제 학술지 '파마슈티스'에 게재하기도 했다.

경구용 탈모 치료제 복용이 제한되는 여성 탈모 환자에게는 바르는 약물이 처방되나, 외용제의 낮은 약물 흡수율은 한계점으로 지적된다. 에이피알은 이를 보완하는 유효성분 전달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한 연구개발을 계속할 계획이다.

뷰티 업계 한 브랜드 관계자는 "글로벌 시장에서 스킨케어로 검증한 K뷰티 R&D 역량이 고부가가치 헤어테크 발전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며 "화장품 수출과 K뷰티 산업 지속가능성을 발굴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인벤티지랩, 다발성경화증 후보 효능 입증

국제학술지에 게재 승인
내년 임상 2상 진입 목표

약물전달 플랫폼 기업 인벤티지랩이 다발성경화증 치료 후보 'IVL4002'의 비임상 효능 및 기전 연구결과를 국제학술지 테라노스틱스(Theranostics)에 게재 승인받았다고 23일 밝혔다. 2027년 임상 2상에 진입을 목표로, 미국 사업화도 본격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Theranostics는 의학·생명과학 분야에서 권위를 인정받는 SCI(E)급 국제학술지다. 이번 연구는 생물학연구정보센터(BRIC)의 '한국을 빛내는 사람들(한빛사)'에도 소개됐다.

IVL4002는 인벤티지랩의 미세유체 기반 약물전달 플랫폼 'IVL-DrugFluidic'을 적용한 장기지속형 주사제다. 미립구의 크기와 고분자 조성 등을 정밀하게 제어해 투여 초기에 약물이 과도하게 방출되는 것을 줄이고, 1개월간 일정한 수준의 약물 노출이 유지되도록 설계됐다.

이번 논문에서 연구진은 다발성경화증 동물질환 모델에 IVL4002를 투여한 뒤 질환 중증도와 척수 수초 손상이 개선되는 효과를 확인했다. 염증에 관여하는 면역세포가 척수로 침윤하는 현상과 신경염증 관련 신호가 줄었고, 혈액뇌장벽 기능이 보존되는 양상도 관찰됐다.

인벤티지랩은 최근 호주 임상 1상을 완료하고 임상시험 결과보고서(CSR)를 확보했다. 건강한 성인에게 IVL4002를 한 번 피하투여한 결과, 투여 28일 이후까지 혈중 약물 농도가 측정됐고 관찰 기간 내내 변동폭이 좁은 혈중 농도가 유지됐다. 투여 후 중대한 이상사례나 이상사례로 인한 시험 중단은 보고되지 않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2년 재발완화형 다발성경화증을 대상으로 IVL4002를 개발단계 희귀의약품으로 지정했다. 인벤티지랩은 자가면역질환 예방·치료용 서방형 제형과 관련 방법에 관한 특허를 미국·호주·일본에서 확보했다. 회사는 특히 미국 등록 특허에 따른 기술 권리를 현지 공동개발 및 기술이전 협상의 근거로 활용할 방침이다.

인벤티지랩은 내년 임상 2상에 착수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임상 2상에서는 재발완화형 다발성경화증 환자에게 적합한 용량과 투여요법을 탐색하고, 유효성과 안전성을 평가할 예정이다. 회사는 임상 2상 준비와 함께 미국의 잠재 파트너들과 IVL4002 사업화 논의도 본격화할 계획이다.

김주희 인벤티지랩 대표는 "세계적 권위의 학술지에 IVL4002의 효능과 기전 연구 결과를 인정받은 데 이어 임상 1상에서 인체 대상 1개월 지속 노출까지 확인한 만큼, 2027년 임상 2상 진입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



지난 7일 오스템임플란트 마곡 중앙연구소 본사에서 열린 '2026 오스템임플란트 장학증서 수여식'에서 전국 치과대학 장학생들이 단체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오스템임플란트

오스템임플란트, 치과 인재 육성 확대

장학 지원하고 임상 후원 등 강화

오스템임플란트가 미래 치과계 인재 육성과 산업 동반성장의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한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치의학 발전과 학계 협력 고도화를 위해 장학 지원부터 실무 중심 교육, 학술·임상 연구 후원까지 전방위 산학협력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2003년 시작해 올해로 24년째를 맞은 장학사업은 2022년부터 대상을 전국 치과대학에서 치기공(학)과·치위생(학)과까지 넓히며 치과계 전반의 인재 저변을 확대했다. 현재까지 치과대학 누적 수혜자는 약 1600명이며, 전체 장학 수혜 인원은 4500명을 넘어섰다.

특히 오스템임플란트는 장학사업과 실전형 임상 교육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왔다. 2021년 1개 대학으로 출발한 치과대학생 대상 특성화 교육 '익스턴십'은 올해 서울대·연세대·경희대·단국대·경북대·부산대·원광대 등 전국 7개 대학, 총 89명이 참여하는 규모로 성장했다. 2021년부터 올해까지 6년간 누적 19회 운영을 통해 배출한 수료생만 222명을 웃돈다.

교육 과정은 임플란트 식립과 인상채득, 디지털 덴티스트리 등 임상 활용도가 높은 최신 술기를 다룬다. 이론 강의부터 전문가 지도 실습, 실제 수술 참관, 연구소 견학까지 실전형으로 구성했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오는 2027년에는 참여 대학을 9~11곳, 교육 인원을 약 220명 수준으로 대폭 늘릴 계획이다. /이청하 기자

올리브영, 생리용품 바우처 결제 전국 확대

취약계층 여성 구매 접근성 개선

CJ올리브영이 전국 1300여 개에 달하는 오프라인 매장망을 개방해 취약계층 여성·청소년의 생리용품 구매 접근성을 개선한다. 발급 카드사에 따른 결제 문턱을 없애 보다 편리하게 이용 가능하다.

올리브영은 전국 오프라인 매장에서 정부 '생리용품 바우처' 결제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생리용품 바우처는 성평등가족부 지원 사업으로, 여성·청소년의 건강권을 보장한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중 9~24세 여성·청소년에게 본인 또는 신청인 명의의 국민행복카드를 발급한다.

올리브영은 이번 사업 참여를 위해 전용 바우처 결제 시스템을 구축했다. 특히


CJ올리브영 매장에 설치된 여성용품 구역에서 고객이 다양한 제품을 비교하며 쇼핑하고 있다. /CJ올리브영

발급 카드사별로 가맹점이 제한되던 기존 불편을 해소해 모든 카드사의 국민행복카드로 바우처 결제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통합했다. 대상자들은 거주 지역이나 카드 종류에 구애받지 않고 가까운 올리브영 매장에서 원하는 제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됐다. /이청하 기자

일동제약

신약 글로벌 수출 속도

유럽 제약·바이오 투자 행사 출격

일동제약이 유럽 최대 규모의 제약·바이오 투자 행사인 '제프리스 글로벌 헬스케어 콘퍼런스'에 출격해 핵심 신약 파이프라인의 글로벌 기술수출과 투자 유치에 속도를 낸다. 임상 3상 주요 결과를 성공적으로 확보하며 상용화 초읽기에 들어간 위식도역류질환 신약 '파도프라잔'의 권역별 해외 판권 계약과 '먹는 비만치료제' 후보물질의 오픈 이노베이션 성과를 조기에 가시화한다는 전략이다.

일동제약은 지난 16~19일(현지 시간) 영국 런던에서 열린 '2026 제프리스 글로벌 헬스케어 콘퍼런스'에 참가해 주력 신약 후보물질을 소개하고 글로벌 파트너링 미팅을 진행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청하 기자

강스템바이오텍, 골관절염 신약 수출 박차

글로벌 제약사들과 사업개발 협의

강스템바이오텍은 지난 9~11일 독일에서 열린 유럽 최대 제약·바이오 파트너링 행사인 '바이오유럽 2026'(BIO-Europe 2026)에 참가해 글로벌 제약사들과 골관절염 치료제 '오스카(OSCA)'의 기술수출 및 공동개발을 위한 사업개발 협의를 진행했다고 23일 밝혔다.

오스카는 퇴행성 무릎 골관절염 치료를 목표로 개발 중인 주사제형 치료제로, 지난 7월 임상 2a상 주요 결과(Top-line)를 발표한 데 이어 10월 말 최종 임상시험결과보고서(CSR)를 수령했다. 회사는 임상 2a상에서 확인된 혁신적 통증 및 기능 개선 결과를 바탕으로 글로벌 기술수출과 미국 식품의약국(FDA) 임상 개발을 위한 후속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다.

회사측에 따르면 이번 바이오유럽에서는 임상 1상 단계부터 오스카에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온 글로벌 상위 제약사들과 임상 2a상 주요 결과 및 최종 CSR의 주요 내용을 공유했다. 특히 최근 확보한 12개월 추적관찰 일부 데이터 중 주요 지표와 관찰 결과도 추가로 제공하며, 치료 효과의 지속성과 임상적 유용성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를 진행했다. /이세경 기자

제4회 2026 GLOBAL ACX AWARDS

제4회 2026 글로벌 ACX 초월대상 시상식

대한민국 SW·AI 산업의 혁신과 AX 전환 확산을 이끄는 도약의 장

인공지능(AI)과 디지털 전환이 국가 미래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입니다. 대한민국 SW·AI 산업의 혁신과 AX(AI 전환) 확산에 기여한 우수 제품·서비스 및 활용사례를 발굴하고, 산업 발전에 헌신해 온 기업과 관계자 여러분의 공로를 격려하기 위해 「**제4회 2026 글로벌 ACX 초월대상 시상식**」을 개최합니다.

SW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부 정책방향 공유와 함께 국산 AX 혁신 성과를 함께 나누는 뜻깊은 자리에 귀빈 여러분을 정중히 모시오니, 부디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한국SW·AX총연합회 회장 이 우 용

01. 행사 개요

일 시	**2026년 11월 25일(수) 13:30 ~ 16:00** (본행사 14:00 ~ 16:00)
장 소	**메타빌드빌딩 AI Space Center 대회의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64, B1F)
주최 / 주관	**주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주관 :** (사)한국SW·AX총연합회, 전자신문사, 메트로경제
후 원	행정안전부, 중소벤처기업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정보통신기획평가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국방인공지능융합협회, 인공지능SW엔지니어링진흥협회, 정보시스템감리협회, 한국AI융합기술인협회, 한국ICT융합협회,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한국IT여성기업인협회, 한국PMO사회적협동조합, 한국PMO협회, 한국SW저작권협회, 한국AI데이터산업협회, 한국상용인공지능SW협회, 한국인공지능SW산업협회, 한국정보산업연합회, 한국정보산업협회,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한국제로트러스트보안협회, 한국중소벤처디지털혁신협회, 한국핀테크협회 외
시상 부문	특별공로상 / 인재상 / AI 활용우수사례상 / 제품·서비스상

02. 세부 프로그램

시 간	소요	주요 내용	비고 / 진행
13:30 ~ 14:00	30'	등록 및 VIP 사전 환담	VIP 대기실
14:00 ~ 14:05	5'	개회선언, 국민의례 및 주요 내빈 소개	사회자
14:05 ~ 14:10	5'	환영사 및 개회사	(사)한국SW·AX총연합회장
14:10 ~ 14:25	15'	축사 및 격려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국회의원 주관언론사
14:25 ~ 14:45	20'	**정책기조연설 :** SW시장 활성화를 위한 2026년도 정책 추진방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4:45 ~ 15:00	15'	국산 AX 혁신 제품·서비스 성과 및 도입 성공사례 발표	대표 수상기업 1개사
15:00 ~ 15:05	5'	심사경과 보고 및 최종 수상자 발표	심사위원장
15:05 ~ 15:40	35'	**제4회 2026 글로벌 ACX 초월대상 본 시상**	부문별 유공자 및 우수기업
15:40 ~ 15:55	15'	전체 수상자 및 주요 내빈 기념촬영	참석자 전원
15:55 ~ 16:00	5'	폐회선언 및 장내 정리	사회자

* 일정 및 세부 프로그램은 내·외부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스캔

[참가 신청 및 참석 회신 안내]

- 온라인 사전등록 URL : https://www.kswict.or.kr/awards-ceremony-2026
- 원활한 행사진행 및 지정 좌석 배치를 위해 **사전에 참석 여부를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사장 공간이 협소하오니 **축하 화환은 정중히 사양**하며, 마음만 감사히 받겠습니다.

(사)한국SW·AX총연합회 사무국 (문의: 02-858-8510 / 사무총장 박환수)



중진공, 융합기업들과 협력 네트워크 강화

중진공은 지난 22일 경기 수원시 라마다프라자 수원 호텔에서 중소기업융합중앙회(융합중앙회)와 '2026년 중소기업융합대전 전야제'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전야제는 중진공과 융합중앙회 간 협업을 강화하고 현장 목소리를 공유하기위해 마련했다. 사진은 박재호 이사장이 중소기업융합대전 전야제에서 축사를 하고 있는 모습. /중진공



한샘, 대구 달서구 '본마을빌라모자원' 리모델링

한샘이 여성 및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사업인 '찬란한샘' 프로젝트 일환으로 대구광역시 달서구에 위치한 모자가정 생활시설 '본마을빌라모자원'의 노후 공간을 전면 리모델링했다. (왼쪽부터)이지승 한샘 마케팅본부 부서장, 조은아 본마을빌라모자원장, 전재현 지파운데이션 사무국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샘



LS그룹, 안성 소외계층에 김장김치 전달

LS그룹은 지난 21일 그룹 연수원인 경기 안성 LS미래원에서 안성시와 함께 지역 소외계층을 위한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를 열었다고 23일 밝혔다. 11년째를 맞은 이번 행사에는 명노현 LS 부회장(오른쪽)과 김보라 안성시장, 윤종군 국회의원, 반인숙 안성시의회 의장 등 자원봉사자 300여명이 참여했다. /LS그룹



한국GM 노사, 인천마라톤서 지속가능 미래 의지

23일 한국GM에 따르면 인천광역시와 대한육상연맹이 공동 주최한 이번 마라톤 대회는 11월 22일 인천아시아드주경기장에서 개최됐으며, 약 2만 명이 참가한 가운데 풀코스·10km·5km 등 다양한 종목으로 진행됐다. 이번 행사에서는 '한국GM 지속발전 UP'을 주제로 헥터 비자레알 한국GM 사장(왼쪽), 안규백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지부 지부장 등이 참석해 '인천과 함께 달리는 한국GM의 미래'라는 메시지를 공유했다. /한국GM



NH농협은행, '초록사다리×우주공간' 완공식

NH농협은행은 지난 20일 경남 진주시 금곡초등학교에서 농어촌 아동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공헌 사업 '초록사다리×우주공간' 프로젝트 5호 완공식을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강태영 NH농협은행 은행장(왼쪽 첫 번째)이 완공식에 참여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NH농협은행

현대차 정몽구 재단, 국제학회서 韓 공익재단 역할 조명

美 ARNOVA 연례학술대회서
공익재단 연구·현장 사례 발표
자선·지원 → 사회문제 해결로 확대

현대차 정몽구 재단이 국제 비영리 학회에서 한국 공익재단의 역할 변화와 사회복지 현장의 혁신 사례를 소개했다. 전통적인 자선과 지원을 넘어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로 활동 영역을 넓혀온 과정을 연구와 실천 사례로 공유했다.

재단은 지난 21일(현지시간)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열린 제55차 ARNOVA 연례학술대회에서 독립 세션을 운영했다고 23일 밝혔다. 세션에서는 한국 공익재단에 관한 학술연구 3편과 'CMK 사회복지 혁신리더 아카데미' 교육생들의 현장 프로젝트 1편이 발표됐다.



현대차 정몽구 재단 세션 발표자와 토론자 단체 사진. /현대차정몽구재단

이종성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와 김준희 석사과정 연구원은 1990년 이후 국내 언론 보도 약 427만건을 분석했다. 이를 통해 한국 공익재단의 역할이 자선·지원 중심에서 인재 양성과 기후, 돌봄 등 사회문제 해결로 확대되는 양상을 제시했다.

정복교 미국 킨대 교수는 미국 재단과 관련 기관 17곳의 사례를 토대로 한·미 공익재단의 제도적 발전 특성을 비교하는 분석틀을 제안했다. 손동영 서울대 사회복지연구소 연구원은 공익재단의 역할을 현장 지원, 문제해결 실험, 성장기반 조성 등 세 유형으로 나눠 형성 과정과 특징을 분석했다.

현장 사례로는 아카데미 1기 교육생 박은예·송진근·임주찬씨의 '은둔고수 자원활동 페이지' 프로젝트가 소개됐다. 고립·은둔 경험자가 연구와 자원활동에 직접 참여하도록 해 사회문제 해결의 주체로 활동하고 재고립을 예방할 가능성을 모색했다. 아카데미는 재단이 보건복지부, 서울대 소셜임팩트센터와 함께 올해 처음 운영한 사회복지 분야 인재 양성 프로그램이다.

이지영 현대차 정몽구 재단 파트장은 "앞으로도 한국 공익재단의 경험과 성과를 체계적으로 조명하고, 이를 국제사회와 공유하는 기회를 넓혀가겠다"고 말했다.

/이승혁 기자 sh95@metroseoul.co.kr

CJ제일제당, 14년째 '희망박스' 후원

'사랑의 희망박스 박싱데이'에
15종 21개 품목, 2.5만 박스 후원

CJ제일제당이 연말을 맞아 취약계층에 식품을 전달하는 나눔 활동을 이어갔다. 2013년부터 14년째 참여하고 있는 '사랑의 희망박스 박싱데이'를 통해 식품을 후원하고 임직원 봉사활동도 진행했다.

CJ제일제당은 지난 20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굿피플 주관 '사랑의 희망박스 박싱데이'에 햇반과 컵반, 죽, 국·탕류, 장류, 김, 간식류 등 15종 21개 품목을 후원했다고 23일 밝혔다. 총 2만5000박스 규모로, 희망박스 조립과 포장에는 임직원 30여명도 참여했다.

이번에 제작된 희망박스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푸드뱅크와 전국 지역아동센터, 복지관 등을 통해 취약계층에 전달된다. CJ제일제당이 2013년부터 해당 행사에 후원한 식품은 누적 600만개(30만박스)로, 금액으로는 약 300억원에 달한다.


CJ제일제당 임직원들이 사랑의 희망박스 박싱데이 행사에서 제품을 나눠주고 있다. /CJ제일제당

CJ제일제당은 연말 행사 외에도 식품 기부를 통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푸드뱅크와 굿윌스토어 등을 통해 연간 400억원대 규모의 물품을 기부하고 있으며, 결식 우려 아동을 위한 '호프 푸드 팩'과 취약계층 청년을 지원하는 '나눔냉장고' 사업도 운영 중이다.

2020년 시작한 호프 푸드 팩은 방학과 주말 등 급식이 제공되지 않는 기간에 아동들에게 식품 꾸러미를 전달하는 사업이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현대차, TCR 월드투어 드라이버 종합우승

'더 뉴 아반떼 N' 기술력 입증

현대자동차가 글로벌 최정상급 투어링카 대회에서 드라이버 부문 종합우승을 차지하며 고성능 브랜드 N의 경쟁력을 입증했다. 양산차 기반 경주차로 세계 주요 제조사와 경쟁하는 무대에서 우승을 거두며 고성능 기술력과 모터스포츠 성과를 동시에 확보했다.

현대차는 '더 뉴 엘란트라 N TCR(국내명: 더 뉴 아반떼 N TCR)'이 11월 19일부터 22일까지 마카오 기아 서킷'에서 개최된 2026 TCR 월드투어 최종 라운드인 8라운드를 마무리하며 드라이버 부문 종합 우승을 확정 지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우승의 주역은 BRC 현대 N 스퀴드라 코르세 팀의 미켈 아즈코나 선수다. 아즈코나는 프랑스 3라운드와 한국 5라운드, 중국 저장 7라운드에서 잇달아 우승하며 시즌 내내 선두권을 유지했다. 최종 라운드까지 안정적인 경



현대 N 스퀴드라 코르세 팀 소속 미켈 아즈코나 선수가 2026 TCR 월드투어 마카오 대회에서 드라이버 부문 종합 우승을 확정 짓고 기념 촬영을 하는 모습. /현대차

기력을 이어간 그는 종합 점수 488점으로 드라이버 챔피언에 올랐다.

현대차는 이번 우승으로 TCR 월드투어에서 통산 다섯 번째 드라이버 종합우승을 기록했다. 2018년 가브리엘 타퀴니와 2019년 노버트 미첼리즈가 i30 N TCR로 정상에 오른 데 이어 엘란트라 N TCR로 2022년 아즈코나, 2023·2024년 미첼리즈가 우승을 차지했다. 올해 아즈코나가 다시 정상에 오르며 경쟁력을 이어갔다. /양성운 기자 ysw@

서울시교육청, 정시지원 1대1 상담 실시

내달 12일 정시 설명회부터
26일 1600명 대상 1대1 상담

대입 정시모집을 앞두고 서울시교육청이 진학 상담과 입시 정보를 제공한다. 대학별 수능 반영 방식과 전년도 입시 결과를 분석한 자료를 배포하고, 현직 교사들이 참여하는 설명회와 개인별 상담도 진행한다.

서울시교육청 산하 교육연구정보원은 다음 달부터 2027학년도 정시모집 대비 진학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다음 달 12일 정시 설명회 '2027 대입 정시의 이해와 대비'를 연다. 설명회는 이날 오후 1시30분 서울 서초구 서울시교육청교육연수원에서 진행한다. 수험생과 학부모 1000명이 참석하고, 대학진학지도지원단 소속 현직 교사들이 정시 전형의 주요 특징과 지원 전략을 설명한다.

공통 강의 이후에는 서울 소재 대학과 수도권 소재 대학·국가거점국립대학 등으로 나눠 대학별 지원 전략을 안내한다. 참가 신청은 오는 25일 오전 9시부터 온라인 선착순으로 받는다.

1대1 상담도 실시한다. 상담센터는 다음 달 26일부터 28일까지 서울 강남구 경기여고 체육관과 용산구 용산고 강당에 마련한다. 지원단 소속 교사들이 수능 성적과 희망 진로, 대학별 전형 특성 등을 살펴 총 1600명에게 1인당 40분씩 상담한다. 신청은 다음 달 18일 대입상담예약 누리집에서 기회균형전형 지원자는 오전 9시부터, 일반전형 지원자는 오후 1시부터 접수할 수 있다.

입시 자료집과 진학지도 영상도 제작했다. 자료집은 교사용 3종과 학부모용 1종 등 총 4종이며, 대학별 분석과 정시 전형 이해 등을 담았다. 총 8910부를 제작해 서울 지역 고등학교 등에 배부하고, 다음 달 4일 서울진로진학정보센터 누리집을 통해 책자와 전자책, PDF 형태로 배포한다. /김수정 기자 kcrystal@

시몬스, 글로벌스탠더드 '품질경영대상'

전 과정서 브랜드 차별화 성과

시몬스가 '제25회 글로벌스탠더드경영대상(GSMA)'에서 '품질경영대상'을 수상했다.

23일 시몬스에 따르면 글로벌스탠더드경영대상은 한국경영인증원과 글로벌경영위원회가 주관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산업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이 후원하는 국내 대표 경영 시상식이다.

시몬스는 올해 차별화된 소재 기술부터 제품 생산, 안전성 검증, 고객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브랜드 차별성을 확고히 해 나가고 있는 점을 인정받아 품질경영대상을 받았다.

시몬스는 올해 침대업계 최초로 세계적인 철강·소재기업 포스코, 고려제강과 3자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이를 통해 시몬스는 포스코와 공동 연구를 통해 매트리스에 최적화된 포스코산 바나듐 특수합금강 기반의 스프링 강선을 개발했다.

/김승호 기자 bada@

인 사 ◆**애경그룹** ◇사장 승진 △AK홀딩스(겸 애경케미칼) 고준 ◇부사장 승진 △애경스페셜티 박태한 ◇전무 승진 △제주항공 박석룡 △애경케미칼(겸 AK홀딩스) 박찬영 ◇상무 승진 △제주항공 송경훈 △제주항공(겸 제이에이에스) 최원선 △제주항공 정성윤 △제주항공 장주녀 △애경스페셜티 배건우 ◇상무보 승진 △AK홀딩스 김형원 △제주항공 허석민 △애경케미칼 이영호 △애경스페셜티 백정원

부 음 ▲박재현(구미대 교수)씨 별세, 김상희씨 남편상, 박지수·아진씨 부친상, 박찬호·수호(매경이코노미 차장)씨 형제상 = 20일, 구미차병원장례식장 특1호실, 발인 25일 오전 7시, 장지 낙원추모공원.

K, 무엇으로 기억되는가



서 선 미의 기후에세이

'K'는 자랑이 되었다. K팝에서 K드라마까지, 한국에서 만든 콘텐츠라는 사실은 문화의 질을 보증하는 수표가 되었다. 프랑스 정치가이자 작가인 에두아르 에리오는 문화를 "모든 것을 잊어버린 뒤에 남는 것"이라고 했다. 문화는 한 철 유행가가 아니라는, 아니 그래서는 안 된다는 말로 읽힌다. 문화는 한 사회가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노래하는지 담는 그릇이고, 그 그릇은 그 사회의 수준을 보여준다. 한국의 문화 콘텐츠는 K라는 글자를 단 채 무엇을 기억하고 노래하고 있을까. 한 계절 부르고 마는 유행가가 되지 않으려면 어디를 향해야 할까.

우리 시대의 가장 큰 사회적 위기는 기후위기다. 대통령 선거에서도, 총선에서도 정당과 후보들은 이상기후와 탄소중립을 말한다. 'RE100'이라는 개념을 놓고 날을 세우던 후보들의 모습을 기억한다. 정치는 기후를 말하기 시작했다. 문화는 어떤가. 여름마다 폭염에 대한 기록이 새로 쓰이고 있다. 국지성 폭우가 도시를 덮치고 있다. 기후변화로 커진 산불은 쉬 꺼지지 않는다. 기후위기는 더 이상 북극곰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매달 찾아오는 전기요금 고지서와 장바구니 물가에, 쪽방촌의 작은 방들에도 이미 성큼 들어와 있다.

문화는 시대의 거울이다. 화면 속 K는 다양한 삶의 모습을 담아내고 있지만 기후위기 앞에서는 조용하다. 기후를 정면으로 다룬 작품은 드물다. 물이 사라진 미래를 그린 '고요의 바다', 대기오염으로 잿빛이 된 도시를 그려낸 '택배기사' 정도가 언뜻 떠오른다. 그마저도 기후는 드라마의 배경으로만 쓰였다. 위기의 실체와 마주하지는 않는다.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깊지 않아, 기후위기의 시대는 잠시 머물다 간 흐릿한 달빛으로 여겨질 뿐이다. 화면은 암전되고 기후위기는 사라진다.

외면이 꼭 의도된 것은 아닐 것이다. 기후위기라는 주제는 무겁고, 어둡고, 단박에 해결할 수도 없다. 그러나 치열한 기록은 공감을 낳고, 공감은 변화를 일으켰다. 영국 BBC의 한 다큐멘터리는 시청자들의 분노와 함께 정책을 움직였다. '블루 플래닛 2'의 이야기다. 마지막 회에서 보여준 플라스틱에 뒤덮인 바다는 행동으로 이어졌다. 우리의 바다, 미래의 바다, 그리고 사라질지도 모를 인류로 사람들의 사고는 확장되었을 것이다. 영국에서는 일회용 플라스틱 규제를 가속했다는 평가를 받는 이 현상을 '블루 플래닛 효과'라고 부른다. 문화적 언어가 시대의 언어가 되었다.

미국의 다큐멘터리 '불편한 진실'은 기후변화를 대중의 시선으로 해석했다. 그 메시지를 전한 앨 고어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와 함께 노벨평화상을 받았다. 한 철이 흐른 뒤에도 콘텐츠는 남아 여전히 우리에게 질문을 거듭하고 있다.

변화의 조짐도 보인다. 몇몇 국내 아티스트들은 국제 무대에서 기후 메시지를 내는 데 주저함이 없다. 국내 크고 작은 영화제에서도 기후위기는 이미 중요한 주제가 되었다. 막연한 디스토피아적 재난 서사를 넘어 다양한 방식으로 기후위기의 구체성을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곳곳에서 이어지는 우리의 행동과 말, 실험들은 아직 K기후서사라는 이름을 얻지는 못했지만 그 씨앗이 되기엔 충분하다.

지금이 기회다. 세계는 K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한국 콘텐츠 수출액은 150억 달러에 육박했다. 화면 밖에서도 K의 위상은 높다.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지난 11월 12일 사상 처음으로 연간 2천만 명을 넘어섰다. 그들에게 우리는 무엇을 보여주고, 무엇을 들려줄 것인가.

모든 것을 잊어버린 뒤에 남는 것이 문화라면 K가 남겨야 할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가장 큰 위기가 무엇인지 알고 있다면 그것을 두 손으로 받들어 콘텐츠의 중심으로 옮겨 놓는 것은 어떨까.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수석정책전문위원

병든 사회



기자 수첩

김 연 세 〈정책사회부〉

개인사업 전선에 뛰어드는 청년들이 늘고 있다. 특히 올해 부쩍 증가했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29세 이하 자영업자 수(올해 8월 기준)가 1년 전보다 19.4%(2만7000명) 늘어났다. 나이 서른도 되지 않은 자영업자가 총 16만6000명이라고 한다. 30대에서도 1년 새 5만 명(7.6%) 증가했고 올해 70만 명에 달한다는 소식이다. 달갑지 않은 소식이다. 신규 자영업자 대상의 조사 결과를 보면 그렇다. 취업이 어려운 탓에 자영업으로 눈 돌렸다는 비중이 21.7%에 달했다. 이 응답 비중은 1년 전(17.9%)에 비해 3.8%포인트(p) 뛰었다. 개인사업 개시에 앞서 일자리를 경험한 적이 없다는 응답도 전년대비 3.0%p 오른 19.3%를 기록했다. '취업난 영향'과 '취업경험 무'를 창업의 원인으로 꼽은 응답자의 상당수는 20대인 것으로 추정된다.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이 3%대 후반까지 치솟을 것이란 관측이 무색하다. 정부는 물론, 국내외 연구기관 다수가 침체에 가까운 경제전망 보고서를 앞다퉈 펴냈다. 정부 자료를 보면 반도체의 기념비적 호황과 연간 수출 1조 달러 시대 등이 이 같은 장밋빛 전망의 든든한 뒷배가 되어 주는 모습이다. 기업, 특히 일부 주요 대기업이 이른바 '하드 캐리' 중인 경제다.

그렇다면 일자리 증가가 동반돼야 하는데 현실은 아니다. 반도체·수출 호황이 일자리로 연결되지 않고 있다는 내용은 더 이상 뉴스거리가 아닐 정도로 다들 익히 알고 있다. 젊은 층의 취업 단념이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올여름 9000 선을 넘어섰던 코스피는 현재 고점 대비 40% 넘게 빠지며 폭삭 내려앉아 있다. 외환위기·금융위기도 아닐뿐더러 중동 전쟁도 수그러들었다. 나라 수출이 역대 최대라는데 주식은 도리어 곤두박질했다.

수능 등 국가시험의 관리감독 체계는 허술·엉망이었음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누군가 AI 등 부정한 방법을 써서 서울대에 다니고 행시를 통과해 국가 정책 결정에 간여하고 있다는 추론도 가능하다. 그럴 개연성이 전혀 없다고 볼 근거도 없다. 공공이든 민간 부문이든 일자리는 턱없이 부족하다. 이 틈에 혹자가 사기 쳐 그 비좁은 자리를 꿰찰 수 있는 시나리오를 20대의 다수가 지켜 봤다. 정부가 연말에 청년일자리 대책을 발표한다고 한다. 앞날 구만리 세대에 일말의 희망·기대라도 주어지길 기원해 본다. 기성세대 책임이 막중하다.

/세종=kys@metroseoul.co.kr

재미로 보는 오늘의 운세

11월 24일 (음 10월 16일) 포춘토리(www.fortunetory.com)

쥐 **48년생** 일이 무난히 풀려 나갑니다. **60년생** 자연과 접할 수 있는 여행이 주어진다면 무조건 떠나세요. **72년생** 큰 사고를 당할 수 있습니다. **84년생** 사고판단을 정확하게 하도록 하세요.

소 **49년생** 각별히 교통사고를 주의하세요. **61년생** 양심과 반대되는 행동은 삼가 하도록 하세요. **73년생** 반드시 노력의 대가를 얻을 것입니다. **85년생** 실수가 우려되니 행동에 유의하세요.

호랑이 **50년생** 때가 좋지 않았으니 어쩔 수 없습니다. **62년생** 주위 사람들은 도와줄 생각을 안 합니다. **74년생** 귀하는 이미 사랑에 빠져 있습니다. **86년생** 칭찬 혹은 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토끼 **51년생** 아랫사람에게서 작은 도움을 받을 것입니다. **63년생** 매력적이라고 여겨지는 기회가 찾아옵니다. **75년생** 실패를 하기 쉽습니다. **87년생** 욕심을 버리고 차분하게 일 처리를 하세요.

용 **52년생** 지금은 뾰족한 수가 보이지 않습니다. **64년생** 눈앞의 이득에 연연하지 말고 길게 보세요. **76년생** 좀처럼 기회를 잡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88년생** 귀인과의 만남의 찬스가 있습니다.

뱀 **53년생** 마음의 걱정을 친한 사람에게 말해보세요. **65년생** 재물이 집에 들어오지만 반은 잃고 반만 남습니다. **77년생** 힘들 때는 주변의 도움을 청하세요. **89년생** 좀처럼 연인과 만날 틈이 없습니다.

말 **54년생** 조상을 잘 모셔야만 나쁜 일을 면합니다. **66년생** 끝이 없고 감이 분명치 못합니다. **78년생** 한 번 서로 다툴 수 있습니다. **90년생** 재수는 평탄한 편인데 마음이 심란합니다.

양 **55년생** 깊이 개입하려 들면 어려워집니다. **67년생** 좋은 일은 주로 집 밖에서 생깁니다. **79년생** 동북 양방에 반드시 기쁜 일이 있을 것입니다. **91년생**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추진하세요.

원숭이 **56년생** 가리킨 곳을 쉽게 알지 못하는 격입니다. **68년생** 뜻하지 않은 지출을 하게 됩니다. **80년생** 계획을 세워서 어려움을 극복하세요. **92년생** 여행하기에 아주 길한 시기입니다.

닭 **57년생** 사방이 다 길한 방면입니다. **69년생**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면 길이 밝아 질것입니다. **81년생** 소유하는 것을 지켜야 할 시기입니다. **93년생** 능력이상의 일에는 참견하지 마세요.

개 **58년생** 불행은 오래 가지 않을 것입니다. **70년생** 가까운 이웃과 잘 지내도록 하세요. **82년생** 미래는 아주 밝고 희망이 넘칩니다. **94년생** 처음 시작은 좋으나 끝이 불안한 하루입니다.

돼지 **59년생** 불투명한 행동은 부와 명예의 길을 막게됩니다. **71년생** 자신감을 필요로 하는 시기입니다. **83년생** 소원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95년생** 실천하기 전에 한번 더 생각하고 행동하세요.



김상회의 四季

위법성 조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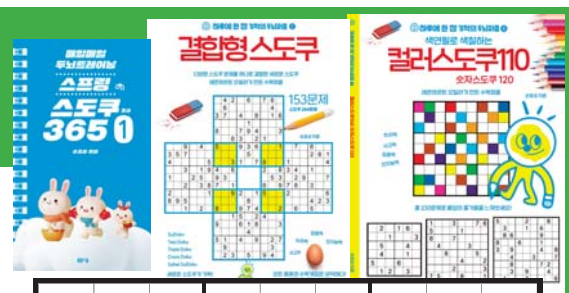
판사가 판결문을 읽을 볼 때. 피고인이 유죄인지 무죄인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긴장하며 지켜보는데 정작 판결문에 나오는 말 때문에 혼란에 빠진다. 분명 우리말로 이야기하는데, 듣다 보면 도무지 무슨 뜻인지 이해하기 힘든 단어들이 쏟아져 나온다. 일상생활에서는 쓰지 않는 낯설고 딱딱한 한자어 법률 용어가 너무 많다. 법을 다루는 문서는 명확하고 엄밀해야 하겠지만, 일반 시민의 눈높이에서는 높은 벽처럼 느껴진다. 그중에는 한 번쯤 들어봤지만 뜻을 정확히 알기 어려운 표현도 있다.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말이 대표적이다. 법률에서 사용하는 '조각'이라는 말은 일상생활에서 생각하는 조각품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 말 그대로 법에 어긋나는 성질을 말하는 것이다.

어떤 행동이 법질서에 어긋나는지를 판단할 때 사용하는 말이다. 조각은 법률 용어로, 어떤 성립 요건을 없애거나 부정한다는 의미다. 따라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법에 어긋나는 행동으로 보이지만, 법을 위반했다고 평가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누군가를 밀치고 때리면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다. 그런데 상대의 공격을 막기 위해 밀친 것이라면 어떻게 되는가. 남의 물건을 허락 없이 가져가면 절도죄가 성립한다. 그런데 사람이 크게 다칠 위험이 있어 남의 물건을 가져가서 안전을 지켰다면? 행동 자체만 보면 폭행이나 절도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런 행동을 하게 된 이유와 당시의 상황에 따라 법의 평가는 달라질 수 있다. 이때 등장하는 개념이 위법성 조각이다. 위법성 조각이라는 판결이 내려지면 형법으로 처벌받지 않는다. 그러나 그것으로 모든 법적 책임이 끝난 것은 아니다. 민법으로는 민사상 손해배상이 제기될 수 있다. 형사책임과 민사책임은 판단 기준과 목적이 다르기 때문이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생각 한 칸 스도쿠365



문제풀이: 3X3 스도쿠 X는 가로,세로,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화색 9칸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1					7		
		7	3					4
2			1		5		9	
		6	7		1	4	5	
	3	2	8		6	1		
	6		5		4			3
9					7	5		
		5					4	

				4			5	
1		6				2		
	2		3	7			4	
			6		3	7		
3		8				9		4
		1	4		2			
	3			2	5		1	
		4				5		2
	8			3				

문제출제:손호성
새로운 고난이도의 월드퍼즐을 즐겨보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7	4	8	3	6	9	5	2	1
1	6	5	7	8	2	4	3	9
3	2	9	4	1	5	6	8	7
9	7	1	6	5	8	3	2	4
8	3	6	9	2	4	1	7	5
2	5	4	1	3	7	9	6	8
6	1	3	5	9	3	2	4	7
4	9	2	8	7	1	6	5	3
5	8	7	2	4	6	8	9	6

2	8	5	4	1	3	6	9	7
9	1	4	7	6	8	5	3	2
6	3	7	9	2	5	4	1	8
7	9	1	4	8	2	3	6	5
3	6	8	5	1	7	9	2	4
4	5	2	6	9	3	7	8	1
5	2	9	3	7	1	8	4	6
1	4	6	8	5	9	2	7	3
8	7	3	2	4	6	1	5	9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 행·편 집 인	이 장 규	편집국장	윤 휘 종
인 쇄 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일반 일간신문, 무료>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6041호		
일간 메트로경제 <유료, 월 2만원>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2145호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사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삼성물산 건설부문, 새 수장에 최영재 사장

체질 개선·질적 성장 가속화 역할 기대



삼성물산 건설부문을 이끌 새 수장으로 최영재 하이테크사업부장(부사장·사진)이 선임됐다. 사업 현장과 경영지원 조직을 두루 거친 최 신임 사장은 앞으로 삼성물산 건설부문의 사업 경쟁력 강화와 질적 성장을 이끌게 된다.

삼성물산은 23일 최영재 건설부문 하이테크사업부장(부사장)을 건설부문장 사장으로 승진 보임하는 2027년 정기 사장단 인사를 발표했다.

1969년생인 최 사장은 배명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한양대학교에서 토목공학 학사와 석사 학위를 받았다. 1996년 삼성물산에 입사해 2001년 대만고속철도280 프로젝트에 참여했으며, 2006년 삼성물산 감사팀과 2010년 미래전략실 경영진단팀을 거쳤다. 2014년에는 삼성중공업 원가관리그룹장을 맡았고, 2018년 삼성물산 EPC 경쟁력 강화 태스크포스(T/F) 담당임원으로 근무했다. 이후 2021년 관리팀장, 2022년 경영지원실장을 역임하며 경영관리 분야에서 경험을 쌓았다. 2023년에는 어반앤인프라(Urban&Infra) 사업부장으로 도시·인프라 사업을 총괄했으며, 2024년부터 하이테크사업부장을 맡아 왔다.

삼성물산은 최 사장이 에너지와 하이테크, 건축, 토목, 주택 등 건설부문의 다양한 사업 분야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을 갖춘 만큼 부문 전반의 체질 개선과 질적 성장 가속화를 이끌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현진 기자

연말 입주 '가뭄'… 서울 1000가구도 못 미쳐

12월 예정 1.6만가구… 전년 절반 수준

올해 마지막 달 서울에서 입주를 시작하는 아파트가 1000가구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전체 입주물량도 지난해 같은 달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다.

23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오는 12월 전국 아파트 입주예정물량은 22개 단지, 1만6486가구로 집계됐다. 전월(1만1365가구)보다 45.1% 증가했지만, 지난해 같은 달(3만2343가구)과 비교하면 49.0% 감소한 규모다.

권역별로는 수도권 7680가구, 지방 8806가구가 입주할 예정이다. 전월 대비 각각 48.6%, 42.1% 증가했지만 전년 동월과 비교하면 수도권은 66.5%, 지방은 6.5% 줄었다. 수도권의 감소 폭이 지방보다 두드러졌다.

수도권에서는 인천이 3812가구로 가장 많은 물량을 차지한다. 이어 경기 2965가구, 서울 903가구 순이다.

인천계양에서는 3기 신도시 가운데 처음으로 입주가 시작되면서 수도권 신규 주택 공급에 첫발을 내딛는다.

/이현진 기자

SK에코플랜트
AI 플랫폼 'AXen' 운영

SK에코플랜트가 설계 업무에 특화된 인공지능(AI) 플랫폼 'AXen(엑센)'을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AXen은 인공지능 전환을 뜻하는 'AX'와 설계를 뜻하는 'Engineering'을 결합한 이름이다.

기존에는 설계가 바뀔 때마다 공간 배치와 설비 간섭 여부를 따로 검토하고, 관련 기술문서와 법규도 다시 확인해야 했다. 엑센을 활용하면 여러 작업을 한곳에서 처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엑센은 기존 설계 데이터를 활용해 공간과 장비의 배치안을 만들고 여러 대안을 비교한다. 설비와 시설물이 서로 부딪히는 지점을 찾아 해결안을 제안하며, 설계 기준과 법규·기술정보를 검색하는 기능도 제공한다.

SK에코플랜트는 초기 설계와 설계 변경안을 검토하는 시간을 줄이고, 부서 간 협업도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성채리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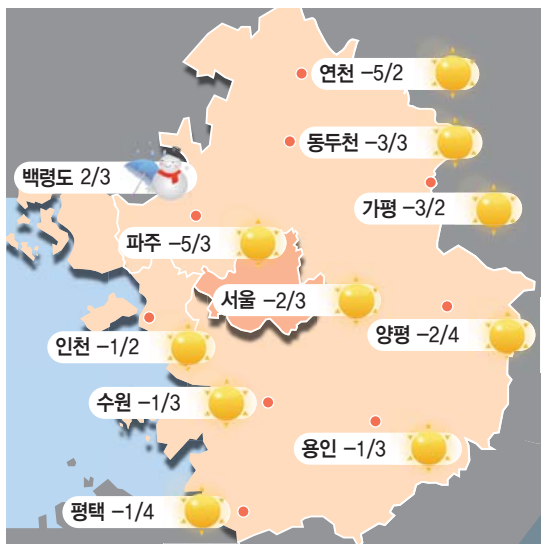
오늘의 날씨

해뜸 / 07:21 | 해짐 / 17:16

11월 24일(火)
음력 : 10월 16일

수도권 날씨
-2 ~ 3℃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건설사, 재건축 분담금 유예 경쟁
강남·성수·목동 등 최장 7년 제안

금융조건 통해 수주 경쟁력 차별화
사업성 높은 정비사업장 선점 전략
"결국 내야할 돈… 이자 고려해야"



서울 양천구 목동12단지 아파트 재건축 사업 조감도. /서울시

재건축 조합원이 통상 입주 때까지 내던 분담금을 입주 후 수년 뒤로 미루는 제안이 잇따르고 있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5구역과 성동구 성수4지구 수주전에서 각각 최장 7년과 6년 유예 조건이 나온 데 이어 양천구 목동 재건축 단지에서도 최장 4~6년의 유예 조건이 제시됐다. 입주 때 마련해야 하는 목돈 부담을 덜어주는 금융 조건으로 조합원 표심을 얻으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23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지난 22일 목동12단지 재건축 시공사로 선정된 GS건설은 조합원 분담금을 입주 때 전액 납부하거나 입주 후 최장 4년(2+2년)까지 미룰 수 있는 조건을 제시했다. 시공사 선정 안건은 조합원 1741명 중 1294명이 참여한 총회에서 1237명(95.6%)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목동12단지는 양천구 신정동 326 일대에 최고 41층, 20개 동, 2810가구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예정 공사비는 약 1조 7888억원이다. GS건설은 분담금 납부 유예 외에도 시공사 선정일로부터 1년간 공사비를 인상하지 않고, 조합 사업비 대출 금리 가운데 2%포인트를 부담하는 조건을 내걸었다.

목동8단지에서는 지난 9월 시공사 선정 입찰에 참여한 대우건설이 조합원 분담금을 입주 때 납부하거나 입주 후 2년 단위로 최장 6년(2+2+2년)까지 미룰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대우건설은 목동8단지 재건축 시공사 우선협상대상자로, 조합은 다음 달 12일 총회에서 시공사 선정 안건을 다룰 예정이다.

앞서 지난 6월 목동6단지 재건축 시공사로 선정된 DL이앤씨도 입주 때 분담금을 전액 납부하거나 입주 후 2년 또는 4년까지 미루는 방안을 제시했다. 목동에서 시공사를 선정했거나 선정을 앞둔 6·8·12단지 모두 입주 후 분담금 납부 유예 조건을 내건 셈이다.

조합원 분담금은 사업장마다 납부 일정이 다르지만, 통상 조합원 분양계약 때 계약금, 공사 기간에 중도금, 입주 때 잔금을 내는 방식이다. 일부 수주전에선 계약금과 중도금 없이 입주 때 전액을 내는 이른바 '0·0·100' 조건도 등장했다. 입주 후 유예는 이보다 납부 시점을 더 늦추는 방식이다.

분담금 납부 유예 경쟁은 강남권과 한강변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성수4지구 재개발 수주전에선 롯데건설과 대우건설이 각각 최장 6년 유예를 제시했다. 조합은 지난 7월 롯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했다. 압구정5구역 재건축에서는 DL이앤씨가 입주 후 7년 유예를 제안했고, 조합은 약 4년 유예를 내건 현대건설을 시공사로 택했다.

재건축 수주 경쟁이 설계와 브랜드를 넘어 금융조건으로 확대되는 것은 사업성이 높은 정비사업장을 선점하려는 건설사들의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건설사 입장에서는 일반분양이 원활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장에서 경쟁사보다 유리한 조건을 내세워 수주하려는 전략"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은 이어 "분담금 납부 시점을 늦추면 조합원이 자금을 마련할 시간을 벌 수 있다는 점에서 유리하지만, 결국 내야 할 돈인 데다 이자 부담까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DL이앤씨, 서울 핵심 정비사업지 집중 공략

2조 규모 성수2지구 신규 확보
수익성·안정성 중심 선별수주

DL이앤씨가 2조원 규모의 성수2지구 재개발 시공권을 가져가며 정비사업 일감을 크게 늘렸다. 매출 감소가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 핵심 사업지를 통해 중장기 매출 기반을 다지는 데 성공했다. 연말 추가 수주로 성장 기반을 넓힐 수 있을지 주목된다.

DL이앤씨는 지난 21일 열린 서울 성동구 성수2지구 재개발 조합의 시공사 선정 총회에서 시공사로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 총 투표수 757표 가운데 688표를 얻어 찬성률 90.9%를 기록했다.

성수2지구는 지하 6층~지상 최고 62층, 9개 동, 2350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짓는 사업이다. 총공사비는 2조137억원으로, DL이앤씨는 하이엔드 주거 브랜드 '아크로'를 적용한 '아크로 성수'를 제안했다.



'아크로 성수' 석경 투시도. /DL이앤씨

DL이앤씨 관계자는 "글로벌 설계 역량과 아크로의 주거 철학을 총동원해 성수의 미래가치를 이끄는 상징적인 랜드마크를 완성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수주로 DL이앤씨는 목동에 이어 성수까지 서울 핵심 사업지에서 입지를 넓혔다. 지난 6월 수주한 목동6단지 재건축은 공사비가 1조2868억원으로, 역시 2000가구가 넘는 대단지로 조성된다. 두 사업의 합산 공사비는 3조3005억원이다.

DL이앤씨는 수익성과 사업 안정성을 따지는 선별수주 기조를 유지하면서 서울 핵심 정비사업지 공략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주요 후속 사업은 경기 광명시 하안주공9단지 재건축과 부천시 중동역 서측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이다. 하안주공9단지는 공사비 9309억원 규모로, DL이앤씨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으며 오는 29일 시공사 선정 총회를 앞두고 있다. 중동역 서측은 공사비 7595억원 규모로, DL이앤씨가 지난달 입찰에 단독 참여했다. 이들 단지까지 수주에 성공하면 목동6단지·성수2지구를 포함한 네 사업의 합산 공사비는 약 5조원에 이른다.

/성채리 기자 cr56@

메트로 한줄뉴스

▲ 美상원 공화당, '트럼프 지명 인준' 서두르지만… 백악관 지침 못받아

▲ 젠슨 황 불륜 상대, 中 정보기관과 1년 넘게 접촉… 트럼프는 우려 일축

▲ 트럼프·푸틴 한자리에 앉힌 시진핑… 올해만 외국 정상 40명 넘게 맞았다

▲ 몸값 1조 달러 앤트로픽, 신용등급은 '정크' 전망… AI 투자에 경고등



▲ 이스라엘 군부, 네타냐후에 경고… "이란 공격 땐 다중전선 확전" /사진 뉴시스

▲ 전쟁 여파에 전력난 깊어진 이란… 대통령, 집무실서 절전 시범

2002년 5월 31일 창간 독자센터 : (02)721-9861

metroseoul.co.kr

metro® Life

제6041호 2026년 11월 24일 화요일



로컬맛집·축제 등
유통업계
지역 협업 활발
L1

두피·모발관리
기술경쟁
헤어케어 고도화
L2



취업·정착 돕고, 해외 인재 육성… 뿌리 내리는 '자립의 씨앗'

살맛나는 세상 이야기
ESG 경영시대

수출입은행

한 사람의 작은 발걸음이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보금자리가 된다.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는 자립의 기회를, 낯선 환경에 적응하는 다문화가족에게는 이동의 편의를, 개발도상국의 미래세대에게는 배움의 기회를 전한다. 한국수출입은행이 이어가는 사회공헌의 모습이다.

수출입은행은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과 국가 경제 발전을 뒷받침하는 정책금융기관이다. 금융을 통해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동시에, 그 성과가 사회 곳곳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나눔의 영역도 넓혀가고 있다.

특히 창립 50주년을 맞은 올해는 임직원이 직접 참여하는 봉사활동부터 취약계층의 자립을 돕는 사회공헌, 개발도상국의 미래를 지원하는 금융까지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단순히 도움을 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웃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 12만㎞ 걸어 만든 희망

누군가에게 도움을 전하는 방법은 거창하지 않아도 된다. 출퇴근길에 조금 더 걷고, 일상에서 시간을 내어 이웃을 찾는 작은 실천도 누군가의 삶을 바꾸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수출입은행이 올해 창립 50주년을 맞아 진행한 '동행의 발걸음, 기부런' 캠페인에는 이러한 생각이 담겼다. 임직원들이 걸은 거리에 따라 기부금을 조성하고, 이를 취약계층 아동의 주거환경 개선에 사용하는 참여형 사회공헌 활동이다.

지난 4월 말부터 한 달간 진행된 캠페인은 임직원들이 총 5만㎞를 걸으면 전국 취약계층 아동 가정의 노후 주거지 개보수 사업에 기부하는 방식으로 기획됐다.

직원들의 참여는 당초 목표를 크게 웃돌았다. 전체 임직원의 약 절반인 671명이 참여해 2주 만에 목표를 달성했으며, 최종 누적 거리는 목표의 2.4배인 12만㎞에 달했다.

수출입은행은 참여 성과에 맞춰 기부 규모도 당초 계획보다 2.4배 확대했다. 이를 통해 지난 6월 아동복지전문기관 초록우산에 5억원을 전달했다. 기부금은 전국 취약계층 아동 가정의 노후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데 사용된다.

임직원들이 일상에서 내디딘 걸음이 아이들이 생활하는 공간을 바꾸는 지원으로 이어진 셈이다. 수출입은행은 직원들이 사회공헌에 직접 참여하고, 그 성과를 이웃과 나누는 활동을 확대하고 있다.

황기연 수출입은행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가 사회안전망 확충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 도움에서 자립으로…희망씨앗

어려운 이웃에게 당장 필요한 물품을 전하는 일 만큼 중요한 것은 스스로 생활을 꾸려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일이다. 일자리를 얻고, 교육을 받고,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지원이 일상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수출입은행의 대표 사회공헌 프로그램인 '희망씨앗'은 이러한 자립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취약계층의 생계와 교육을 지원하는 데서 나아가 취업과 사회적응, 경제적 자립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수출입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취약계층 지원에 39억5000만원, 탈북민과 다문화가족 등 사회 신구성원의 사회적응 및 취업 지원에 21억9000만원을 투입했다.

장애인과 독거노인, 결손가정 등 도움이 필요한 이웃의 생활 기반을 지원하는 한편, 탈북민 대안학교와 취업아카데미, 다문화 대안학교 운영 등을 통해 새로운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올해는 지원 대상자의 자립을 돕는 조직들이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 범위도 넓혔다. 취약계층을 직접 돕는 것뿐 아니라 이들에게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방식이다.

수출입은행은 사회연대은행,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희망씨앗자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확대에 기여하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비영리단체 등 12개 기관을 선정해 기관당 15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자금 지원과 함께 맞춤형 전문 컨설팅과 역량 강화 교육도 제공한다.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조직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해야 이들이 제공하는 일자리와 서비스도 지속될 수 있다는 취지다.

◆ 국경 넘어 전하는 희망

국내에서 취약계층의 자립을 지원하는 수출입은행의 활동은 국경 밖으로도 이어진다.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국책은행이라는 특성을 살려 개발도상국의 교육과 생활환경 개선에도 힘을 보태고 있다.

희망씨앗 프로그램의 글로벌 사회공헌 분야에서는 개발도상국의 교육시설 개선과 의료·교육 지원, 아동 교육 등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글로벌 사회공헌 지원 규모는 2억9000만원이다.

교육과 의료서비스에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에서는 작은 지원도 미래를 준비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수출입은행은 국내에서 이어온 자립 중심의 사회공헌을 해외 소외계층으로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방향은 수출입은행이 수행하는 개발도상국 지원 금융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대표적인 것이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이다. EDCF는 개발도상국의 경제·사회 발전을 지원하는 정책금융으로, 기부 중심의 사회공헌 사업과는 성격이 다르다. 다만 교육과 산업 인프라를 확충해 국가와 지역사회의 자립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향한다.

수출입은행은 지난 11월 탄자니아의 인공지능(AI)·디지털 기술교육기관 건립 사업에 1억7000만달러 규모의 EDCF 차관공여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사업은 EDCF의 첫 AI 분야 사업으로, 현지 기술인력 양성과 디지털 산업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개발도상국의 미래세대가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산업 발전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이다. 당장의 경제적 지원을 넘어 장기적인 성장 역량을 높이는 데 의미가 있다.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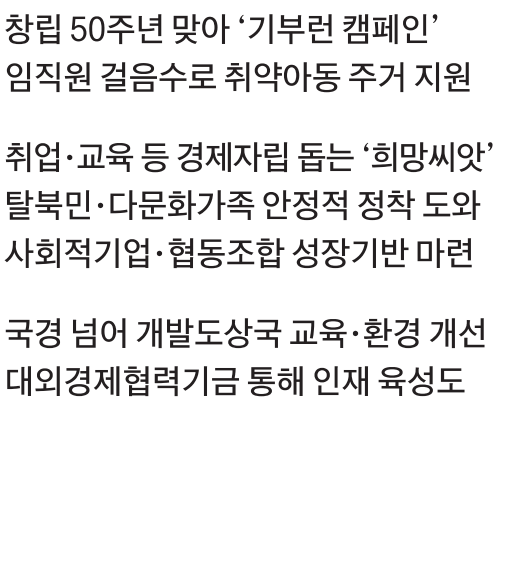


1 지난 4월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열린 '동행의 발걸음, 기부런' 행사에 참석한 한국수출입은행 임직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2 황기연 한국수출입은행장(오른쪽 두 번째)을 비롯한 수은 본점 임직원들이 올해 1월 29일 서울역 인근 노숙인 대상 무료 급식소에서 배식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3 이동훈 한국수출입은행 선임부행장(왼쪽)과 나투 므왐바 탄자니아 재무부 차관이 탄자니아 다레살람에서 EDCF 차관공여계약을 체결했다. /수출입은행

창립 50주년 맞아 '기부런 캠페인'
임직원 걸음수로 취약아동 주거 지원

취업·교육 등 경제자립 돕는 '희망씨앗'
탈북민·다문화가족 안정적 정착 도와
사회적기업·협동조합 성장기반 마련

국경 넘어 개발도상국 교육·환경 개선
대외경제협력기금 통해 인재 육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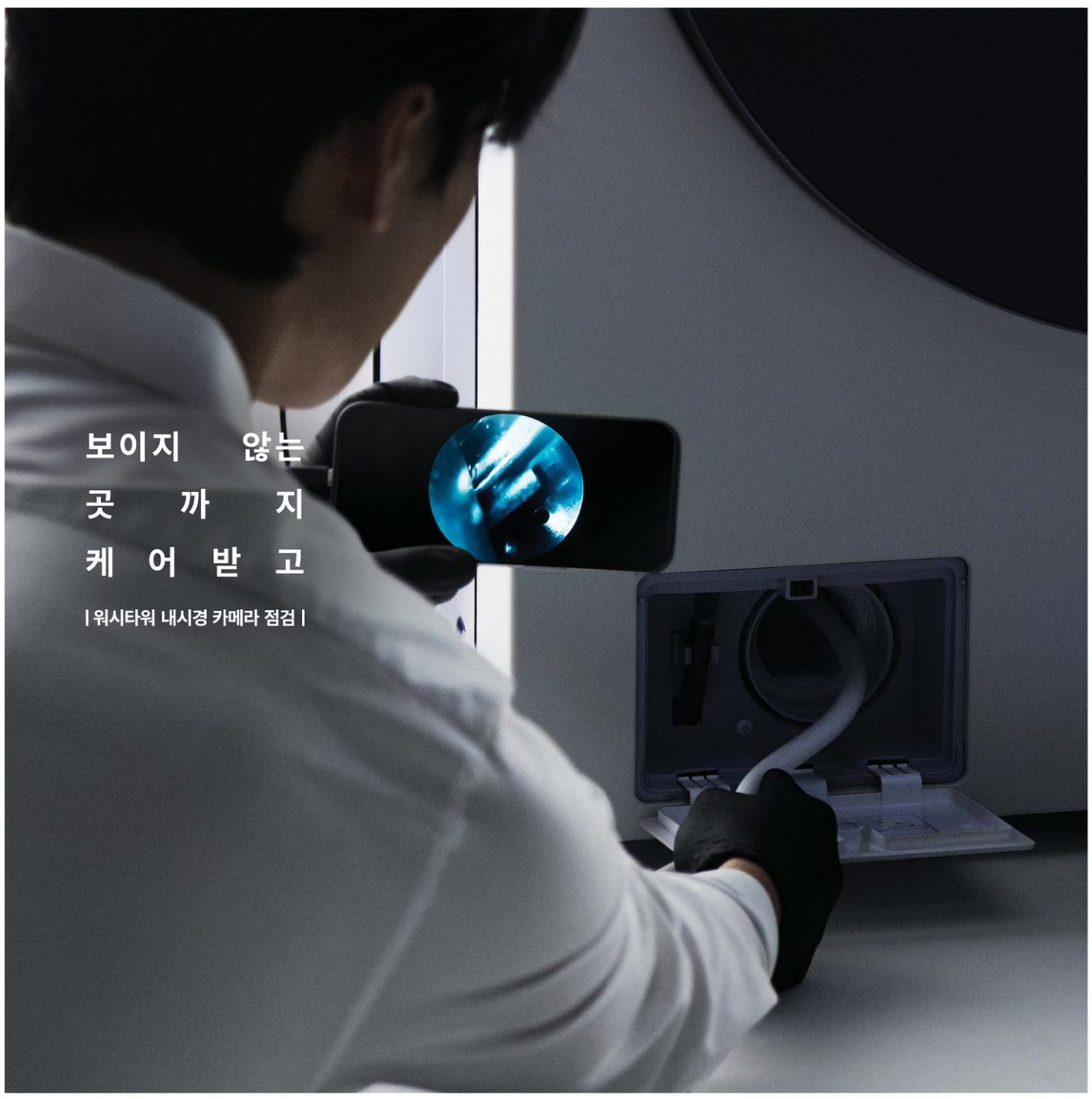
메트로 한줄뉴스



▲"내일 아침 경질될 거야"…포체티노, 최악의 맨유 데뷔전 /사진 뉴시스
▲프로축구연맹, 시민구단 횡령 임금체불 사과…쇄신안 발표
▲'김지우 해트트릭' 한국, 뉴칼레도니아 6-0 꺾고 U-17 월드컵 32강행
▲'10년 만의 우승' FC서울, 28일 다자녀 가족 100가구 초청
▲권순우, ATP 메스 챌린저 준우승…데이비스컵 대표팀 합류
▲MLB FA 최대어 스쿠벌, 메츠와 9년 6050억원 계약…역대 투수 최대 규모

LG전자

LG전자 구독 subscribe







LG전자가 더 특별하게 준비한
온 국민 혜택 페스티벌

LG전자 베스트샵 등 오프라인 매장과 LGE.COM에서 다양한 혜택을 만나보세요.
기간 : 26.10.29~26.11.30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KOREA GRAND FESTIVAL

* 워시타워 케어서비스는 '25년부터 라이트 플러스 상품 가입 고객에 한해 제공되며, 직수/고압세척은 '26년 6월 출시된 WA2525**P6* 모델에 한해 제공됩니다. * 직수/고압세척 적용 모델은 방문 연차에 따라 제공 서비스가 상이합니다. (홀수 연차: 드럼 케어, 스팀 케어, 필터 세척 및 교체 / 짝수 연차: 직수·고압세척, UV 케어, 내시경 카메라 점검, 제품 점검, 스팀 케어, 필터 세척 및 교체) * 본 케어서비스는 가전구독 구매 고객에게만 제공되며, 일시불 구매 고객에게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서비스 구독 미운영) * 제품별로 제공되는 가전구독 케어서비스 내용 및 정기 방문 기간, 횟수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LGE.COM 내 가전구독 제품별 상세 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 해당 서비스는 일부 모델에만 적용됩니다. * 일부 모델은 추후 출시 예정입니다 *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연출된 장면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본 행사는 LG전자 베스트샵 등 오프라인 매장과 LGE.COM 구매 고객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 채널별 최대 혜택 금액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본 행사 내용(행사 모델, 경품 종류 및 수량 등)은 당사 사정에 따라 예고 없이 중단 또는 변경될 수 있으며, 준비 수량 소진된 경우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 세부 행사 내용은 LG 베스트샵 홈페이지, LGE.COM, LG전자 멤버십 앱 참조